건축사 520

KIRA 2012 08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966년 창간

칼 럼 사라진 풍경들, 사라질 풍경들 – 백사마을에 서다
에세이 이 시대의 정의는?
공간디자인이 도시경쟁력의 패러다임이다!

KOREAN ARCHITECTS

beyond the best

금호석유화학

지키는 것이 **기술**이다

흑연으로 가장 쾌적한 온도를 지키는
신개념 비드법 2종 단열재 **에너포르**

흑연 테크놀로지 | 에너포르는 열을 흡수하고 보존하는 흑연을 첨가한 첨단소재로 기존 단열재에 비해 20% 이상 높은 단열성능을 발휘합니다

슬림 이노베이션 | 뛰어난 단열성능 덕분에 기존 단열재보다 얇게 시공할 수 있어 공간은 더 넓게, 에너지 효율은 더 높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웰빙 신소재 | 내부 구조가 기존 단열재보다 훨씬 미세한 기포구조로 되어있어 습기, 세균, 곰팡이로부터 더욱 안전한 친환경 웰빙 소재입니다

건축법상 [가] 등급 단열재
에너포르는 기존 발포폴리스티렌에 흑연을 첨가, 결정구조상 복사열 흡수기능이 적용되어
동일비중의 기존 단열재에 비해 열전도율이 최대 약 10~20%까지 향상된 신기술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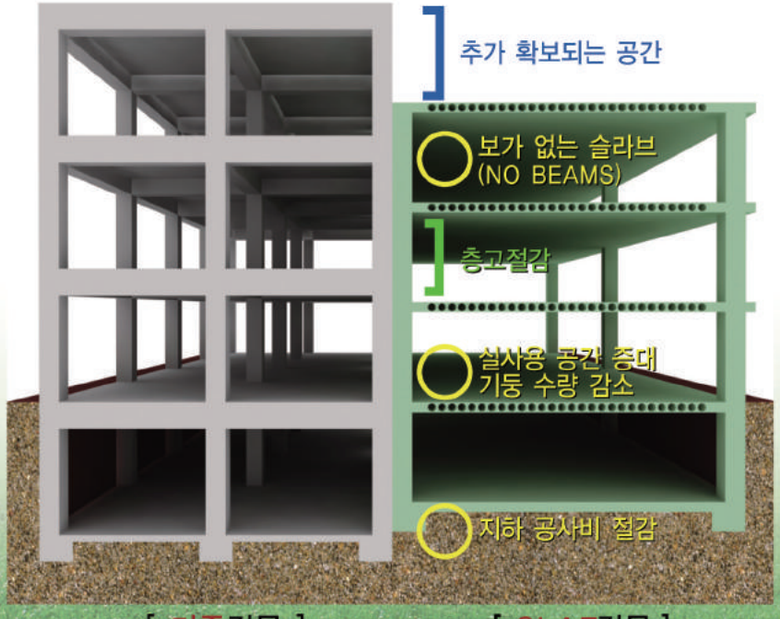
에너포르
www.kkpc.com

건축주가 원하는 바를
신공법 SLAF 가
간단히 해결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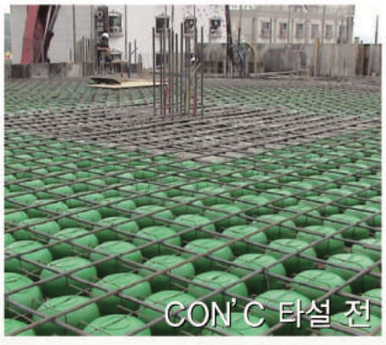
초경량 중공형 무량판 바닥구조

저탄소 녹색 성장 공법

- 공사비 절감 / 최소 15% 이상
- 공사기간 단축 / 최소 10% 이상
- 가용 공간 증대 / 기둥 수량 감소
- 소음 · 진동 · 보온 · 단열 · 내진 성능 우수
- 구조용역비 SAVE / 초기 구조 디자인 지원



[기존건물] [SLAF건물]



[주]신화엔지니어링
구조기술사사무소/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www.sh911.co.kr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20번지
TEL. (02)3481-3885(代) FAX.(02)3476-3888

[주]제일테크노스
SLAF데크시공사/데크플레이트전문기업
www.jeil21c.co.kr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50번지
TEL. (054)278-2841(代) FAX.(054)278-2883
TEL. (02)555-2055(代) FAX.(02)554-1476

미니로타리식 주차장치의

絶·對·强·者 창공 스카이파크

연속시장점유율 1위 누적설치실적 1위

www.juchagi.com

전국 1544-3335

PL법 영업배상 책임보험 8억 창공주차산업

창공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스카이파크

New Trend-Successful Business Power!

구동모터 2개로 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구동력을 갖춤

적용 : **중형급 16대형 / 대형급(RV 수용형) 12대형**

대형(RV급 수용형) 주차기 판매실시

2010년 신개발품! **수용대수 : 5대형~12대형**

일반형, 턴테이블 내장형까지

16대 수용형 및 대형(RV급 수용형)까지

절찬리 판매중!

아주 특별한 주차기 회사

주식회사 창공주차산업

CHANG GONG PARKING INDUSTRY CO.,LTD.

■ 서울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망원1동 385-2 1층 TEL : 02)333-4448

■ 본사 ·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번지 TEL : 054)973-1900

■ E-mail : sky23487@hanmail.net ■ FAX : 054)973-0067

21세기
첨단 시스템 도어
JUNGWOO safedoor

ISO 9001/2000 인증제품

JUNGWOO safedoor

특허 신제품

정우 스텐레스 단열바 프레임

정우 스텐레스 단열 세이프(강화)도어/정우 세이프(강화)도어

견고한 제작, 완벽한 밀폐에 의한 방음, 방풍, 냉, 난방비 대폭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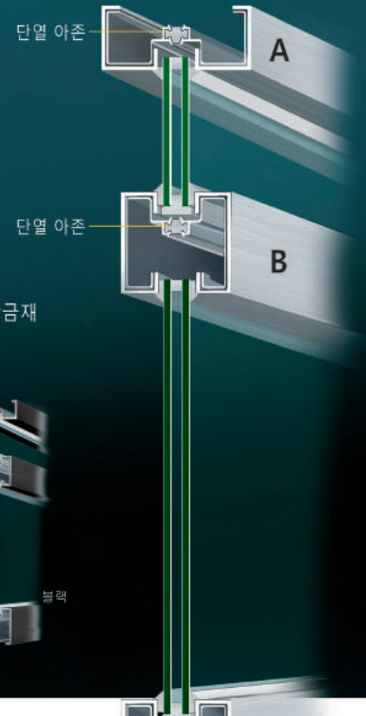
(주) 정우산업만의 노·하우로 제작되는
전 제품은 보이지 않는 곳 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스텐레스 단열바 프레임의 장점

- 아존을 충전하여 내, 외부의 온도를 차단하여 줍니다.
- 완벽한 밀폐에 의한 방음, 방풍으로 냉, 난방비를 대폭 절감해 줍니다.
- 스텐레스 내부 보강재는 알미늄으로 되어 있어 연결부 틈새에 결로 또는 부식에 의한 녹물 흐름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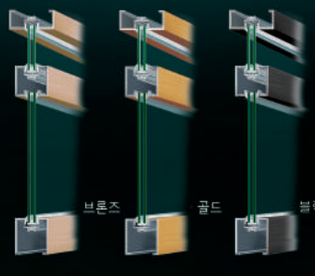
색상선택이 자유롭 습니다.
• 스텐 • 골드 • 브론즈 • 헤어라인 • 밀러 • 갈바 불소코팅

단면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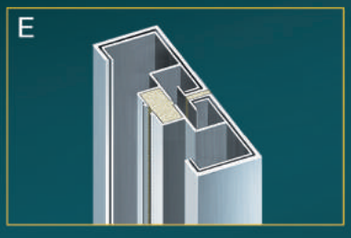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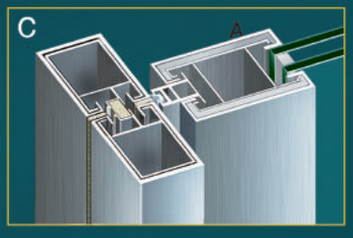
재질/한국산업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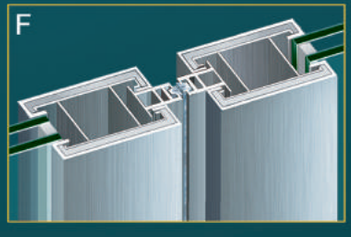
- K.S D 6759, 6063, 알미늄 합금재
- K.S D 3098 스텐레스
- K.S L 2002 강화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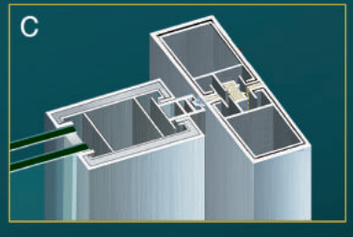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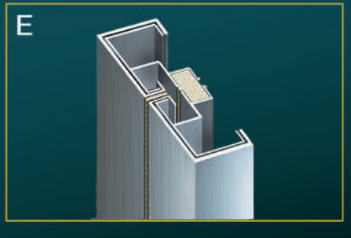
단면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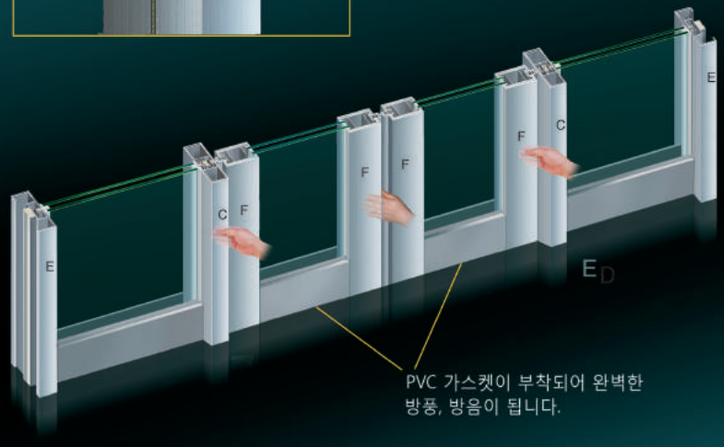












PVC 가스켓이 부착되어 완벽한
방풍, 방음이 됩니다.

▶ 가격표 :
월간 물가 자료집 586p 참조
(2011년 10월 부터)

어린이「손」안전과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는 기업

(주) 정 우 산 업

www.safedoor.co.kr

본 사 :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430-8
TEL : (053)325-9800/325-9801~2
FAX : (053)325-9802
E-mail:jungwoo9800@hanmail.net

• 전국 영업망 구축 •

brother
at your side

건축,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을 위한

세계최초 리얼 A3 컬러 잉크젯 복합기
브라더 MFC-J6710DW

A3용지 인쇄 PRINT A3용지 스캔 SCAN A3용지 복사 COPY A3용지 팩스 FAX

PC MAGAZINE EDITORS' CHOICE
MFC-J6710DW
01/Jun/2011

기자들의 선택상 수상제품
(선정 2011. 6. 1)

LC73계열

Cyan	Magenta	Yellow	Black
LC73C	LC73M	LC73Y	LC73BK
600매	600매	600매	600매

LC77XL계열

Cyan	Magenta	Yellow	Black
LC77XL-C	LC77XL-M	LC77XL-Y	LC77XL-BK
1200매	1200매	1200매	2400매

brother
at your side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7-22 백영빌딩 4층
Tel 02-572-4350 Fax 02-572-4363
http://www.brother-korea.com

A/S 문의 1577-3340

구매문의 최일환 대리 ilhwan.choi@brother-korea.com
HP.010-2291-5047

귀하가 요청하시는 현장에 맞게 주문제작 가능한 매립형 출입구매트. 월매트가 바로 정답입니다.
유럽형 신개념 출입구매트의 기능성과 다양한 디자인으로 건물의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월매트의 가치는 눈으로만 느끼기에도 충분합니다.
최적의 솔루션으로 귀하의 자산을 소중하게 지켜드립니다.

Luxury Entrance Matting System

시공실적

국립생태원, 국립제주해양과학관, 국회의원회관, 월드건설 사옥, 파주 롯데프리미엄아울렛, 63빌딩, 현대기아마북연구소, 한진중공업 필리핀메인오피스, 한진중공업 마닐라 사옥, 김포롯데몰, 제주보광휘닉스 아일랜드, 삼성테크윈판교R&D센터, 판교LIG넥스원R&D센터, 송도 포스코건설사옥, 삼성전자기흥연구동, 신도림대성디큐브시티,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이랜드사옥,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병원, 서울시립대학교, 인천의료원, 전북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천안단국대치대병원, 아시아나 기내식센터, 전국 초·중·고교 시설환경개선공사, 두산위브더제니스, 제주대학교, 휘닉스스프링스CC, 휘슬링락CC, 프리마호텔,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삼성디지털프라자, LG하이프라자, LG패션, 금강제화, 제일모직, 나이키 전국매장, 유니클로, 아디다스, KT지사등

국회의원회관

삼성그린투모루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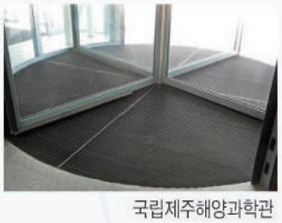
아시아나캐터링하우스

신촌세브란스재활병원

삼성테크윈판교R&D센터

파주롯데프리미엄아울렛

현대백화점 신촌점


국립제주해양과학관

현대기아마북연구소

송도포스코 R&D

ECOSYS (주)에코시스/월매트 |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544-2 Tel: 02-786-7115 / Fax: 02-784-2011

동교동 유림빌딩 리모델링
Design Idea 학생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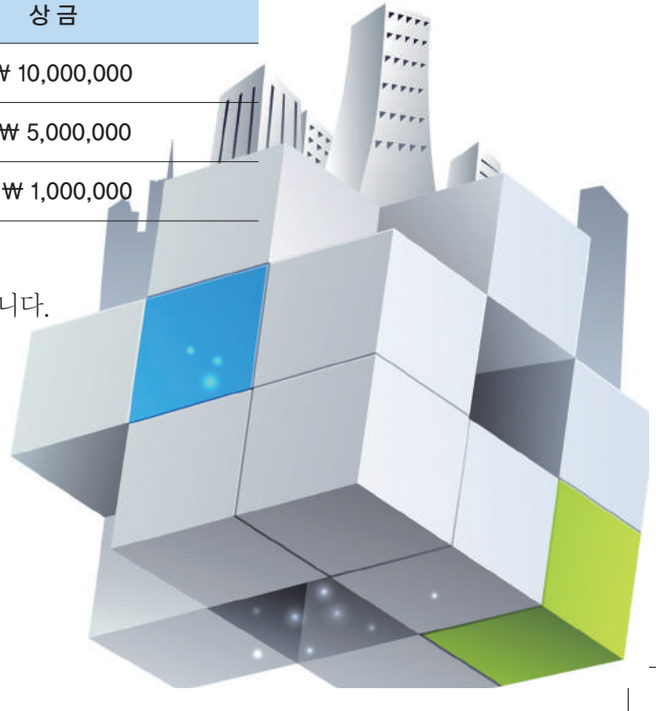
[공고명 : 동교동 유림빌딩 리모델링 Design Idea와 작품명 학생공모]

취지 : 동교동에 위치한 유림빌딩은 현재 5층 건물이며 증개축 리모델링을 통하여 젊은이들이 즐겨찾는 매력적인 상권을 형성하고 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하는 독특한 외관과 공간을 계획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젊은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적극 디자인에 반영하여 계획하는 실험적인 Design Idea와 작품명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젊은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대지위치 :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65-4
2) 건축주 : CBRE글로벌인베스터스 자산운용㈜
3) 발주자 : 한미글로벌㈜
4) 추진 일정
   ① 응모등록 : 2012년 8월 1일 (수) ~ 2012년 8월 7일 (화) 17:00 까지
   등록처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9 도심공항타워빌딩 11층
   한미글로벌(주) 엔지니어링팀 이해욱 차장(hwlee@hmglobal.com)
   응모 신청자는 e-mail로 응모 신청서 교부 신청 바랍니다.
   ② 현장 설명 일자 및 장소 : 2012년 8월 8일 (수), 장소는 별도 통보
   ③ 제안서 접수 : 2012년 8월 31일 (금)
   ④ 최종선정 : 2012년 9월 7일 (금)
5)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소재 대학교 건축(공)학과 재학생 및 대학원생(팀구성 가능)
6) 상금

구 분	수 량	상 금
당선작	1점	₩ 10,000,000
우수작	1점	₩ 5,000,000
가 작	3점	각 ₩ 1,000,000

7) 기타 사항
   ① 응모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공모전에 출품할 수 없습니다.
   ②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KOREAN ARCHITECTS

건축사

www.KIRA.or.kr
2012 August 08

COVER STORY

표지사진 :
판교 U-HAUS 642-8
정승이 건축사(유한 건축사사무소) 작품 中

발 행 인	강성익
편집인 겸 편집국장	조충기
취 재 · 편 집	최락청, 손석원, 문지은
발 행 처	대한건축사협회
주 소	137-877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전 화	대표 02_3415_6800
팩 시 밀 리	02_3415_6850
인 터 넷	www.kira.or.kr
디 자 인	(주)랜스에디팅 02_2273_8576
인 쇄	현진크리에이티브 02_2276_6341~3
광 고 문 의	홍보편찬팀 02_3415_6862~4

Publisher	Kang, Sung Ik
Editor	Zo, Chung-gi
Reporter	Choi, Rak-chung / Sohn, Suk-won / Moon, Ji-eun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 1-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77
Tel	(02)3415-6800
Fax	(02)3415-6850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013 칼 럼 COLUMN
사라진 풍경들, 사라질 풍경들
백사마을에 서다
Lost cityscape, to be lost cityscape
_정익현

014 에세이 ESSAY
이 시대의 정의는?
What is the justice in these days?
_오동욱

016 에세이 ESSAY
공간디자인이 도시경쟁력의 패러다임이다!
한마음으로 결집된 경상북도 건축인
Space design is the paradigm of City's Competitiveness.
_이재춘

019 만 평 CARTOON
_김진균

020 회원작품 WORKS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SUNCHEON-SI CULTURAL HEALTH CENTER
_이성만_KIRA | (주)에공포럼 건축사사무소

치악풍경(雉岳風景)
CHIAK SCENE
_박유진_KIRA | (주)건축사사무소 시간

Contents 520

대 한 건 축 사 협 회　발 행　2 0 1 2 년　0 8 월 호

판교 U-HAUS 642-8
U-HAUS 642-8
_정승이_KIRA | 유한 건축사사무소

서부침례교회
SEOBU BAPTIST CHURCH
_이용우_KIRA | 칸.도시 건축사사무소

052 설계경기 COMPETITION
광교신도시 문화복지시설
GWANGGYO CULTURE & WELFARE FACILITIES
(LIBRARY, WELFARE CENTER)

남해 독일문화 체험센터
GERMAN CULTURE CENTER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CHEONGJU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066 건축과 법률이야기 THE STORY OF ARCHITECTURE AND LAW
준공 20년 지났어도 철거 불가피성 인정되어야
노후 · 불량건축물
Deconstruction should be avoided since it has been
20years after construction. old ramshackle buildings
_성승환

069 보고서 REPORT
중국건축학회와 협정체결
Establish Accord on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e
between ASC and KIRA
_조인숙

078 건축마당 ARCHITECT'S PLAZA
협회소식 Kira News
건축계소식 Archi-Net
해외건축동향 _이윤석 Overseas News Review
통계 Statistics

복합기능 고효율 단열재 전문기업

단열재는 역시 테크론!

두께는 얇고 열효율 높은 친환경 단열재!

우수한 성능 입증!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기술 및 기능성 연구에 의한 제품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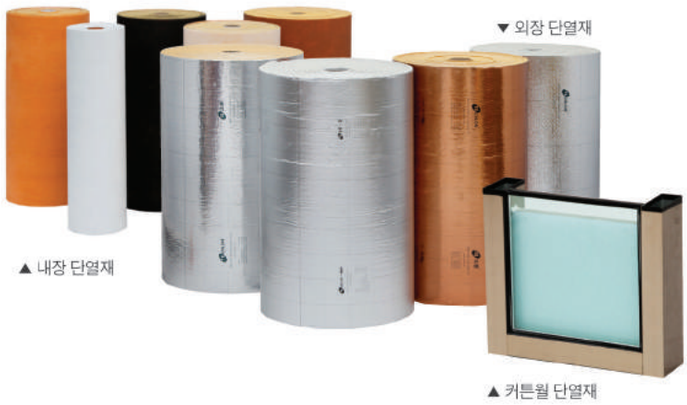
우수한 복합 기능! 표면이 Pure Aluminium foil 층으로 내구성, 내열성, 내진성, 방음성이 강하고 복사열을 차단(97%)하는 복합 기능 열반사 단열재!

에너지 절감 효과! 우수한 내습성, 방수성, 내열성, 내한성으로 보온 달열효과가 높음!

친환경 소재! 산화 및 풍화현상이 없으며 고인장강도로 지속적인 성능을 유지!

간편한 시공! 건축물 시공시 굴곡진 모서리 부분이나 틈새부분도 빈틈없이 타카 시공 및 스티커식 시공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며, 잔재물이 없음!

테크론탑 2015 적용 65mm감소!



테크론™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북좌리 379번지
대표전화 031)671-7071~3 팩스. 031)671-7074
www.itechlon.com

사라진 풍경들, 사라질 풍경들
백사마을에 서다

Lost cityscape, to be lost cityscape

정익현 |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비가 오락가락하는 초여름 오후, 오래전부터 별렀던 백사마을을 처음 방문했다.
매스컴을 통해서 짐작했던 대로 마을의 건물은 비록 낡았지만 골목길은 정겨웠다. 경사진 골목길을 따라 마을 뒤 꼭대기까지 올라가니 초록 비 맞은 불암산이 구름에 싸인 채 그림처럼 다가온다.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의 백사마을은 1967년 도심 재개발에 의해 청계천, 영등포 등지의 주민들이 강제철거를 당하여 이주해 올 당시의 지번인 중계리 산 104번지에서 유래된 것이라 한다.
이곳은 1971년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였다가 2008년 해제되었다. 그 뒤 2009년 5월 아파트 위주로 전면 재개발하기로 했다가 사회 각층에서 보존의 필요성을 제기해 마을 전체 구역 18만 9천㎡ 중 23%인 4만 2천㎡를 저층 주거지 보전구역으로 설정해 주거지 원형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개발하여 1,720가구의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고 저층주택 354채는 그대로 보존한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도 한편, 우려되는 점도 있어서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심정이다.

우선 첫째, 계획안을 보면 저지대에 저층 보존주택이, 고지대에 고층 아파트 군이 새로 건립됨으로써 생기는 경관상의 문제와 패션(Fashion)이 그러하듯 권력이 된 고층 아파트가 저지대 주민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이다. 백사마을 정상부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멀리 고층 아파트가 눈 아래 보일 정도로 높은 이 자리에 고층 아파트가 세워진다. 몇몇 아파트 주민의 전망이야 좋겠지만 능선이 파괴되어 국지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바로 옆 해발 508m 불암산을 압박하여 이 지역 경관을 해칠 것은 뻔하다.
둘째는 정형화되지 않은 각각의 터에 무질서한 듯 빼곡히 자리 잡은 집과 마당으로 이어진, 막힌 듯 막히지 않은 골목길의 편안함을 어떤 식으로 보전하면서 거주민의 생활의 편리를 도모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셋째는 역사교육장, 영화촬영지 등 이곳을 관광명소화 한다는 발상이다. 개인의 고유한 삶이 누군가의 볼거리가 될 수는 없다. 저층 보전구역은 그곳에 사는 사람이 주인이다. 벽화마을로 유명한 경남 통영의 '동피랑 마을'에 방문객이 몰려들어 사진기 셔터를 시도 때도 없이 눌러 대고 있다. 재개발로 사라질 뻔한 이 마을을 벽화가 살렸지만 오죽하면 골목길 벽에 '제발 조용히 다니세요. 사람 사는 곳입니다.'라고 써 붙였을까.

백사마을을 연민의 눈으로 보고 싶지는 않다. 우리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웃으로, 조금 덜 풍요로울 뿐 이곳의 주민이나 어린 시절 이곳에서 자라 성인이 되어 떠난 출향민도 이곳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마 부끄러운 것은 우리의 잣대로 그들의 삶을 재단하려는 마음이리라.
삶에 지친 사람들이 세월을 견디며 살아온 흔적들이 묻어나는 이 골목길을 걸으며 조금이라도 마음이 치유(Healing) 된다면, 이곳을 방문한 고향사람이 마당 한 구석, 골목 어느 모퉁이에서 잃어버린 나의 편린(片鱗)들을 발견 한다면, 저층 보전구역은 성공한 것이라 하겠다.
'우리 형의 얼굴은 누구를 닮았던가요. 아버지가 그리울 때면 형을 보곤 했지요. 오늘 형이 그리워서 어디 가서 볼까 하다, 옷매무새 바로 하고는 시냇물에 비춰봅니다.(我兄顔髮曾誰似, 每憶先君看我兄. 今日思兄何處見, 自將巾袂映溪上.)' 연암 박지원이 형의 죽음을 접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며 지은 시이다. 우리는 고향에서 잃어버린 나를 찾는다.

사라진 풍경들-동대문 운동장이 그랬고 옥수동이, 뚝섬이, 골목길이 그랬다. 백사마을 마루에서 사라질 풍경 하나를 바라보며 불암산 옆에 다소곳한 풍경이 될 백사마을을 그려 본다. 부서지는 햇살아래 어린아이의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골목 구석구석을 굴러다니는, 권력이 아니라 풍경이 된 건물을….

필자는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으로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예전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충청북도건축사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대한건축사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SSAY

이 시대의 정의는?

What is the justice in these days?

오동욱 |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법률은 초기에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나 원칙을 정립한 것으로 부터 현대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분야가 지속적으로 생기게 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까지 법률로서 만들어 지게 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요 근본이다. 곁가지나 사이가지가 생겨나 아무리 잘낫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은 뿌리인 것이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듯이….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 지면서 그 법의 모태격인 기본법의 정의를 침범하고 제한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하기 곤란한 업무(보다 전문적이고 고도의 지적내용을 수반하는)들 가운데 국민의 생명, 재산 및 안위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정부부처 산하에 직접적으로 이를 대행하기 위한 전문가제도를 둔다. 이가 곧 변호사, 의사, 약사, 회계사… 건축사 등이다.

그런데 최근 규제위에서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분야에서 국가전문자격자 외 다른 자를 점검자로서 행위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는 건축에 대한 이해와 무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건축(법)의 정의를 부정하고 근본을 침해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환자를 의사가 아닌 자에게 진료를 맡기는 행위'인데 말이다.

또한 인테리어협회 및 연구용역자가 인테리어를 실내건축이라고 호도하며 자기네들이 실내건축의 배타적인 영역과 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정부 발주용역을 수행한 후 최종보고회를 마쳤다고 한다.

그런데 건축물의 설계분야에서 국가전문자격자단체인 우리협회의 대표단은 사전 참석통보를 담당자와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담당과장에게 문전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초고층 건축분야에서 구조기술사가 감리해야 한다고 발의되고 있다. 건축(기본, 마감, 구조, 기계, 전기, 토목 등)도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얼마만큼이나 이해되게끔 설명하는게 현실인데 그런데도 그들이 시공과정에서 감리를 한다?

그밖에 금년도 발생하였던 근본을 흔드는 행위로서 건기법에서의 건축설계분야를 건설기술로서의 정의하는 부분, 초고층 건축물 설계 초기단계에서부터 구조, 시공, 도시기술사 등이 참여하여 국가전문자격자의 근본을 침해하는 부분, 기술사들의 모든 도서에서 최종날인, 초고층 건축물분야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해야한다는 부분 등….

상기의 행위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배경에는 현대사회에서 경제적 금력에 의한 탐욕이 기본적인 배경임에 틀림없다. 잘 살자는 것이 무슨 문제일 수 있겠느냐만

오동욱은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으로 국토해양부 자문위원, 서울지방항공청 심의위원, 소방방재청 심의위원, 한국건축자재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청석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현대사회에서 경제적 금력에 의한 탐욕이 기본적인 배경임에 틀림없다. 잘 살자는 것이 무슨 문제일 수 있겠느냐만 이는 나 아닌 타인의 부당한 희생하에 살겠다는 의미로서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는 나 아닌 타인의 부당한 희생하에 살겠다는 의미로서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그럼 이시대의 위정자나 국민의 시녀라고 불리우는 공무원들은 과연 그 근본에 충실한가? 집단적이고 배타적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당한 논리에 의한 직업적 세력군들의 이중적 행태에 흔들리고 앞장서지 않는가?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건축의 분야에서 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이 시대의 정의와 근본은 과연 무엇인가? '21세기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의이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근본 및 정의를 부정하는 행위가 과연 정당한가? 그들의 주장에 무슨 정당성이 있는가?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우리 공동체의 근본 및 정의를 뿌리채 파괴하는 행위일 것이다.

현재는 돈의 가치가 최우선시 되는 사회로 '돈이 정의다'라고 까지 왜곡되고 있다.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바탕에 정당함이 있다고 할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사회가 '정의의 실종…' 이라는 현상이 보편화 되고 있음을 경계하고 감시해야 한다.

누구든지 국민은 공동체 및 국가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저변에는 공동체의 정당성에 입각한 공통적 가치추구 및 불변의 정의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것의 근본이 침해 당하였을 때의 분노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간은 공동체 및 국가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저변에는 공동체의 정당성에 입각한 공통적 가치추구 및 불변의 정의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것의 근본이 침해 당하였을 때의 분노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의의 여신상

공간디자인이 도시경쟁력의 패러다임이다!

한마음으로 결집된 경상북도 건축인

Space design is the paradigm of City's Competitiveness.

이재춘 |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장

경상북도 건축인들이 경북을 지역의 역사성과 미래의 비전을 담은 새로운 공간으로 디자인하기 위해 산 · 관 · 학 건축단체 구성원 모두 한마음으로 결집하여 나서고 있다.

우선, 지난 6월 2일 경상북도건축사회 · 대한건축학회 대구경북지회 · 경상북도 건축담당 공무원 등 산 · 관 · 학을 총망라한 건축관계인이 한자리에 모인 「2012 경상북도 건축인 어울림 한마당」은 2,000여 명의 건축인들이 침체된 건설경기 타파를 위해 건축설계 · 시공 · 감리와 건축분야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건축행정의 가장 기본 소임인 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를 위해 민간주택건설부문의 투자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지역밀착형 일자리 창출에 힘쓴 결과 경상북도의 주택건설 실적이 작년보다 50% 증가하고 미분양주택은 작년보다 56% 감소하는 등 경북의 주택경기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상북도의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노력과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대책 추진, 장기간 주택공급부족에 따른 수요회복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저소득층 주택개보수사업을 추진하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도농이 공생하는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그동안의 성장위주의 급속한 개발과 경제성장과정에서 무질서하게 조성된 도시 · 건축물 · 경관 등을 디자인의 영역으로 확장시켜 2012년을 '테마가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선포하고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 각종 공모사업 유치와 도 자체사업 발굴을 통해 총 12개 시 · 군 18개 지역에 1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중 7개 지역은 중앙공모사업을 유치해 16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8개 사업지구가 증가하고 사업비가 146%정도 증가하여 명실 공히 디자인사업 원년임을 실감케 한다. 특히 도는 올해 7개 군지역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해 45억 원을 투입, 도시중심이던 공공디자인 사업을 농어촌지역까지 확대한다. 따라서 도시는 물론 농어촌지역도 수준 높은 디자인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에게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민간시설에까지 파급효과를 확대한다.

이밖에도 시가지내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설치된 상가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정비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7개 지역에 국비 1억3천100만 원, 도비 25억4천만 원, 시군비 26억3천100만 원 등 총 53억200만 원을 투자하며, 농촌지역의 복합희망공간을 창조하는 희망만들기사업을 3개 지구에 총 27억5천만 원을 투자한다.

경상북도가 타시도와 차별화되는 것은 글로벌 전략에 있다. 국내에서 준비하는 글로벌 전략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태동이 된 새마을 운동의 세계화사업을 준비하는 국내 전초기지로 사용될 '새마을운동테마공원'건립사업이며, 구미시 상모 · 사곡동 일대 2015년 말 완공예정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외로 직접 진출하고 있는 글로벌 전략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시개발추진사업을 해외로

이재춘 국장은 경북산업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영남대에서 환경대학원 환경설계학 석사를 취득, 경상북도청에서 문화재팀장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전정책과장, 건축지적과장, 건축디자인과장으로 재임하다가 현재 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근정포장과 건교부장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확장하는 '몽골 울란바타르시 도시개발추진사업'이다.

이를 통하여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시의 주택건설사업 기술지원과 지역 업체 진출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도 건축디자인과, 토지정보과 등 8개과 20명의 직원과 대구대, GIS전문가 등 산 · 관 · 학 협력체계를 갖춘 5개 팀 26명으로 '몽골 울란바타르시 도시개발추진단(이하 UB추진단)'을 구성하여 지난 4월 발대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UB추진단은 7월 16일부터 1개월간 울란바타르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구대에서 GIS이론과 실기교육 등 도시개발 분야 연수를 실시한다.

경상북도의 새마을운동 세계화 프로그램을 접목시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는 것도 UB추진단의 주요임무 중 하나다. 경상북도가 몽골에서 제공받은 20ha 규모의 부지에 '경북드림파크'를 조성하여 경북의 문화와 기술수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방침이며 몽골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대학 및 기관단체와 함께 공원조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홍보관, 상징물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은 공간디자인의 미래에 관하여 쉼 없이 달려오고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금까지의 도시는 2차원 평면개념으로 다루어졌으나 앞으로는 3차원 입체적 개념과 도시의 시대상과 비전을 담은 4차원의 공간감을 담은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도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경북의 도시공간, 기반시설, 주거공간을 아우르는 차원 높은 행정을 통해 도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 균형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도시는 2차원 평면개념으로 다루어졌으나 앞으로는 3차원 입체적 개념과 도시의 시대상과 비전을 담은 4차원의 공간감을 담은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도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경상북도가 타시도와 차별화되는 것은 글로벌 전략에 있다. 국내에서 준비하는 글로벌전략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태동이 된 새마을 운동의 세계화사업을 준비하는 국내 전초기지로 사용될 '새마을운동테마공원'건립으로 구미시 상모 · 사곡동 일대 2015년 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외로 직접 진출하고 있는 글로벌 전략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시개발추진사업을 해외로 확장하는 '몽골 울란바타르시 도시개발추진사업'이다.

2012 경상북도 건축인 어울림 한마당

대한건축사협회와 경상북도, 주택건설협회의 협회 사옥 「도청신도시」 이전 MOU체결

구미 공단특화거리 조성사업 2구간 투시도

건축사 창간호
1966년 7월

건축사 100호
1977년 6월

건축사 200호
1985년 11월

건축사 300호
1994년 4월

건축사 400호
2002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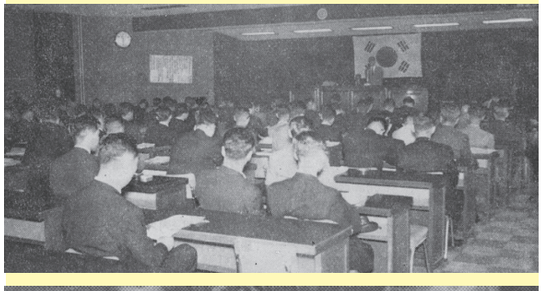
건축사 500호
2010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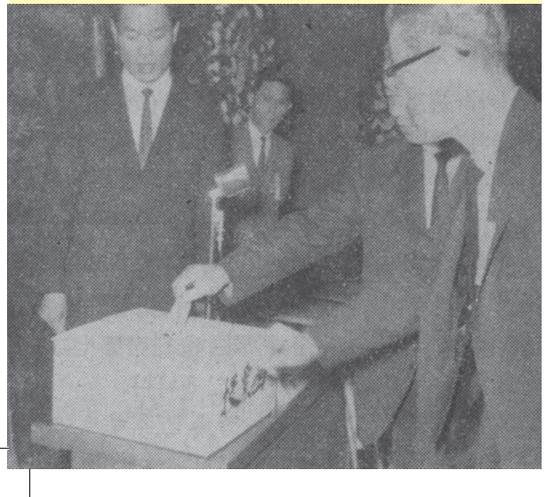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 건축史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65년 건축법이 제정되었다.
1965년 5월 15일 제1호 건축사가 탄생했다.
1965년 10월 13일 대한건축사협회가 창립되다.
1966년 7월 제1호 「建築士」지가 발간되었다.
2010년 12월 「建築士」지는 500호를 발간하였다.
2012년 7월 현재 519호가 발간되었다.

건축사지는 국내유일의 전통 건축잡지입니다.
건축사지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 건축史에 건축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건축사 여러분의 참여는 더 나은 대한민국 건축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상)창립총회 광경 / (하)회장선출 투표 광경(당시 장기인 회장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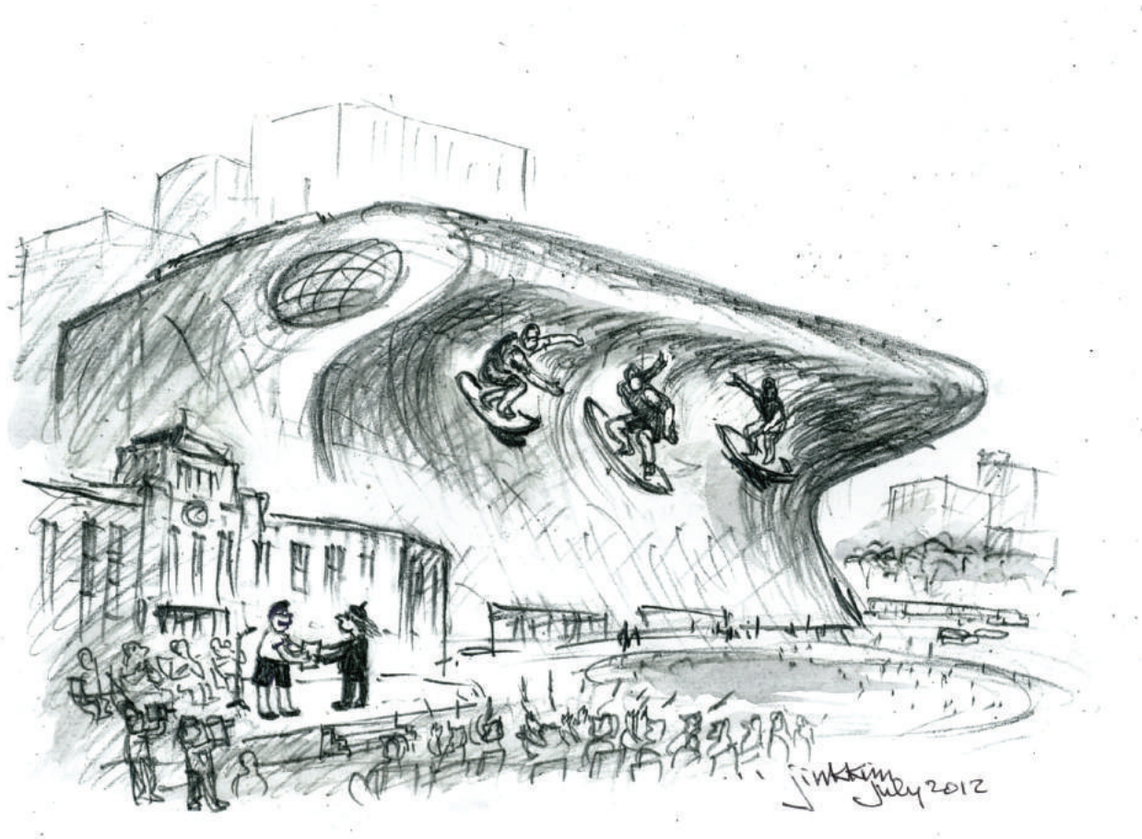




기고내용

구 분	내 용
준공작품	최근 준공된 프로젝트〈건축물 이미지 20컷 내외, 설계개요, 설계소묘(200자 원고지 5매 내외). 기본도면(배치, 단면, 평면/PDF 제출)〉
현상설계	최근 현상설계경기에 응모하였거나 입상한 프로젝트〈제출패널을 편집 가능한 형태로 제출 (혹은 투시도, 모형사진 2~3매. 주요도면 3~4매) 설계개요, 설계소묘(200자 원고지 5매 내외)〉
기고 등	건축계 현안에 대한 소감, 건축여행(이상 A4 5매 이내) / 세미나참가, 기타 건축계 주변의 활동사항이나 알리고 싶은 내용 등〈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보도자료 및 관련사진 1 ~ 2매〉
작품노트 등	준공, 계획, 미실현된 작품 중 가장기억에 남는 작품을 선정, 작품과 관련된 뒷이야기를 수필형식으로 집필(A4 4매 이내, 관련사진, 도면, 스케치 등 제출)

보내는 곳
• 웹하드 : www.webhard.co.kr(ID : kiraweb, PW : 5712) • FAX 02-3415-6850 • 이메일 : news1@kira.or.kr



"귀하는 우리시가 공모한 '신청사 예술장식품 현상'에
당선하였기에 상장과 상품을 수여합니다."

김진균 | Kim, Jin-kyoon

- 공학박사, Hon FAIA
- 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전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KAAB) 원장
- 전 대학건축학회 회장

WORKS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SUNCHEON-SI CULTURAL HEALTH CENTER

평 생 학 습 관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건축주 | 순천시

설계자 | 이성만_KIRA | (주)예공포럼 건축사사무소

신창훈_KIRA | 운생동 건축사사무소(주)

- 설계팀 : 박문원, 임권택, 함승구, 송원석, 고재필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베이스구조
  - 전기 · 통신설비분야(소방포함) : (주)선화기술단 사무소
  - 기계설비분야(소방포함) : 한일엠이씨
  - 토목분야 : 우빈기술개발
  - 조경분야 : 그룹. 한 어소시에이트

감리자 | (주)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대선건설(주)

대지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석현동 35-7번지 외 19필지

대지면적(Site Area) | 26,160.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8,466.40㎡

연면적(Gross Floor Area) | 16,678.08㎡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32.36%

용적률(Floor Area Ratio) | 57.97%

규모(Building Scope) | B1 - 4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주요마감재 | 실내 _ 무석면비닐계타일, THK22 융커스 압축건조
너도밤나무, THK22 경질나무후로링
실외 _ 금속패널, 펀칭메탈, HK24 복층유리

설계기간 | 계획설계기간 2008.09.01~2008.11.12 / 실시설계기간 2008.11.13~2009.01.28

공사기간 | 2009.06.30~2011.11.05

Client | Suncheon-si

Architect | Lee, Sung-man / Shin, Chang-hun

Project Team | Park, Mun-won / Lim, Kaun-teack / Ham, Seung-gu
Song, Won-suk / Goh, Jae-pil

General Constractor | DAESUN ENGINEERING & CONSTRUCTION

Location | 35-7, Seokhyeon-dong, Suncheon-si, Jeollanam-do, Korea

Structure | R.C, S.C

Structural Engineer | BASE STRUCTURAL CONSULTANTS

HVAC Engineer | Sunhwa Electricity & Mechanical co.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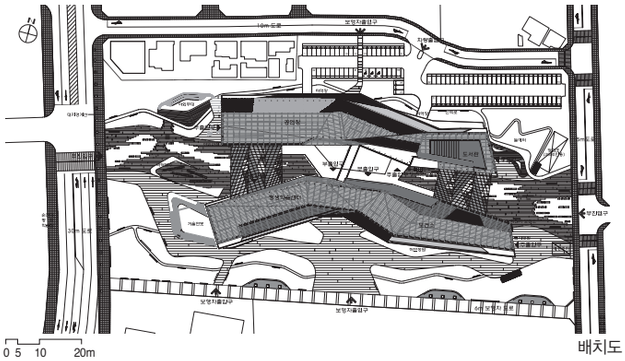
Electrical Engineer | Sunhwa Electricity & Mechanical co.sh

Civil Engineering | Red Ant ENGINEERING.CO., LTD

Finishing Materials | Vinyl tile, beechtree panel, hard wood flooring
metal panel, punching metal panel, pair glass

Design period |2008. 09. 01~2008. 11. 12 / 2008. 11. 13~2009. 01. 28

Construction period | 2009.06.30~2011.11.05



배치도

순천시 문화건강센터의 디자인 모티브는 순천의 자연과 인간존중에 있다. 생명의 도시, 순천은 자연의 도시이다. 세계적인 생태수변인 순천만으로 대표되는 순천의 자연환경은 자연문화와 도시문화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자부심이다. 이에 자연생태와 도시문화의 흐름이 소통하는 자연생태문화공간을 구축하고자 한다. 사람과 자연, 사람과 문화가 어우러진 건강한 도시문화를 지향하고자 한다. 인간의 염색체가 생명의 진화와 완결을 위해 분화하듯, 여기의 공간은 문화염색체의 분화를 통해 문화복합체의 형태를 만들고 진화한다. 인간염색체의 분화를 모티브로 삼은 4동의 각 매스는 유기적인 배치를 이룬다. 문화, 예술, 교육, 건강 등으로 기능하는 4개의 매스는 생명력 있는 유전자로 순천시민의 문화를 건강한 일상에 담아낸다. 순천만의 자연스러운 흐름은 분화된 매스를 순천의 자연처럼 통합시킨 문화아이콘이 된다. 이 흐름은 건축사뿐만 아니라 각 행정단체와 분야별 전문 기술진과의 협업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각 분야별 전문성을 인정하였고, 각기 동일 목표를 향한 노력은 계획단계에서 도출된 우리의 의지를 충실히 이행시켰다. 문화염색체의 유기적인 형태와 역동적인 선형의 흐름이 합리적이고 치밀한 시공방법을 통해 실현되도록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합리적인 해법을 제안하기 위해 입주하는 관련단체와 긴밀한 협업을 이루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외피와 프로그램, 공간과 구조의 완성도를 높게 하였다.

본 대지는 군부대가 있던 자리이다. 도시는 물론 시민들에게 단절된 땅이었다. 도시문화와 거리가 먼 경직된 땅이었다. 여기에 시민들의 일상이 녹아든 편안한 자연문화복합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사람의 흐름, 공간의 흐름, 물의 흐름이 유기적인 매스의 배치와 소통하게 하였다. 열린공간, 넓은마당을 가로지르는 녹색의 자연과 푸른 물의 흐름은 쾌적하고 편안한 순천시민의 문화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풍성하게 하고 있다. 본 건물이 생명력을 갖기까지 아낌없는 지원과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신 순천시청 평생교육과 강영선 국장, 류재식 주무관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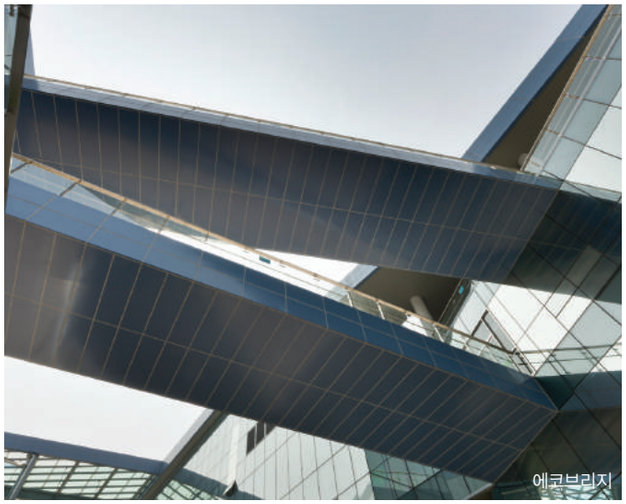
1층 외부 휴게공간

The design motif of Suncheon-si Cultural Health Center lies in the respect of nature and human beings in Suncheon. Suncheon, the city of life, is the city of Mother Nature. The natural environment of Suncheon represented by Suncheon Bay, the world-class ecological waterfront, is the global pride representing natural culture and urban culture. Therefore, an eco-cultural space in which flows between natural ecology and urban culture are communicated is to be built, which means a healthy urban culture with the blend of people and nature as well as people and culture is the ultimate goal.

Just like human chromosomes differentiate for the completion and evolution of life, the space of culture creates the culture complex and evolves through the differentiation of cultural chromosomes. Each mass of the significant four buildings whose motif is the differentiation of human chromosomes is organically deployed. Four buildings, which functions as culture, arts, education and health, converge the culture of citizens in Suncheon into a healthy life with the help of lifeful genes. With this, the natural flow of Suncheon Bay will become a cultural icon incorporating the differentiated masses like the nature of Sunch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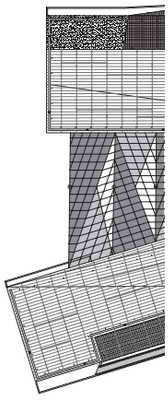
This flow was embodied in cooperation with administrative bodies, engineers in every field as well as architects. Expertise in each sector was recognized and the efforts towards the same goals fulfill our commitment derived from the planning stage. The organic form and vibrant culture of linear flow of cultural chromosomes was realized through the reasonable and accurate construction method. A close cooperation with the resident organizations was also made to offer reasonable solutions of the program.

This efforts result in the better completeness of outer layer and program as well as space and structure. Once the military base, this rigid site was away from urban culture as well as citizens. Right here, we will provide a comfortable natural and cultural complex where the citizens' daily life is dissolved.


에코브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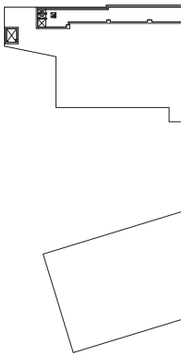
상과 거울연못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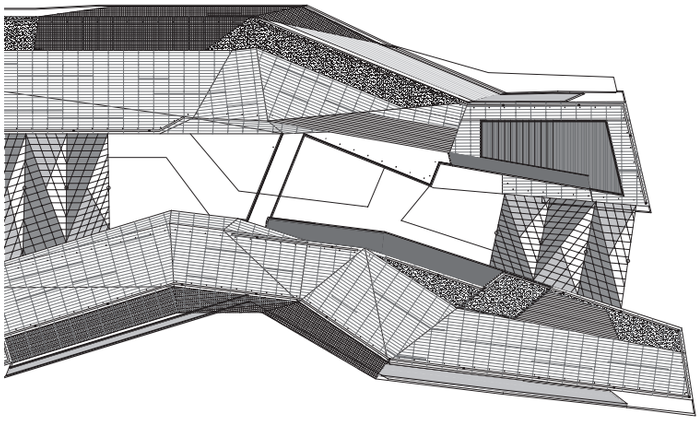
문화거리와 전면 광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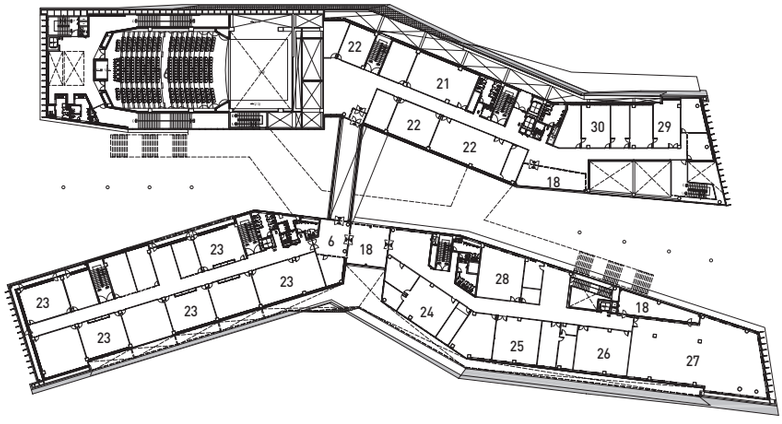
에코브리지 전경

에코브리지에서 바라본 감성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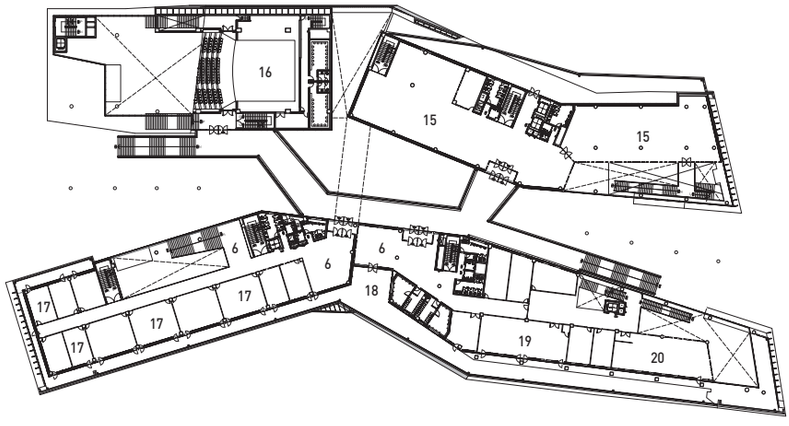


지붕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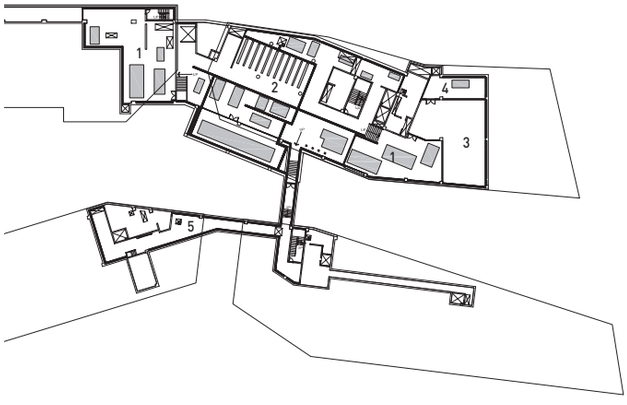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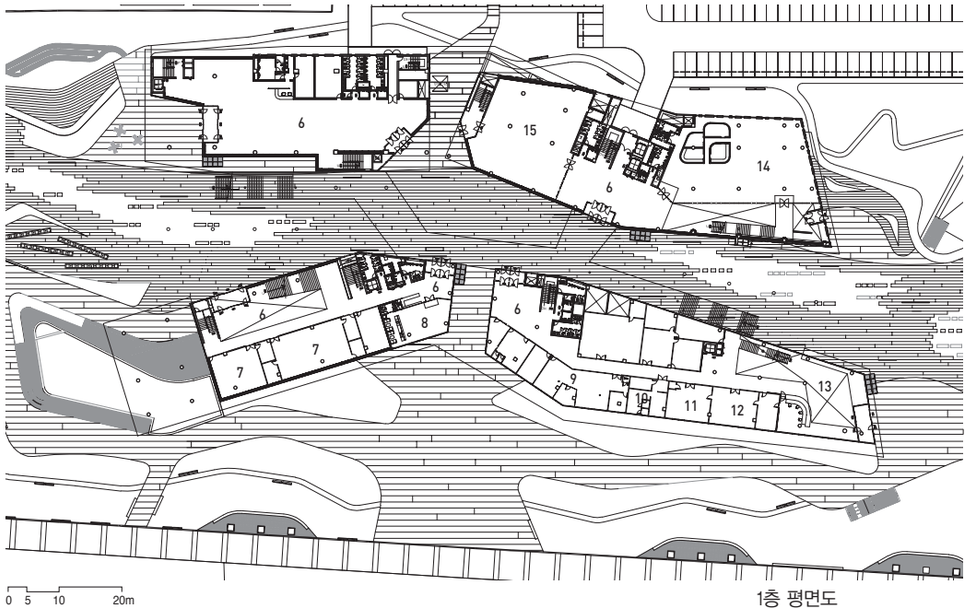
01_ 공조실
02_ 기계실
03_ 전기실
04_ 발전기실
05_ PIT
06_ 홀(휴게 및 대기공간)
07_ 종합 사무공간
08_ 아동코너/탁아시설
09_ 병리검사실
10_ 덴탈 클리닉
11_ 한방실
12_ 물리치료실
13_ 재증명대기실
14_ 어린이 열람실
15_ 개가열람실
16_ 공연장
17_ 학습실
18_ 외부데크
19_ 종합건강증진센터
20_ 건강증진과
21_ 시청각실
22_ 집회실
23_ 실습실
24_ 정신보건사무실
25_ 기후변화실
26_ 맞춤형 방문보건실
27_ 보건위생과
28_ 프로그램 교육실
29_ 귀중본 서고
30_ 도서정리 및 사무실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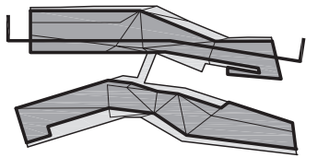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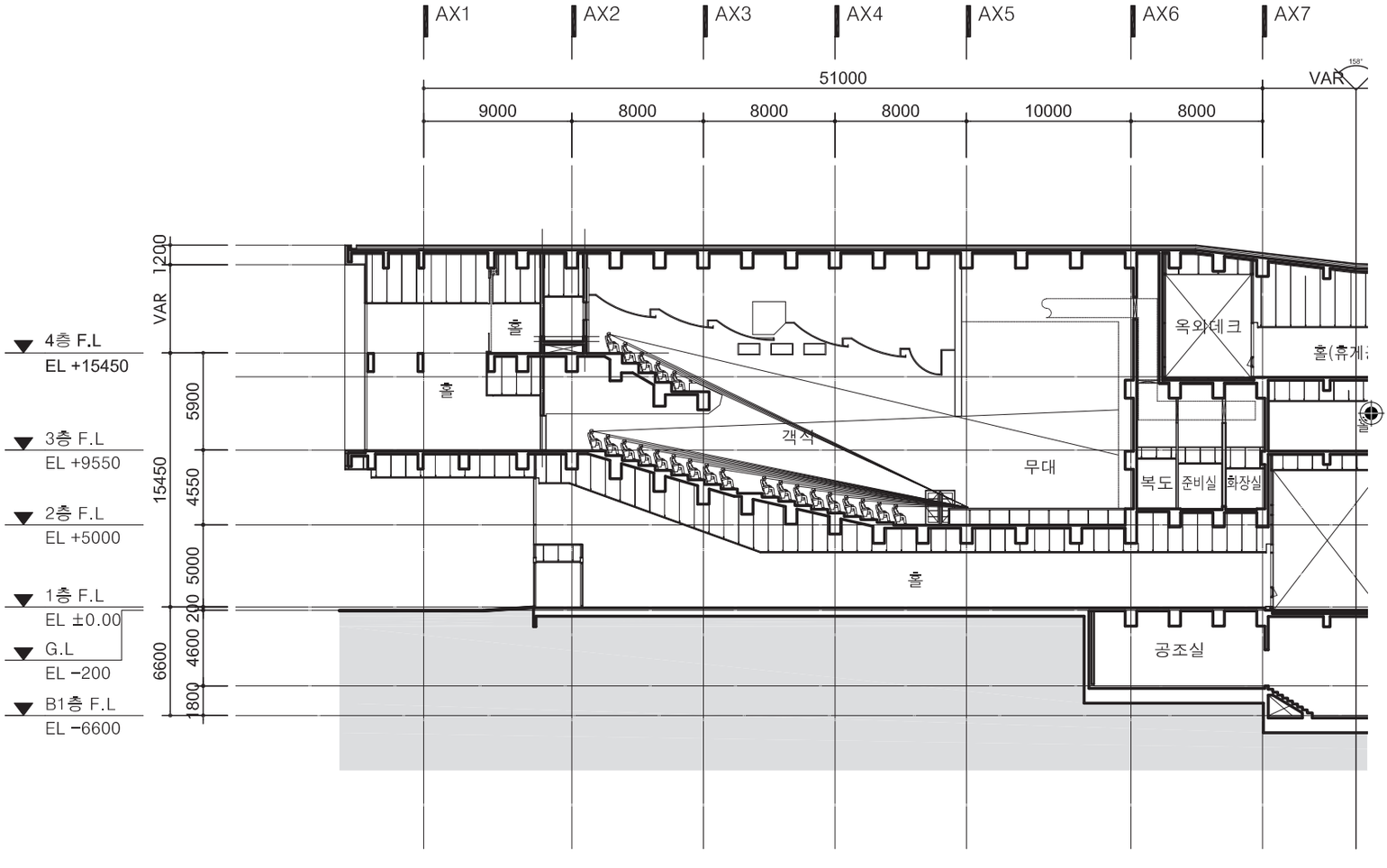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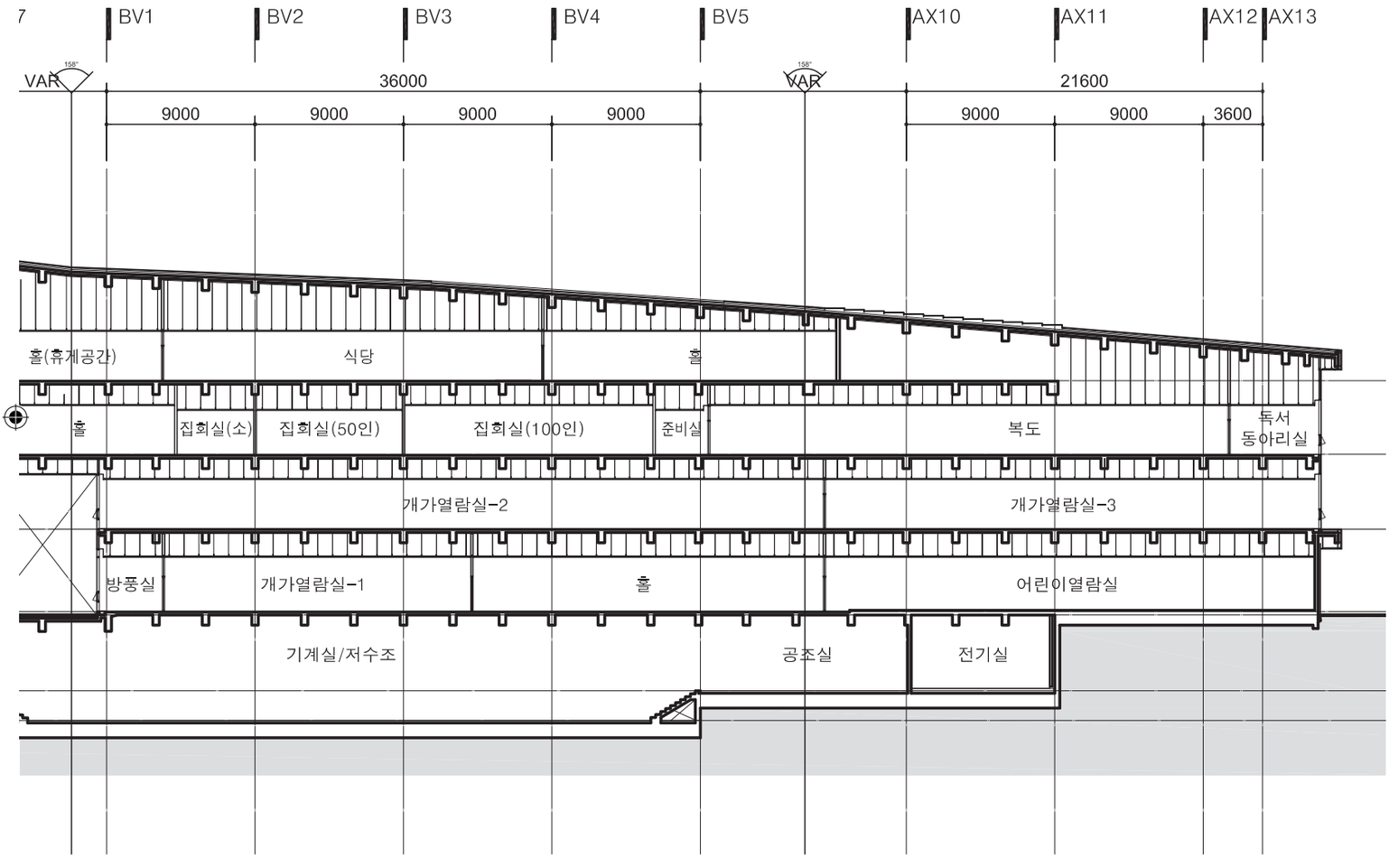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KEY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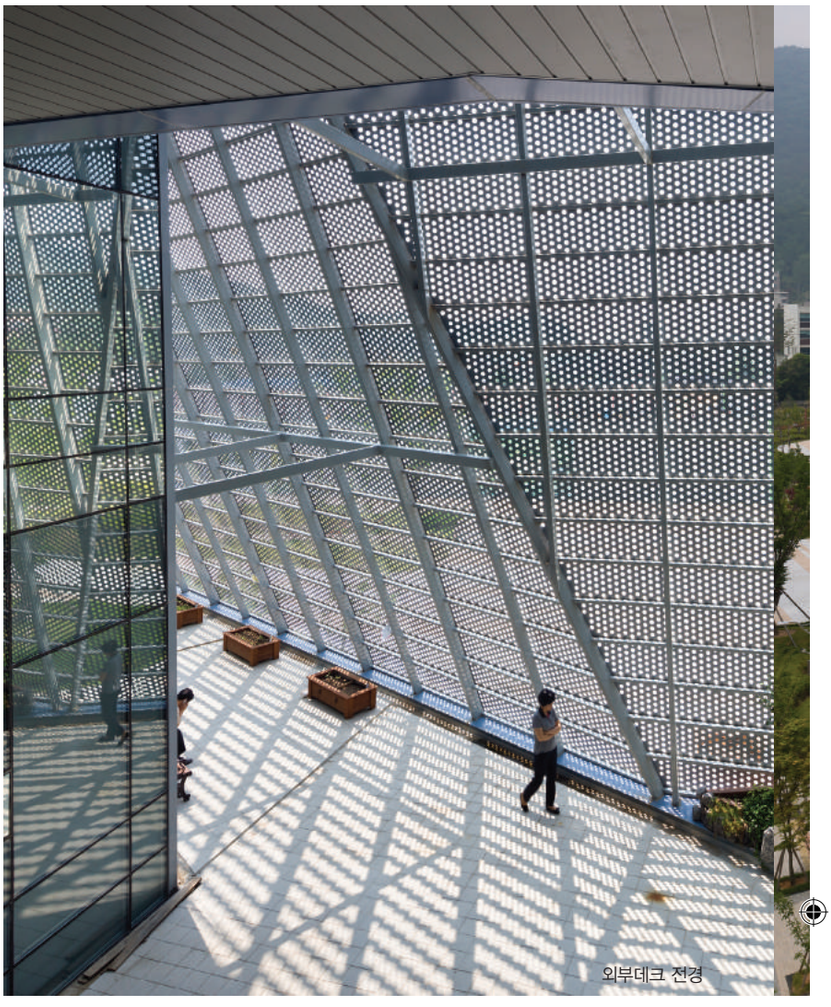



AX1
AX2
AX3
AX4
AX5
AX6
AX7
51000
9000
8000
8000
8000
10000
8000
VAR
158°
VAR 1200
15450
5900
4550
5000
200
4600
6600
1800
4층 F.L
EL +15450
3층 F.L
EL +9550
2층 F.L
EL +5000
1층 F.L
EL ±0.00
G.L
EL −200
B1층 F.L
EL −6600
홀
홀
객석
무대
옥와데크
복도
준비실
화장실
홀
공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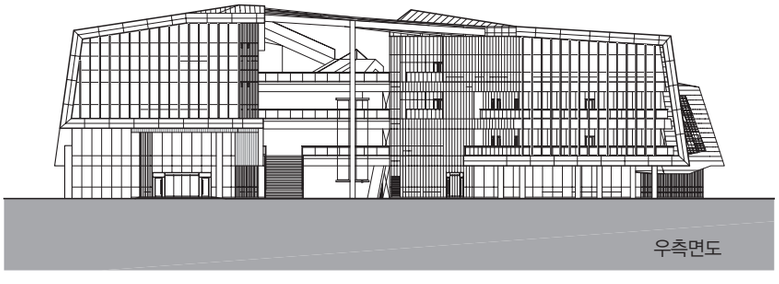


공연문화동 주단면도 (축적 :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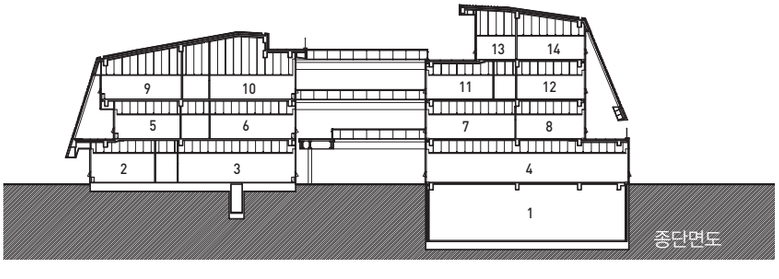
1층 통합사무공간


외부데크 전경

2층 연결데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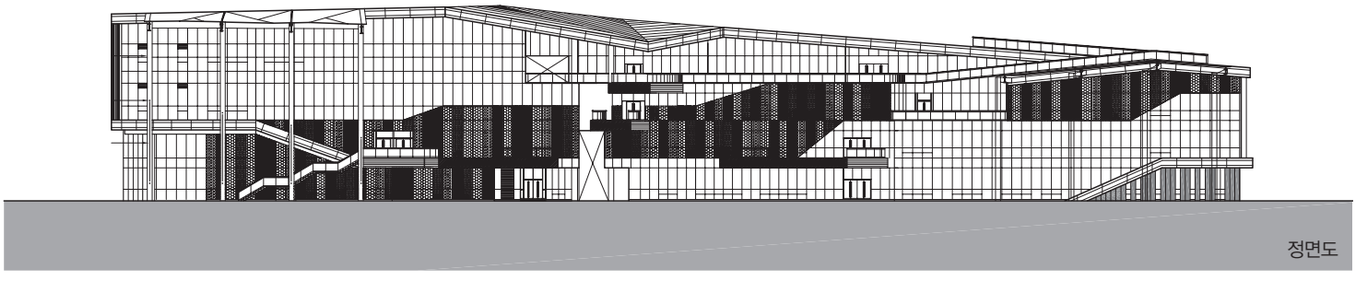

우측면도

01_ 기계실/저수조
02_ 병리검사실
03_ 임산부체조실
04_ 개가열람실
05_ 종합건강증진센터
06_ 소교육실
07_ 개가열람실
08_ 인쇄/복사실
09_ 기후변화실
10_ 프로그램교육실
11_ 집회실
12_ 시청각실
13_ 식당
14_ 주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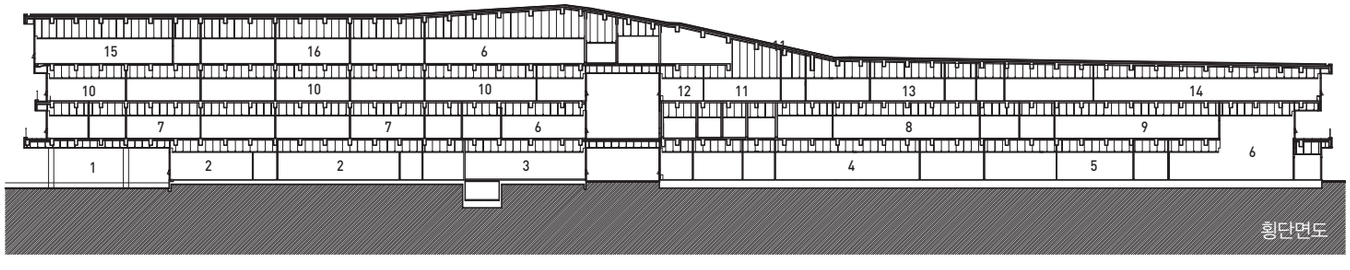
종단면도

남서측 조감 전경



정면도

01_ 거울연못
02_ 통합사무공간
03_ 아동코너/탁아시설
04_ 병리검사실
05_ 물리치료실
06_ 홀
07_ 학습실
08_ 종합건강증진센터
09_ 건강증진과
10_ 실습실
11_ 정신보건사무실
12_ 요법실
13_ 기후변화실
14_ 보건위생과
15_ 건강활동실
16_ 체육교실



횡단면도

치악풍경(雉岳風景)
CHIAK SCENE

건축주 | 개인

설계자 | 박유진_KIRA | (주)건축사사무소 시간

- 설계팀 : 김일영, 김지영, 이용진, 권은주, 권혁민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한몽룡
  - 전기 · 통신설비분야(소방포함) : (주)공간이엔지
  - 기계설비분야(소방포함) : (주)삼영엠이씨

대지위치 |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500-31
대지면적(Site Area) | 782㎡
건축면적(Building Area) | 207.91㎡
연면적(Gross Floor Area) | 342.25㎡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26.58%
용적률(Floor Area Ratio) | 36.15%
규모(Building Scope) | B1 - 2F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주요마감재 | 노출콘크리트, 치장목재, 티타늄아연판
설계기간(기획/계획/실시) | 2009. 05 ~ 2009. 10
공사기간 | 2010. 01 ~ 2010. 07
사진(Photographer) | Jin, Hyo-suk

Client | Private

Architect | Park, You-jin

Project Team | Kim, Il-yeong / Kim,Ji-yeon / Lee, Yong-jin
Kwon, Eun-ju / Kwon, Hyeok-min

Location | 500-31, Haenggu-dong, Wonju-si, Gangwon-do, Korea

Structure | R.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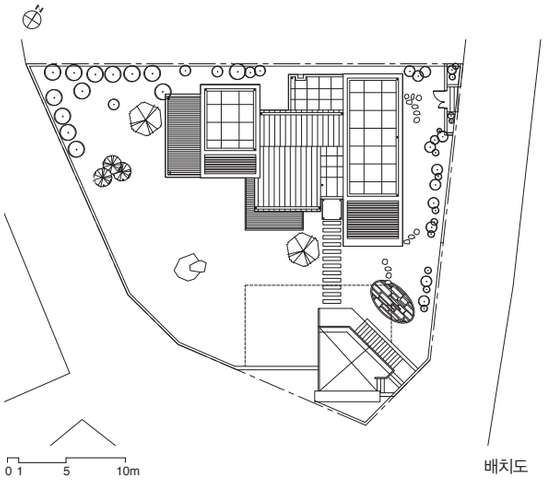
Finishing Materials | Finish Exposed concrete & zinc pannel
Structural Engineer | Han, Mong-ryong

HVAC Engineer | Space eng

Electrical Engineer | Samyoung M&E

Design period | 2009. 05 ~ 2009. 10

Construction period | 2010. 01 ~ 2010. 07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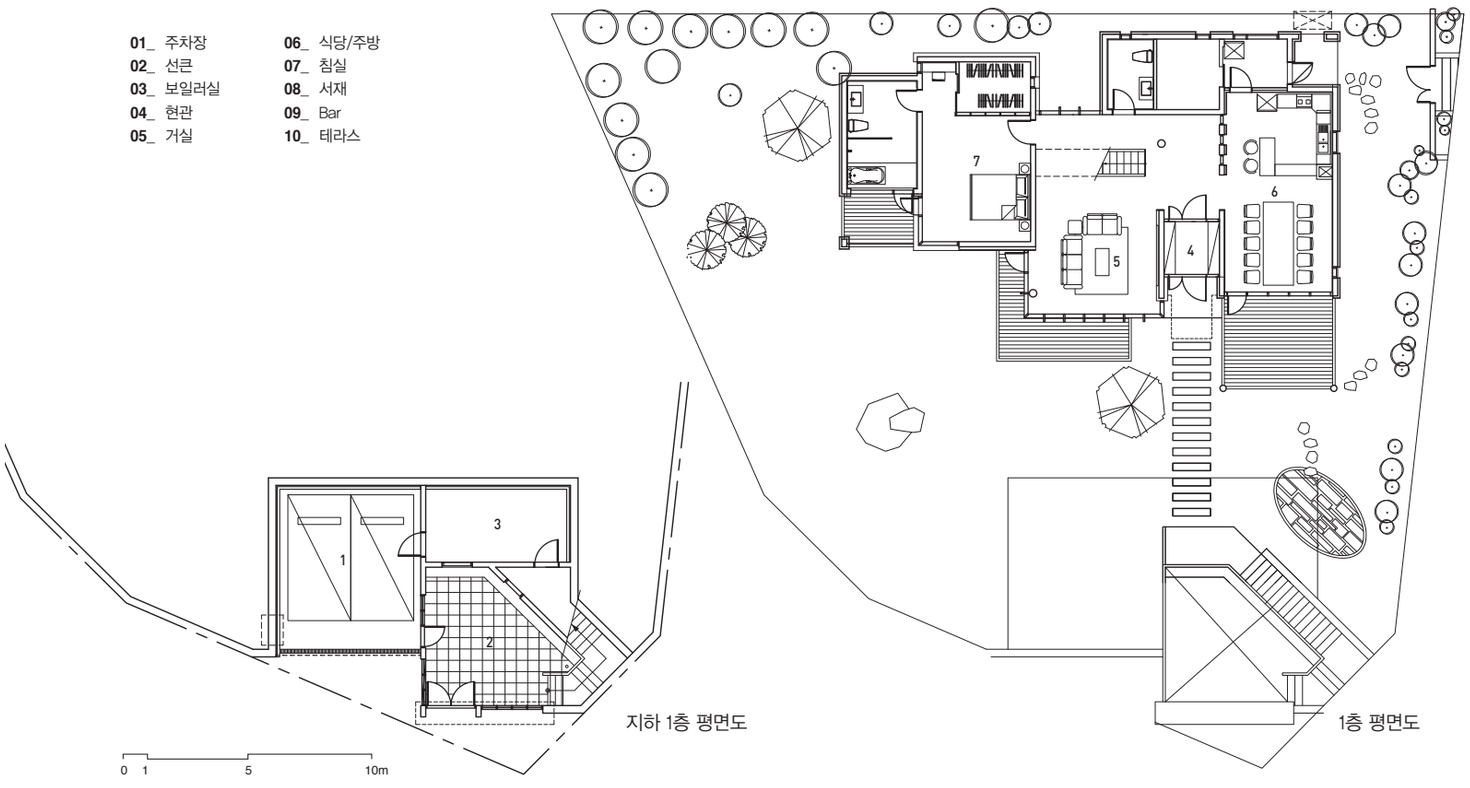
복도에서 본 테라스와 치악산

거실에서 본 치악산

정원에서 본 전경

건물우측전경

01_ 주차장
02_ 선큰
03_ 보일러실
04_ 현관
05_ 거실
06_ 식당/주방
07_ 침실
08_ 서재
09_ Bar
10_ 테라스



지하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층고 높은 거실은 병풍처럼 남북으로 길게 늘어선 치악산의 산세를 그대로 품어서, 풍경은 창의 프레임을 통해 계절의 사진이 되고, 그림이 된다.

치악산의 배경이 원경(遠景)이라면, 주인이 올려놓은 나무 한 그루, 의자 하나, 작은 샹들리에의 빛은 이 집에 살고 있는 이의 근경(近景)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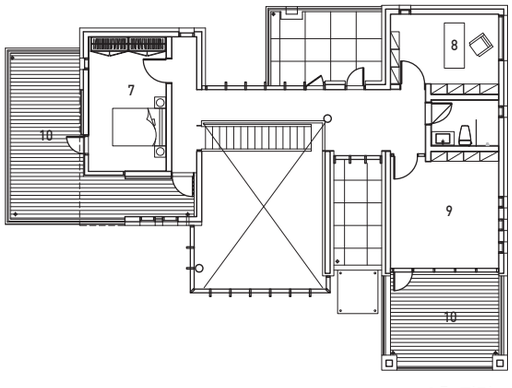
마당의 잔디와 소박한 정원, 키작은 다양한 나무들은 치악의 풍경을 감상하기 위한 주인장의 세심한 배려이다.
단순한 선으로 엮여 있는 이 주택은 대지의 경사를 이용하여 주도로에서의 차량진입을 해결하고, 대문을 폐쇄적으로 닫기보다는 투명유리를 사용하여 바깥과 소통한다.

대문을 통해 열려진 시각적 개방감은 계단을 올라 앞마당으로, 다시 거실을 통해 뒷마당으로 이어져, 자칫 단절될 수 있었던 각각의 공간들은 서로 숨쉬며 방문객을 맞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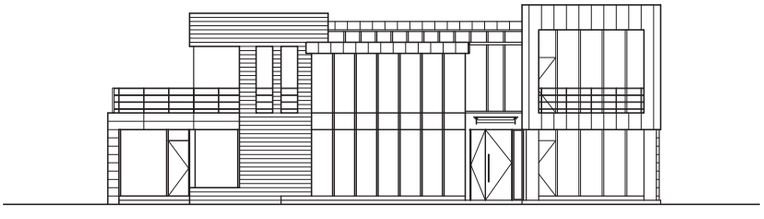
1층은 거실을 중심으로 주침실과 데크가 있는 식당으로, 2층은 독립된 테라스가 있는 손님침실과 서재로 이어지며, 이 두 개의 층은 거실의 액세서리인 계단을 통해 연결된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실내와 테라스로 배치한 홈바에서 부부는 조용하며 한가로운 일상을 즐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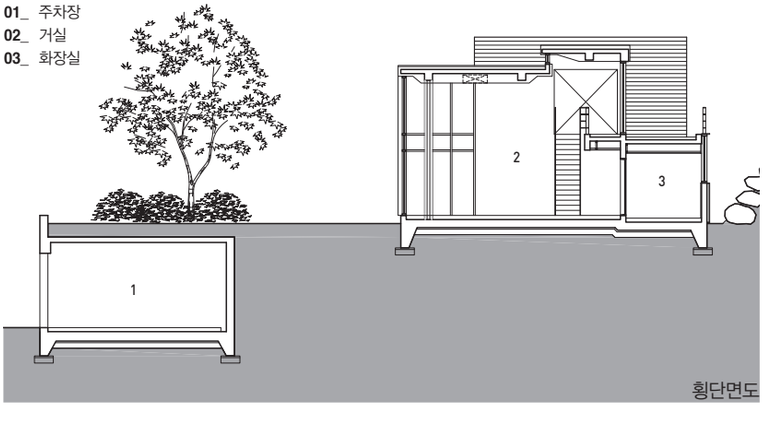
테라스에서 본 치악산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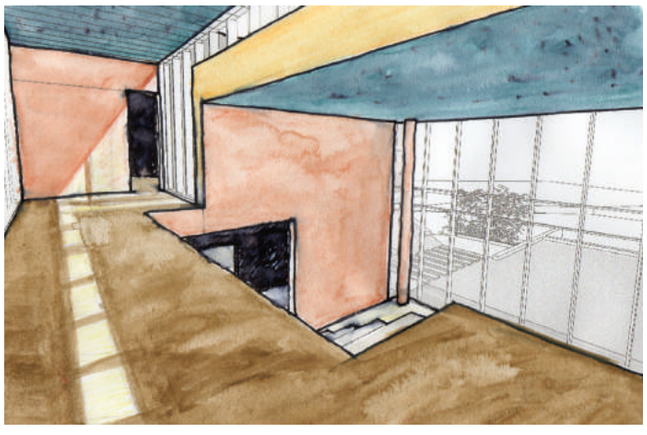


정면도



횡단면도

2층 통로



거실계단

2층 복도

판교 U-HAUS 642-8

U-HAUS 642-8

건축주 | 장래혁, 김미선

설계자 | 정승이_KIRA | 유한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정지한, 양용석, 고하동

감리자 | 유한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U-HAUS

대지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642-8

대지면적(Site Area) | 234.2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15.24㎡

연면적(Gross Floor Area) | 208.64㎡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49.21%

용적률(Floor Area Ratio) | 84.63%

규모(Building Scope) | 2F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요마감재 | 실외 _ 석재, 벽돌, 징크 / 실내 _ 대리석, 천연페인트

설계기간 | 2010. 04. 29 ~ 2010. 08. 01

공사기간 | 2010. 08. 02 ~ 2011. 02. 17

Client | Chang Rae-hyeok ,Kim Mi-sun

Architect | Chung Seung-Yi

Project Team | Jung Ji-han / Yaung Yong-seok / Ko Ha-dong

General Constractor | U-HA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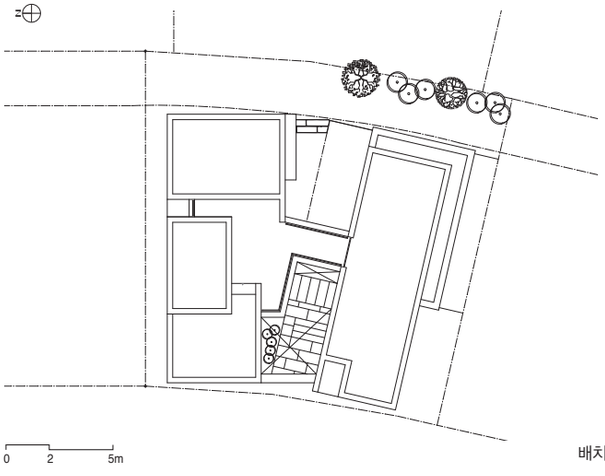
Location | Pangyo-dong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Finishing Materials | Building stone, Brick, and ZIP
Marble and Natural pa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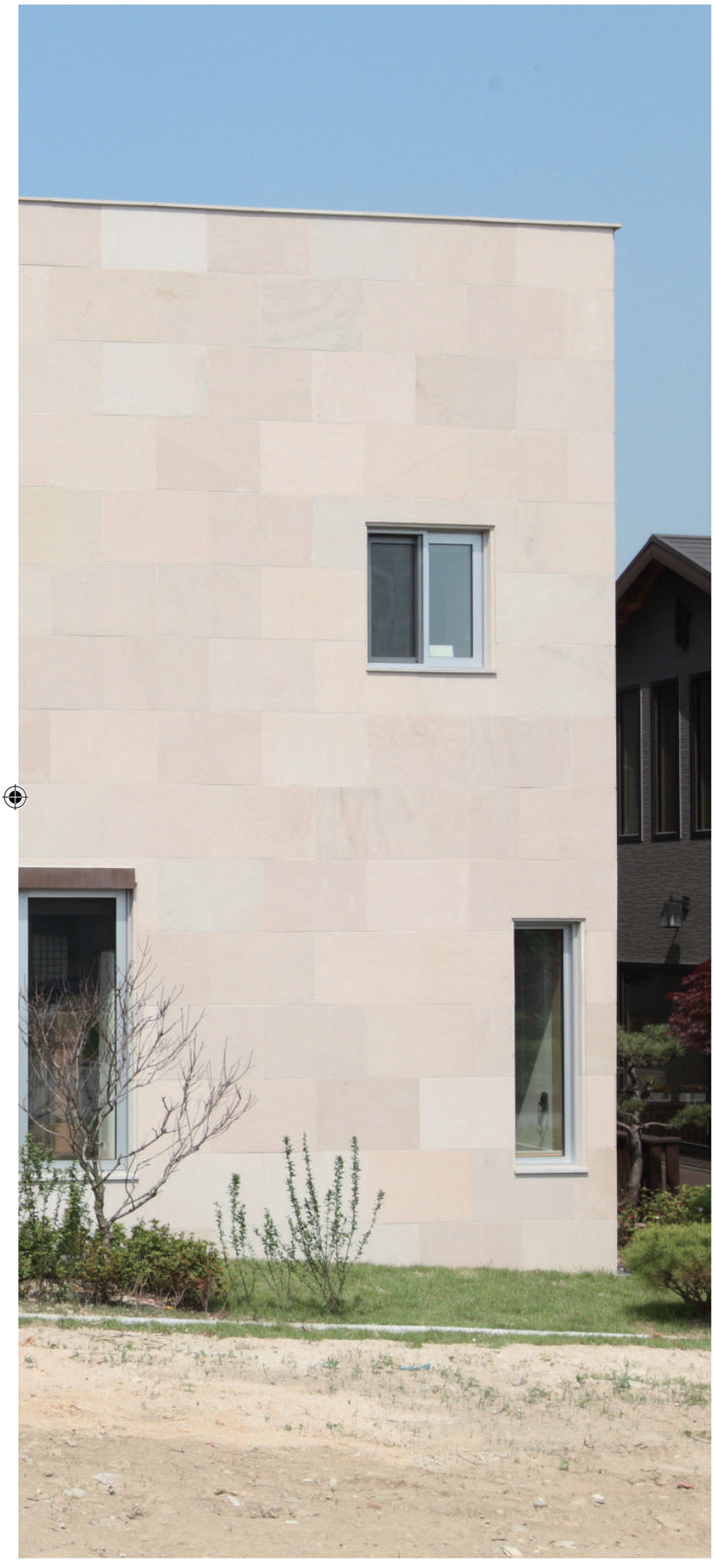
Structure | R.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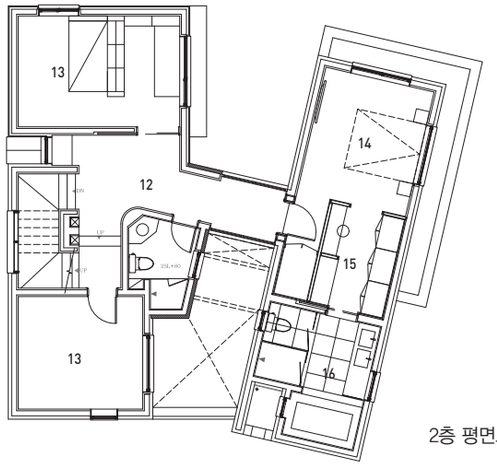
Design period | 2010. 04. 29 ~ 2010. 08. 01

Construction period | 2010. 08. 02 ~ 2011. 02.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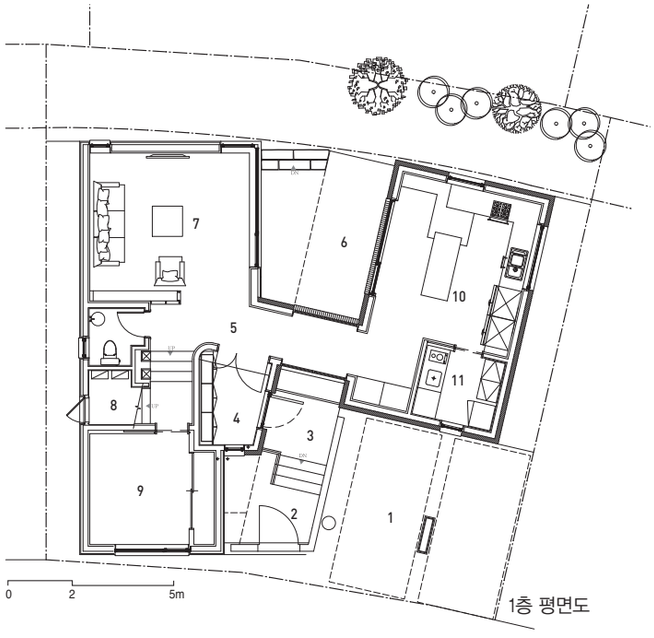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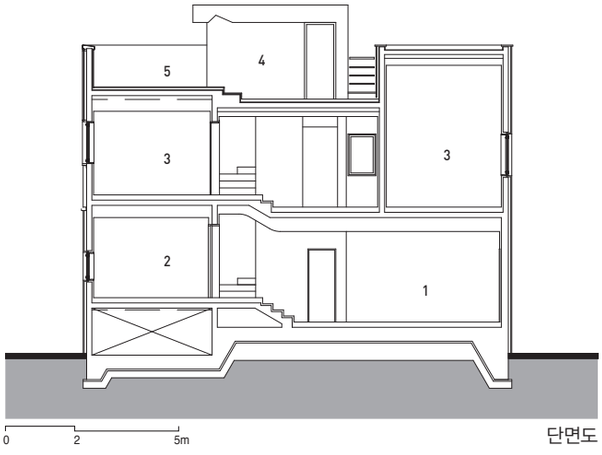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01_ 주차장 **02_** 진입마당 **03_** RORCH **04_** 현관 **05_** 복도 **06_** 안마당 **07_** 거실 **08_** 보일러실 **09_** 한실 **10_** 주방 및 식당 **11_** 다용도실 **12_** 홀 **13_** 자녀방 **14_** 안방 **15_** 드레스룸 **16_** 파우더



단면도

01_ 거실 **02_** 한실 **03_** 자녀방 **04_** 하늘마루 **05_** 빛 정원

착공

건축주를 만날 시점에 판교는 건축 붐이 일어난 시점이었고, 상가 주택지의 활성화에 비해 단독 주택지는 서서히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블록단위로 띄엄 띄엄 공사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이곳에 새로운 단독 주택지가 형성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추운 겨울과 함께 계획의 방향이 결정되었으나 주택 시장의 침체로 건축주의 아파트가 매매되지 않아 봄에 착공하려고 하였던 착공이 그해 10월에 착공하게 되어 설계도 공사도 추운겨울과 함께 한 프로젝트가 되었다.

판교 단독 주택지에서 설계를 한다는 것은

판교 단독 주택을 설계 하다보면 미래주택의 방향성을 어렴풋하게 알게 된다. 요즘 건축주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주택에서 살기를 원하는지를 알게 된다. 판교 단독 주택지에는 주민 동호회 카페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이곳에 들어가서 그동안 올라온 내용과 오갔던 내용을 보다 보면 몇 달후에는 웬만한 건축을 아는 사람을 능가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강력한 정보로 무장한 건축주 몇 분을 만나다보면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인터넷의 위력을 실감하게 된다. 건축주는 몇 년 동안 주변에서 일어나는 건축의 과정을 보아 왔으며 기존에 건축하였던 건축주를 직접 만나 건축과정에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건설 회사를 만나보고, 본인의 대지에 대한 설계를 날마다 생각하며 건축사사무소를 몇 군데 만나는 것이 기본상식으로 되어 있으니 설계에서 건축주의 생각을 능가하며 계획을 완성해 간다라는 것이 판교 단독 주택지에서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기도 하다.

배치계획

판교주택지는 대지내에 2.5m 공개공지를 지정하고 있고, 건축지정선이 있어 그 지정선에 건물을 2/3 이상 접해야 하는 법이 있다. 이 대지는 공개공지가 건물의 배면에 남향이 위치하고 있으며, 부채꼴로 된 필지라 공개공지 공간을 해결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공개공지의 요소가 계획을 억누르는 요소로 작용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계획을 풀어 나가는 즐거운 요소가 되었다.
최종적으로 남향의 햇볕을 확보하며 전면 도로의 개방성도 차단하여야 하는 것과 이웃 건물과의 관계성도 고려하여 건물을 두개의 매스로 계획하게 되었다.

평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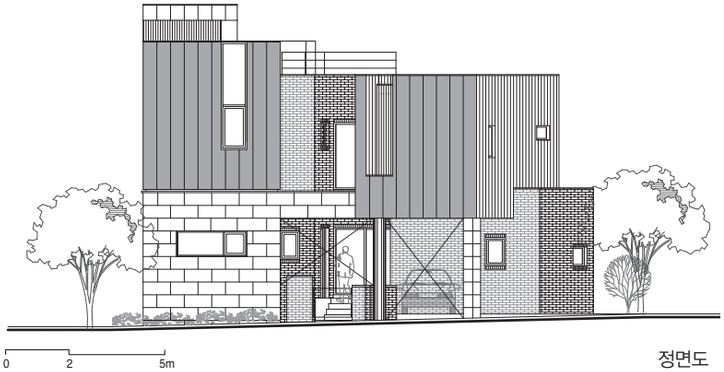
1층에는 거실 주방 식당 등 공용 공간으로 배치하였으며 스킵플로어 형태로 설계되어 중간층에 한실 게스트룸과 취미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층에는 부부공간과 자녀의 공간으로 배치되었으며 중간 브리지로 인하여 전체 집을 전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옥상공간은 녹지로 만들어 가족이 함께하는 야외공간이 되어있다.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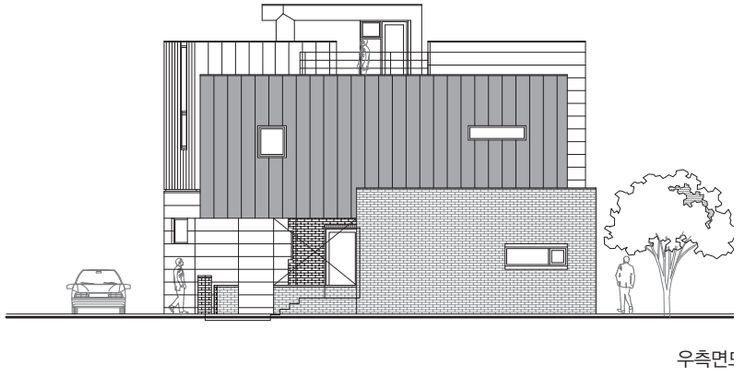
외장재료는 석재, 벽돌, 알루미늄 패널을 사용하여 모던과 고풍이 어우러진 세련된 입면을 만들고자 하였다. 두개의 매스 사이로 보이는 공간이 이 집의 입면 요소이며 큰 축을 형성하여 평면의 결정이 입면을 결정하게 한다.
몇 번의 작품을 건축사지에 기고하였으나, 판교 단독 주택지로는 처음 건축사지에 기고한다. 맨 처음 기고할 때에는 세상에 존재를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지금은 이러한 마음으로 기고를 하게 된다. 건축사는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에너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건축의 환경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크게 느끼고 있는 지금 미래에 대한 대처 방법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이다.

스타 건축사도 있지만, 지금의 건축은 진정으로 건축을 사랑하며 노력하는 사람들의 장인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정한 건축을 추구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건축인들이 요즘 나에게는 자주 눈에 보인다.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반갑고 고맙고 감사하게 된다. 지금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기다리며 나아가야 할 때이다. 먼 훗날 기다림의 미학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건축의 미래가 되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판교 건축주 분들도 몇 년을 기다리며 건축을 준비하고 있듯이, 우리는 몇 년을 기다리며 준비한 건축주의 고심을 한방에 없애 주는 무엇인가가 지금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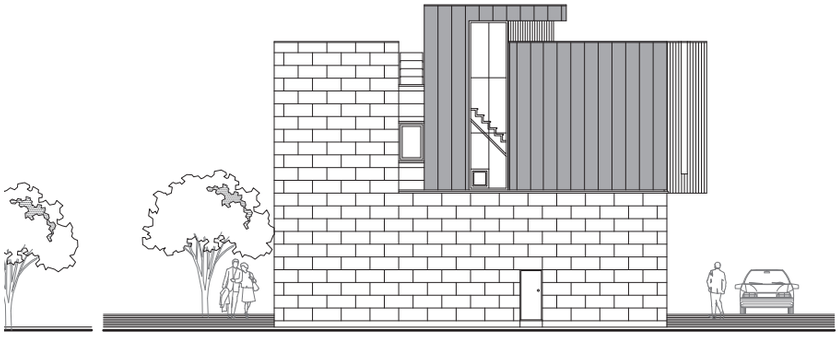
건축주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판교주택은 기다림의 건축이었고 즐거움의 건축이였다.



정면도



우측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서부침례교회
SEOBU BAPTIST CHURCH

건축주 | 서부침례교회

설계자 | 이용우_KIRA | 칸.도시 건축사사무소

- 설계팀 : 최도영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베이스구조
  - 전기 · 통신설비분야(소방포함) : 신한전설주식회사
  - 기계설비분야(소방포함) : 주원엔지니어링

감리자 | 칸.도시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주)씨스페이스건설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152

주요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교회)

대지면적(Site Area) | 499.6㎡

건축면적(Building Area) | 298.81㎡

연면적(Gross Floor Area) | 1,538.37㎡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9.81%

용적률(Floor Area Ratio) | 199.87%

규모(Building Scope) | B2 – 6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_ 티타늄 징크, 노출콘크리트, 방부목
내부마감_ 노출콘크리트, 화강석(바닥), 석고보드위 비닐페인트뿜칠,
노출콘크리트(벽), 경량철골천정틀위 암면흡음천정판(천정)

공사기간 | 2010. 07 ~ 2011. 08

Client | Seobu Baptist Church

Architect | Lee, Yong-woo

Project team | Choi, Do-yeong

General Constractor | C-SPACE C&E CO., LTD

Location | 152, Jingwan-dong, Eunpyeong-gu, Seoul,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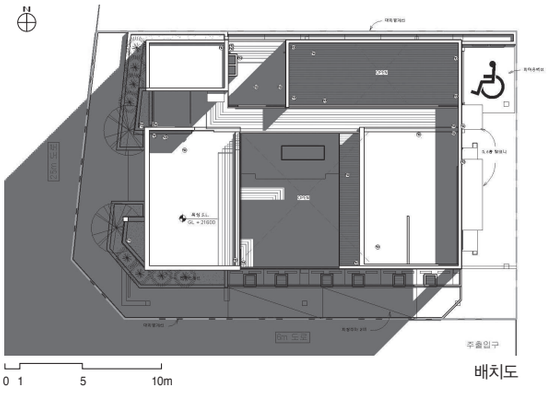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BASE STRUCTURAL CONSULTA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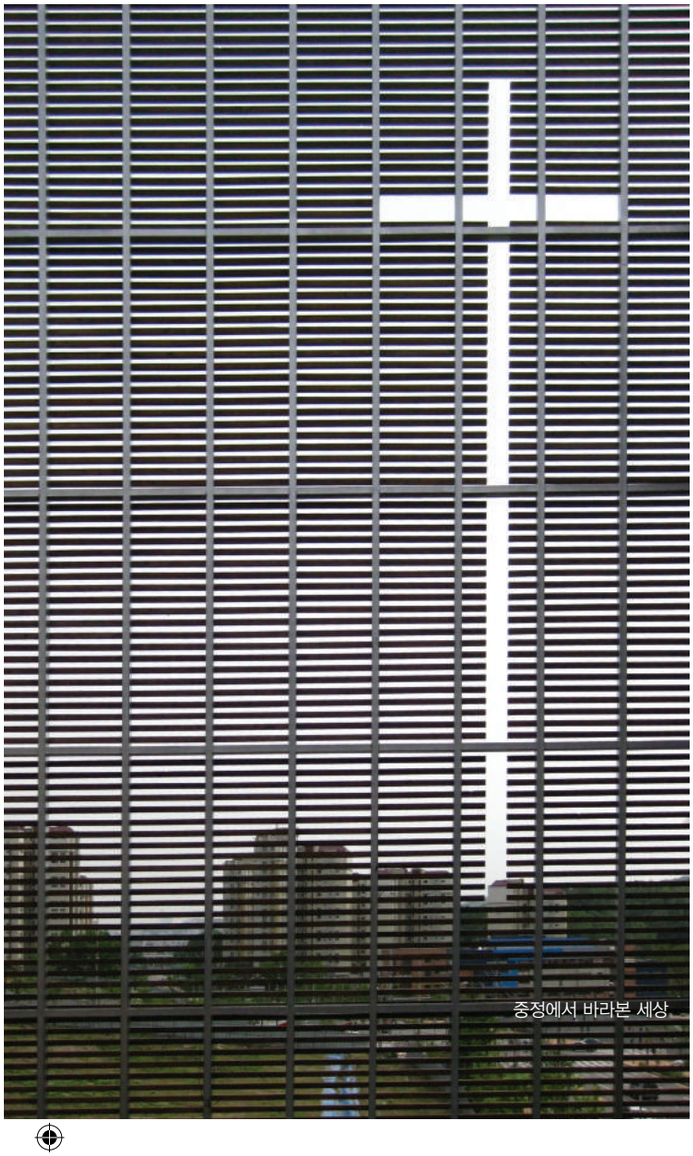
HVAC Engineer | Shinhan elec.

Electrical Engineer | Juwon eng.

Construction period | 2010. 07 ~ 2011. 08



배치도



중정에서 바라본 세상.

전경–정면우측

우측에서 바라본 모습

은평뉴타운 외곽의 산기슭에 위치한 필지로 북측과 동서측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 조용한 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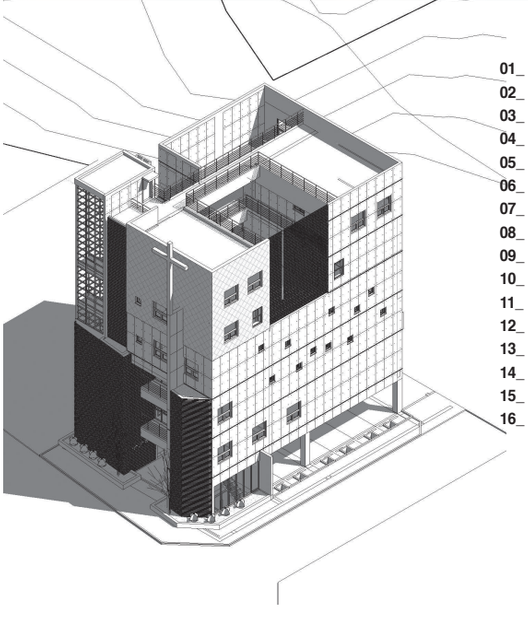
건축주는 이곳에 아담한 예배당을 짓기를 원했다. 과장되지 않고 소박하면서도 정감이 넘치는 예배당. 이는 내가 평소에 그리던 예배당이다.

200여 명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과 부속시설(교육실/식당/사무실 등) 특히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카페와 어린이도서관 그리고 사택들. 이것이 이 건물의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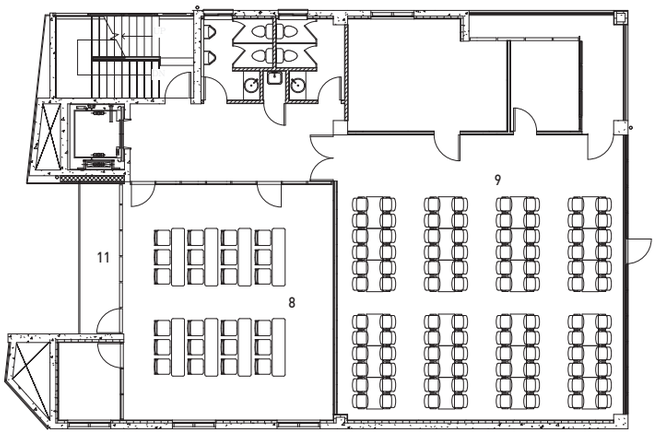
그래서 지하에는 카페와 어린이 도서관, 1층은 주차장, 2층은 식당, 3층은 예배당, 4층은 사무실, 5층과 6층은 어린이를 위한 집이다. 5층과 6층은 주변에 마당을 두어 옥상공간에 변화를 주었다.

주변은 다행히도 작은 공원과 동산이 있어 신도시에서는 드물게 전원의 풍경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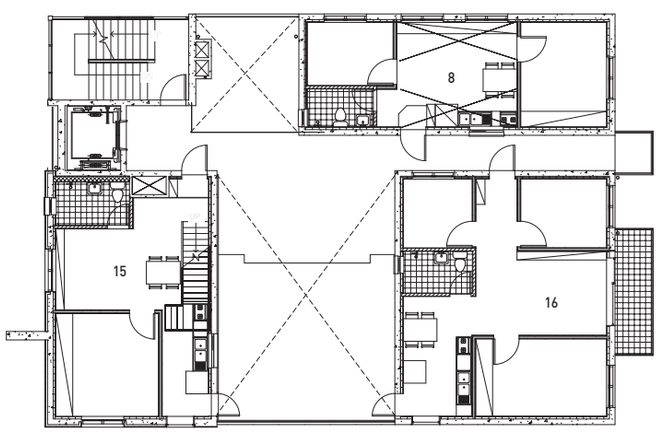
그래서 남동측의 동산에 무성한 숲, 그 속에 교회를 그리게 된다. 예배당과 사무실 등의 개구부는 숲을 향하여 열려있다. 도시와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회중들이 숲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느낌이 들고 지나가던 이들이 들어와 보고싶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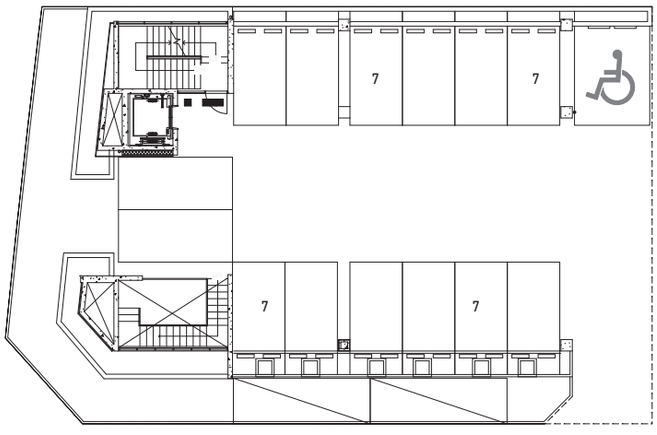
01_ 홀
02_ 성경교실
03_ 소예배실
04_ 교사실
05_ 사무실
06_ 친교실
07_ 주차장
08_ 주일학교
09_ 식당
10_ 발코니
11_ 대예배당
12_ 모자실
13_ 회의실
14_ 복양실
15_ 유치부
16_ 유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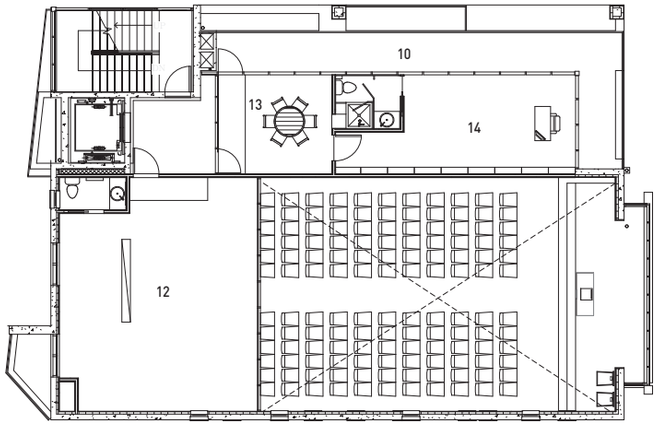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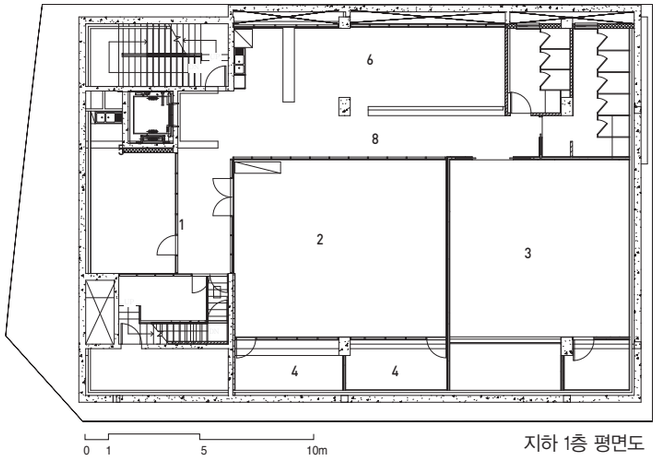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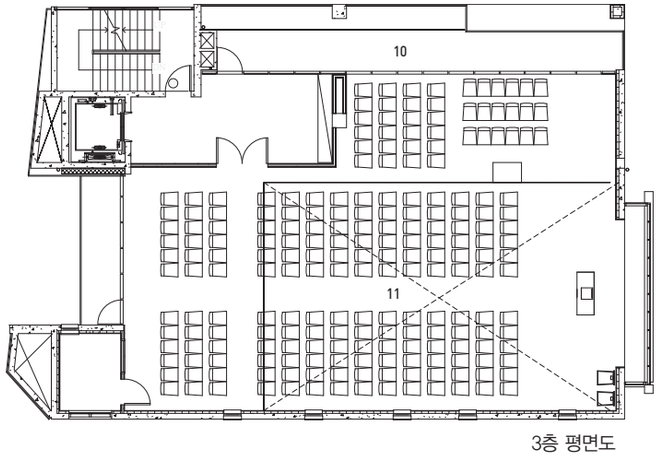
1층 평면도



4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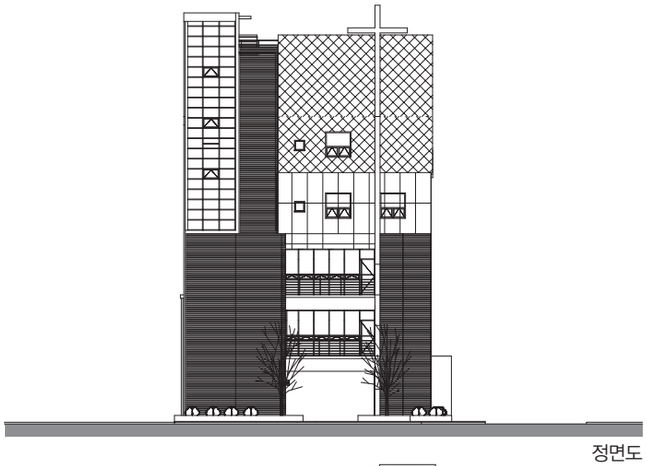
3층 평면도

예배당 내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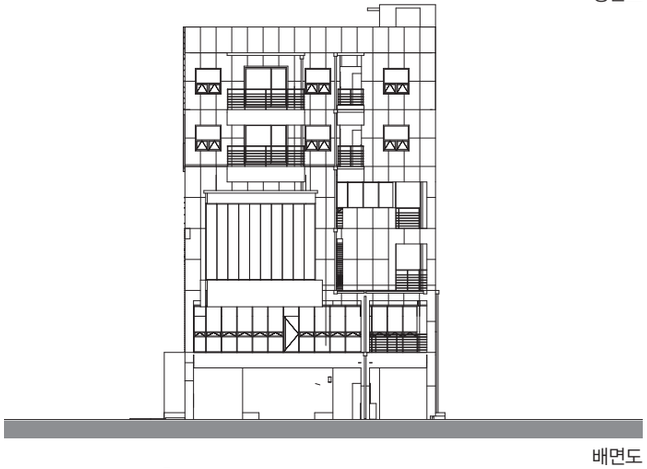
예배당 내부 2

옥상 마당

예배당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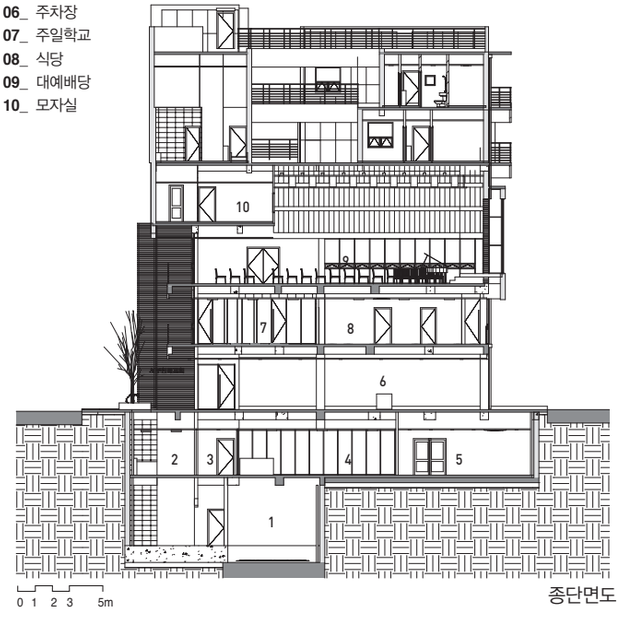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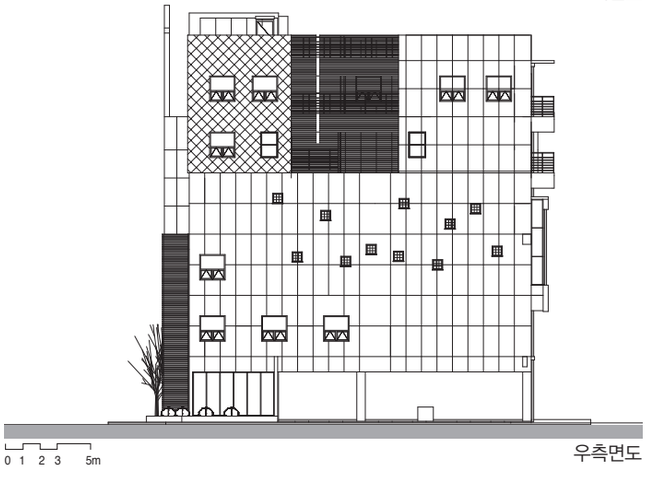


배면도

01_ 펌프실
02_ 사무실
03_ 홀
04_ 성경교실
05_ 소예배실
06_ 주차장
07_ 주일학교
08_ 식당
09_ 대예배당
10_ 모자실



종단면도



우측면도

도서관

광교신도시 문화복지시설 _당선작

GWANGGYO CULTURE & WELFARE FACILITIES (LIBRARY, WELFARE CENTER)

발주자 : 경기도시공사

설계자 : 조영돈, KIRA / **목경웅** | (주)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이경희, KIRA | (주)다인그룹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조강희, 서성훈, 김지희, 김효경, 고종배(유선)
이태종, 최현준, 장선혜, 이주원 (다인)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동양구조 E&R
- 전기 · 통신 설비분야 : (주)유원이앤씨
- 기계설비분야 : (주)나비환경컨설턴트
- 소방설비 : (주)대명기술단

대지위치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문1부지(도서관)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문3부지(사회복지관)
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문화복지시설(도서관, 사회복지관)
대지면적	3,063㎡ (도서관) / 1,818㎡ (사회복지관)
건축면적	1,513㎡ (도서관) / 909㎡ (사회복지관)
연 면 적	8,348㎡ (도서관) / 4,340㎡ (사회복지관)
건 폐 율	49.38% (도서관) / 49.97% (사회복지관)
용 적 률	192.17% (도서관) / 166.20% (사회복지관)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규 모	지하 1층, 5층 (도서관, 사회복지관)

세상을 보는 아름다운 시선 – 프레임[FRAME:창]

창으로 풍경이 들어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창이 풍경을 오려낸다는 말이다. 프레임으로 에워싸는 풍경은 실제적 거리가 축소되는 효과가 생긴다. 바깥의 풍경을 새롭게 바라보고, 연속되는 창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조금씩 달라지는 풍경은 마치 영화 필름처럼 생동감을 더해준다. 게다가, 창은 풍경의 소통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 외에도 외부의 풍경을 내부로 들여 사람과 건축, 자연이 하나가 되게 하기도 한다.

도서관 – 지혜의 창 : 정보와 지식의 체험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의 창을 키우다.

Natural Frame_자연과 하나되는 창 / 사람과 자연의 흐름이 하나로 모여 관계를 맺고, 일상생활과 문화의 중심 공간이 되는 자연친화적 도서관

Wisdom Frame_지식이 샘솟는 창 / 지식습득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문화, 여가, 휴게 등의 다양한 교류와 이벤트가 넘치는 문화충전소로서의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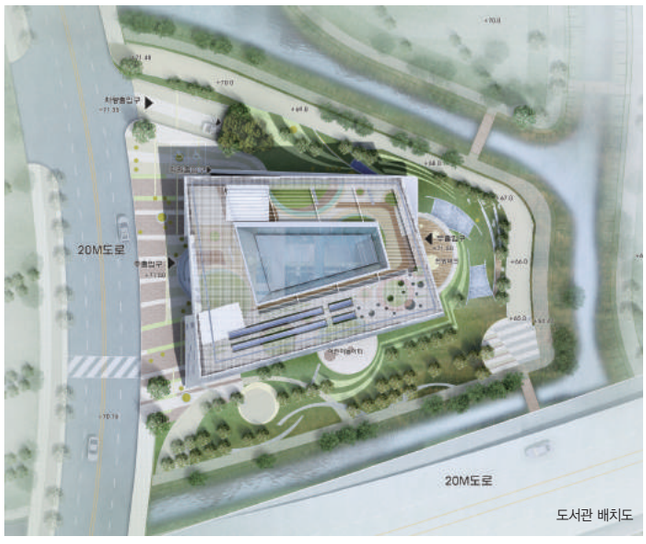
Open Frame_열린 정보공유의 창 / 도서관의 기능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및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커뮤니티, 평생학습시설로의 도서관

사회복지관 – 나눔의 창 / 이웃과 소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나눔'이다.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 나눔과 소통의 시작 사회복지관

Eco Frame_자연을 담다 / 주변의 자연과 하나되는 감성공간으로써 친환경적인 사회복지관

Human Frame_이웃과 소통하다 / 지역주민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공간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 공동체

Culture Frame_문화를 나누다 / 나눔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담당하는 교류와 융합의 중심 커뮤니티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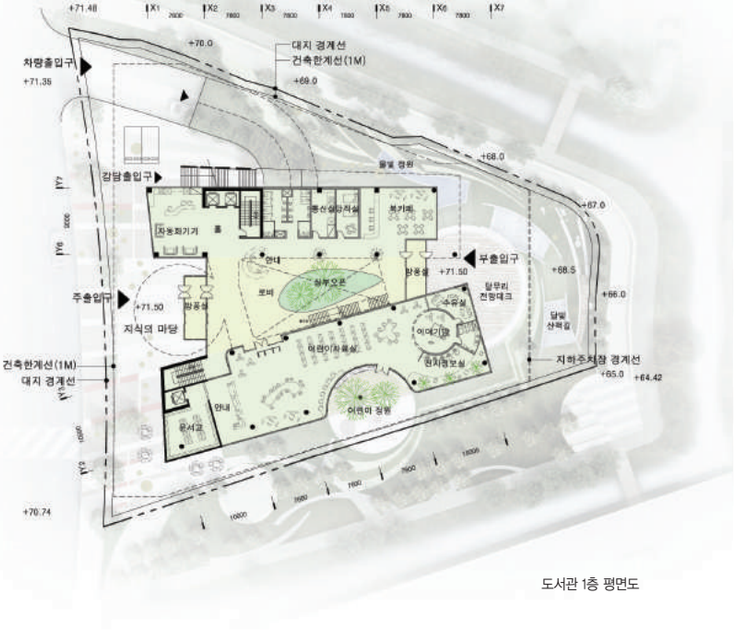


도서관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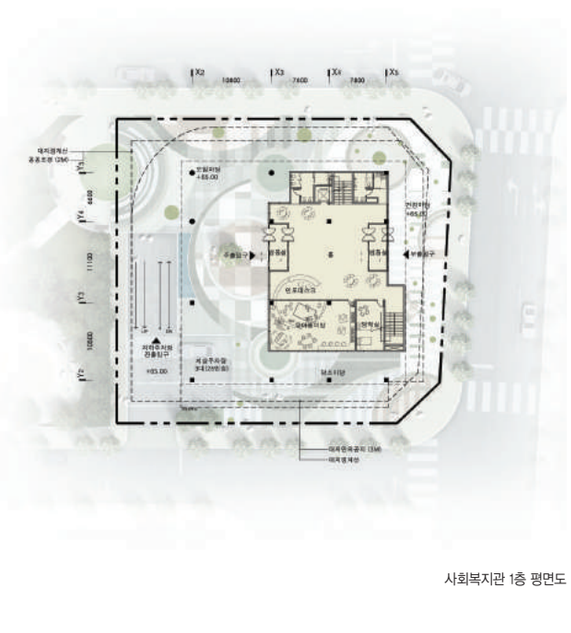
사회복지관 배치도

도서관 배면

사회복지관 조감도



도서관 1층 평면도


사회복지관 1층 평면도

도서관

광교신도시 문화복지시설 _우수작

GWANGGYO CULTURE & WELFARE FACILITIES (LIBRARY, WELFARE CENTER)

발주자 : 경기도시공사

설계자 : 은종신, KIRA | ㈜이가 건축사사무소
조도연, KIRA | ㈜디엔비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임태희, 김제형, 이대천, 유명순, 박훈
김수진, 강동한, 최가영(이가)
이경환, 허환, 이강영, 이정훈, 유영관
서원진 (디엔비)

대지위치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문1부지(도서관)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문3부지(사회복지관)
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문화복지시설(도서관, 사회복지관)
대지면적	3,063㎡ (도서관) / 1,818㎡ (사회복지관)
건축면적	1,513.12㎡ (도서관) / 901.87㎡ (사회복지관)
연 면 적	8,608.21㎡ (도서관) / 4,359.80㎡ (사회복지관)
건 폐 율	49.40% (도서관) / 49.61% (사회복지관)
용 적 률	199.06% (도서관) / 153.76% (사회복지관)
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 철근콘크리트
규 모	지하 1층, 5층 (도서관, 사회복지관)

자연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는 도서관 – Green Tree Library
시원한 바람이 부는 언덕,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며 읽는 책 한 권의 여유

광교신도시의 도서관은 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지혜의 숲이다.
하천, 산책로, 근린공원과 이어지는 풍부한 자연의 흐름을 따라 지식과 지혜가 숨겨져 있는 푸른 숲으로 들어가면 진입마당, 커뮤티니 마당, 수변산책로, 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도심 속의 푸른 휴식마당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수직, 수평의 다양한 동선의 흐름을 통해 건물 내외부를 연계하여 문화, 교육, 자연을 연결하는 푸른 커뮤니티 공간을 따라 다채로운 경험의 오솔길이 열린다. 오솔길을 따라 발산되는 신선하고 활기찬 에너지는 다양한 동선의 흐름을 만들며 지역도서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따사로운 햇살을 품은 한 그루의 나무를 모티브로 하여 푸른 광교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였다.

자연의 흐름속에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다 – Green Community
주변의 생태환경을 연계, 녹지로 위요되는 자연친화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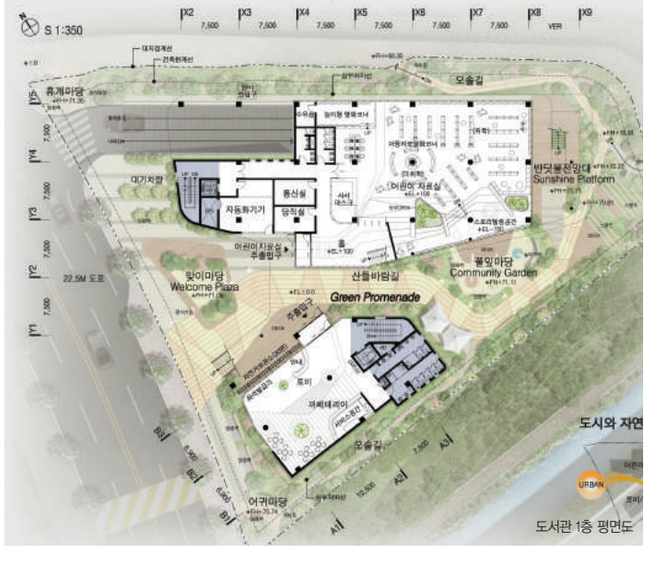
사회복지관은 물과 바람, 그리고 푸른 숲이 흐르는 자연의 대지위에 펼쳐진 문화공간이다.
자연의 흐름을 담은 축을 따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누구에게나 열린 소통의 공간이 되고 자연과 도시를 매개하는 복지문화의 중심이자 지역 사회의 네트워크 거점 공간이 된다. 자연 채광과 환기를 위하여 유아, 교육, 사무영역을 남측으로 배치하고, 주 도로에서의 인지성을 부각시키고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당 및 피트니스 영역을 주 도로와 인접하여 배치하였다. 주기류인 서풍을 아트리움을 통해 받아 자연환기가 가능하며, 천창을 통해 자연채광 및 환기가 가능한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였다.

도서관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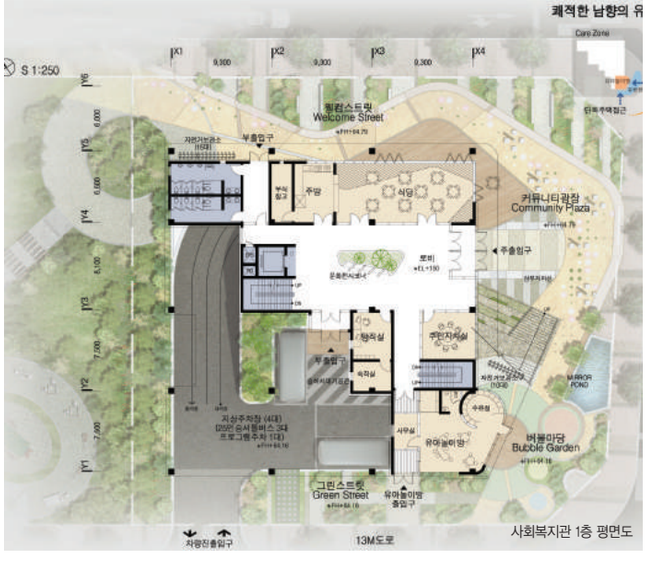
사회복지관 배치도

도서관 배면

사회복지관 조감도



도서관 1층 평면도



사회복지관 1층 평면도

도서관

광교신도시 문화복지시설 _가작

GWANGGYO CULTURE & WELFARE FACILITIES (LIBRARY, WELFARE CENTER)

발주자 : 경기도시공사

설계자 : 우재동, KIRA | ㈜그룹신도시 건축사사무소
변충섭, KIRA | ㈜스텝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배성환, 손봉균, 정철호, 민경준, 정희성(신도시)
서정일, 고영래, 전재영, 조지현 (스텝)

전문기술협력
– 전기 · 통신 설비분야 : 이도엔지니어링
– 기계설비분야 : 삼진설계
– 소방설비 : 이도엔니어링, 삼진설계
– 통신설비 : 이도엔지니어링
– 토 목: 다솔컨설턴트
– 조 경 : LET

대지위치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문1부지(도서관)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문3부지(사회복지관)
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문화복지시설(도서관, 사회복지관)
대지면적	3,063㎡ (도서관) / 1,818㎡ (사회복지관)
건축면적	1,529.73㎡ (도서관) / 885.06㎡ (사회복지관)
연 면 적	8,322.99㎡ (도서관) / 4,707.90㎡ (사회복지관)
건 폐 율	49.94% (도서관) / 48.68% (사회복지관)
용 적 률	183.41% (도서관) / 174.64% (사회복지관)
구 조	철근콘크리트
규 모	지하 1층, 5층 (도서관, 사회복지관)

TOTAL CONCEPT – 광교신도시에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징물을 계획하고자 하는 디자인 목표가 전제 되었다.
NEO – SYMBOL – 전통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상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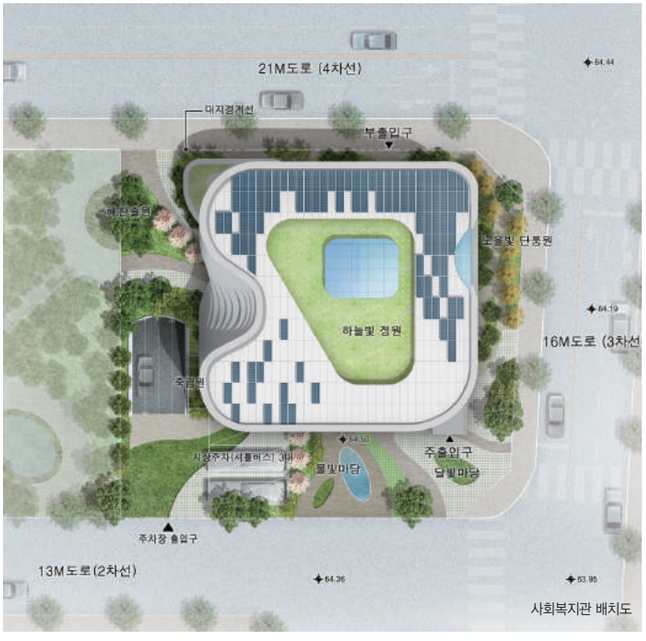
• 도서관

FRESH HISTORY – "새롭게 시작되는 도시에 신선한 역사가 시작된다"
도서관은 수원시 상징물인 수원성의 팔달문과 장안문의 곡선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였다. 이 전통적인 곡선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 의미는 다양한 주변환경과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을 감싸 안은 조형물로 계획하고자 했다.
배치계획 – 북쪽 도로변에서는 이용자들의 접근과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상징성을 강조 하고자 하였고 모든 실들이 남동쪽으로 향하도록 배치하였다. 또한 근린공원의 녹지와 주민들의 동선패턴을 광장으로 끌어들이면서 열어주는 배치를 계획하고자 했다. 그리고 남서쪽 도로의 소음을 차단하는 배치를 계획하였다.

• 사회복지관

ENJOY HISTORY – "새롭게 시작되는 도시에 즐거운 역사가 시작된다."
사회복지관은 수원성의 공심돈의 형태와 패턴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였다.
이 전통적인 형태를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 의미는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어느 방향에서나 쉽게 접근하고 인지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조형물로 계획하고자 했다.
배치계획 – 배치는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거나 나누어진 배치가 아니라 4방향에서 쉽게 접근하고 인지할 수 있는 배치를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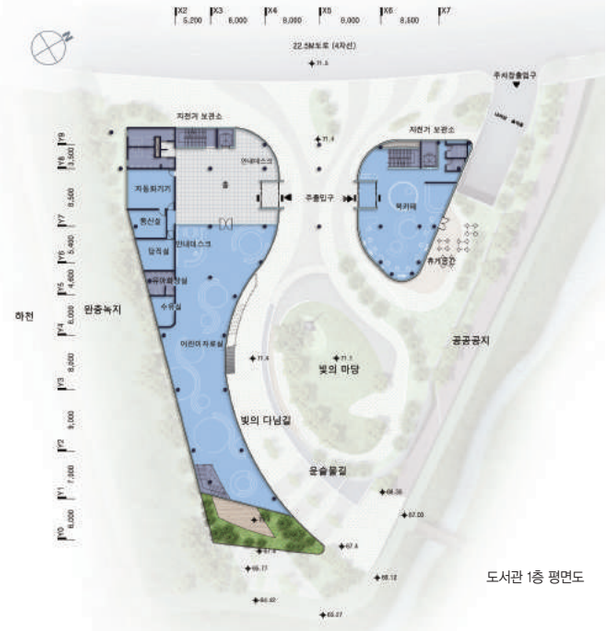
도서관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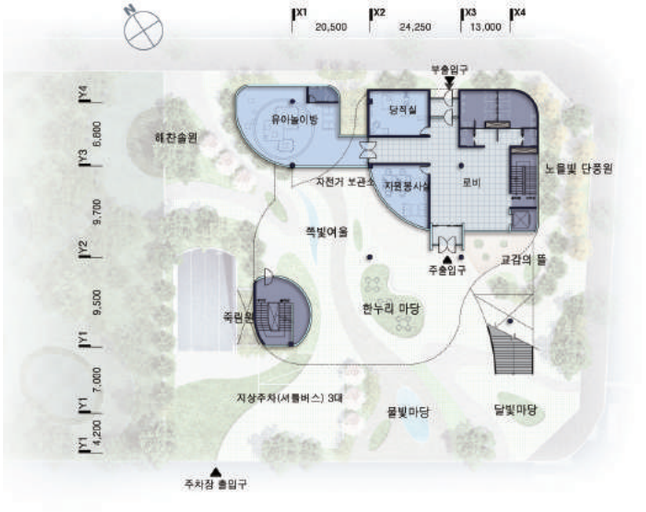
사회복지관 배치도

도서관 정면

사회복지관 조감도



도서관 1층 평면도



사회복지관 1층 평면도

남해 독일문화 체험센터 _당선작

GERMAN CULTURE CENTER

발주자 : 남해군

설계자 : 박상범 | (주)오씨에스도시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이재성, 정상준, 최문기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아크필구조
– 전기 · 통신 설비분야 : 대경전기
– 기계설비분야 : 진설비

대지위치	경남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572번지 일원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7,000㎡
건축면적	382.66㎡
연 면 적	825.66㎡
건 폐 율	5.50%
용 적 률	7.29%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1층, 2층(4개 동)

남해군에 위치한 독일마을은 60~70년대 간호사 · 광부로 독일에 파견된 교포들의 포근한 정착촌으로 독특한 건축양식, 드라마 촬영지, 독일마을 맥주축제 등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내 · 외국인의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독일마을이 가진 장소적 특성을 내포한 독일문화 체험센터를 건립하여 파독 광부 · 간호사의 역사적 이야기를 전하고 독일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독창적 관광자원을 선보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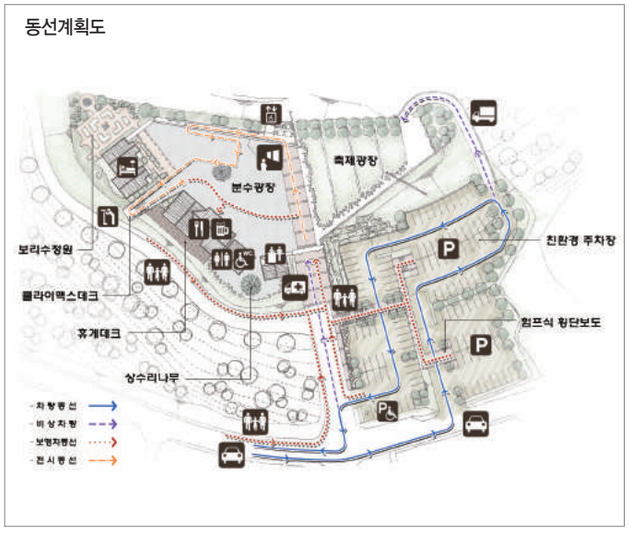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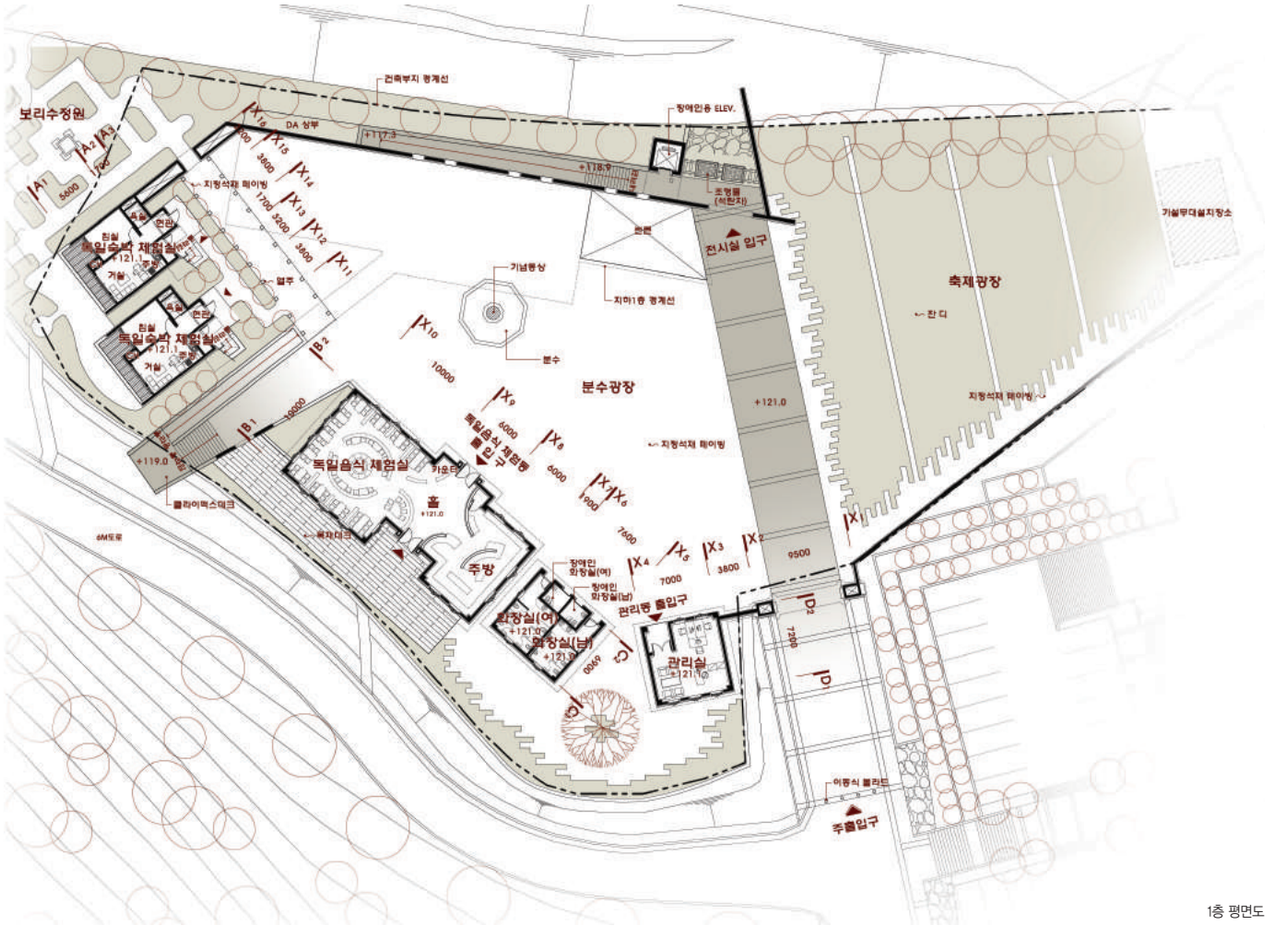
대지를 남북으로 가르는 메인축을 주 동선축으로 동쪽으로는 기 조성된 독일마을과 디자인맥락을 같이하여 오래된 독일전통마을의 모습을 담고 서측으로는 남해 내륙의 자연을 담아 기존 풍경의 맥락과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독일의 풍경과 남해의 자연이 어우러진 모습을 담고자 했다.

평면계획

지상에 기능이 다른 각 동을 분산 배치하여 위요된 광장의 공간적 특징을 재현하고, 각각의 동에는 독일숙박 체험실, 독일음식 체험실, 관리 및 기념품점을 계획하였다. 지하에 계획된 본 체험센터의 핵심시설인 파독 전시시설은 경사로를 따라 지상에서 지하로 들어가는 전이공간을 '파독'의 공간으로, 독일에서의 생활상을 담은 사진영사와 전시시설을 '역경'의 공간으로, 어두운 전시시설 뒤에 나타나는 좁은 복도의 마지막에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을 품에 안은 남해바다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절경을 '환향'의 공간으로, '파독–역경–환향'이라는 시간여정의 스토리를 담아 디자인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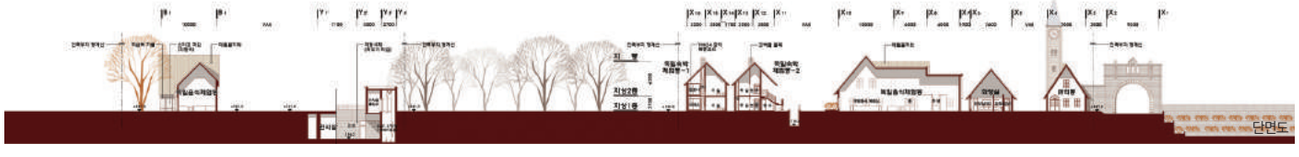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남해 독일문화 체험센터 _우수작

GERMAN CULTURE CENTER

발주자 : 남해군

설계자 : 김화연, KIRA | 인우 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김두한, 이동희, 강현승, 안태금, 신보경, 하명선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대진구조, 이대기구조기술사
– 전기 · 통신 설비분야 : (주)부흥이엔씨
전기기술사 정용인
– 기계설비분야 : (주)에스페란토, 기술사 재경호

대지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154, 2572, 2574, 2575번지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4,500㎡
건축면적	1,202.19㎡
연 면 적	815.85㎡
건 폐 율	26.72%
용 적 률	18.13%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2층

지역과 융합하는 개방형 문화체험 센터
- 주변지형 및 경관에 순응하는 형태를 갖도록 배치
- 주변 기존 독일 마을과 더불어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느낌을 주는 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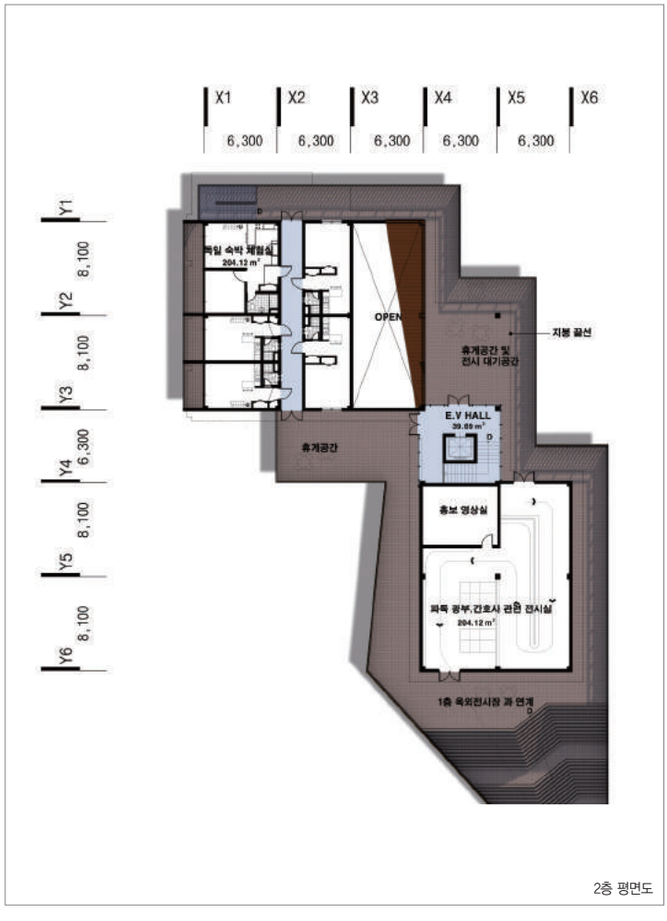
공간에서 또 다른 공간, 다양한 마당 만들기
- 기본적인 전시, 체험, 교육 등을 위한 공간과 맥주 축제기간 동안 판매, 시음, 공연들을 고려한 열린 마당
- 대지의 중간을 축제마당으로 비워둠으로 개방성의 극대화 및 남해바다의 조망을 위한 건물 배치
- 기존 마을의 지붕색 계열과 경사도를 유지함으로써 이질감 최소화

매스 나눔으로 기존 독일마을 자연 경관에 스며들기
- 오래된 풍경처럼 존재하는 건축(파독광부, 간호사들의 역사성을 존중)
- 두 개의 매스로 나누어 기존 독일 마을의 휴먼스케일에 맞춰 부피감을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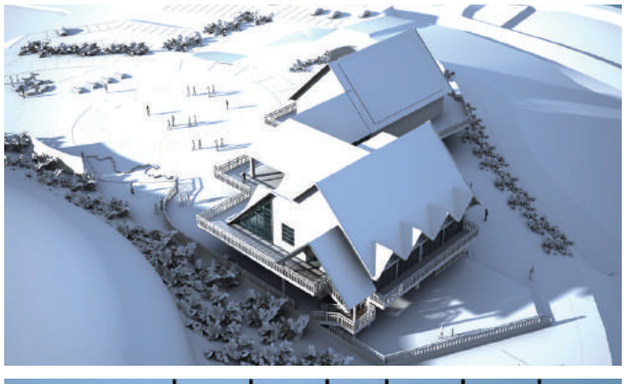
입면계획
- 독일 뮌헨의 백조의 성과 동일한 대지조건인 산정상인 점을 감안하여 경사지붕을 계획함.

평면계획
- 1층 : 1층의 일부를 필로티화 함으로써 통과와 확장성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이용 빈도가 낮지만 서비스 차량 동선도 확보하였다.
- 2층 : 파독, 광부 간호사 관련 전시실과 1층 옥외전시장을 연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_당선작

CHEONGJU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발주자 : 청주시

설계자 : 권오준, 정현석, KIRA | 신성 종합건축사사무소(주)
설계 : 박상구 | 청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용석, 김지호, 류호명, 임은영, 김기철
김현경, 이호정, 김송도, 이미영, 연제승
신희진, 권영은, 조만경, 김영남

대지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847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최고고도지구(12m), 수변경관지구
주요용도 노유자시설(장애인복지관)
대지면적 15,220㎡
건축면적 2,322.20㎡
연 면 적 3,967.38㎡
건 폐 율 15.97%
용 적 률 27.41%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1층, 3층

자연이 스며든 장애인 복지센터

- 다양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이 공존하는 커뮤니티 공간
- 도시와 자연으로 열린 공공의 장애인 복지센터
- Education : 재활교육을 통해 자립의지 및 사회참여의 공간
- Nature : 자연의 흐름을 적극 받아들인 친환경적인 장애인 복지센터
- Culture : 지역주민과 장애인들을 배려한 친근한 복지센터
- Welfare : 편의성 증대 및 무장애 공간 개념이 고려된 안전한 장애인 복지센터

배치 및 주동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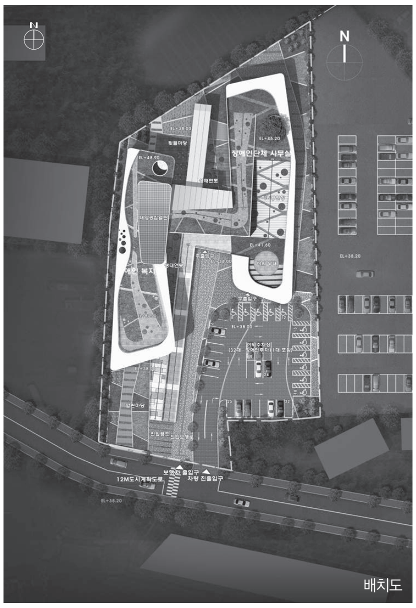
- 주동남향 배치 / 좌측 장애인복지센터, 우측 단체사무실 배치
- 단체사무실을 저층구성하여 건물전체에 조망 및 일조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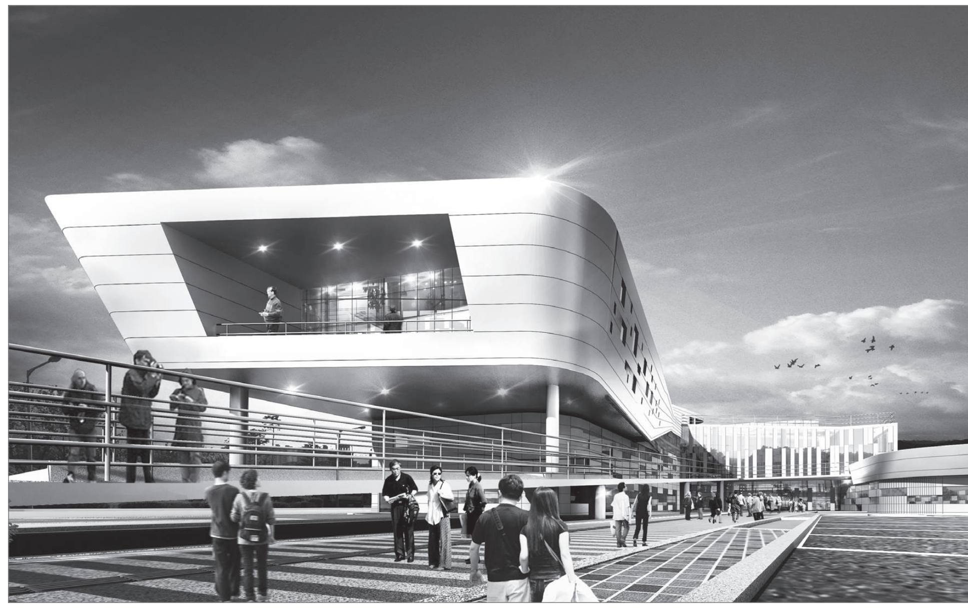
조망 및 경관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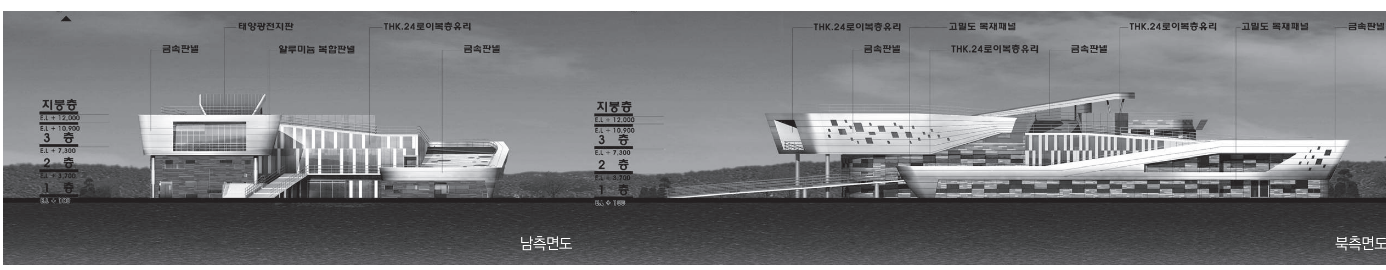
- 열린경관 확보 : 주동 및 옥상정원에서 무심천 조망
- 옥상램프의 유기적 연결 : 치유, 휴게, 공연공간 제공

이미지 형태 계획

- 유선형의 형태와 그린네트워크 옥상정원 : 장애인과 친근한 이미지 제공
- 진취적인 형태 : 재활교육 및 치료공간의 이미지 제공


배치도





남측면도
북측면도

단면도 1
단면도 2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_우수작

CHEONGJU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발주자 : 청주시

설계자 : 오재만, KIRA | 지선정 건축사사무소
설계 : 이창우 | 청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박종성, 정대희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티섹구조엔지니어링
– C.G : GMETRIC

대지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847(신봉동 500)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수변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12M이하, 4층 이하)
주요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대지면적 15,220.00㎡
건축면적 2,293.92㎡
연 면 적 3,963.05㎡
건 폐 율 15.07%
용 적 률 25.34%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1층, 3층

기본계획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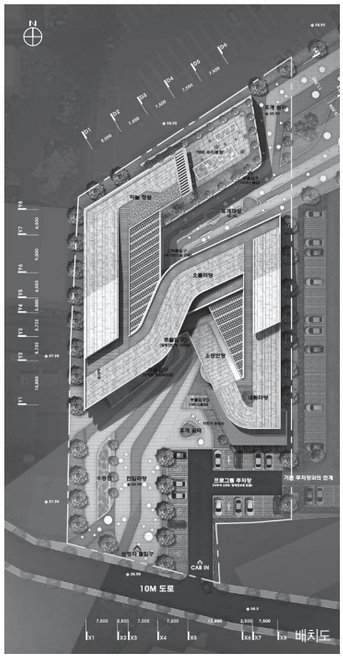
주어진 부지의 상황을 보면 무심천이 가까이 있는 강변부지이지만, 인접한 공장시설들로 인해서 황량해 보이는 쓸쓸하게 버려진 도시의 변두리로 보였다. 이곳에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을 계획하게 되면서,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복한 공간으로 변화시켜 보고 싶다는 바람으로 이 계획을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계획안 내 · 외부에 세 가지의 Scape를 입체적으로 구성함으로써 부지에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부지 내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고자 한다.

WELFARE S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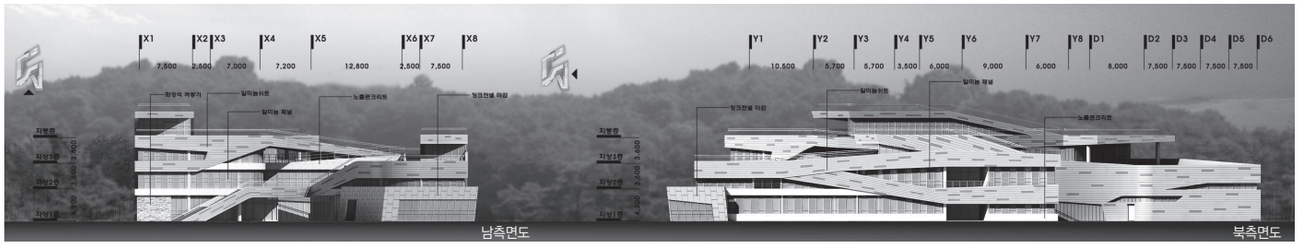
첫째, 사람과 사람(장애인)이 만나고 주변의 자연환경을 느끼며 건물 내 · 외부 공간을 움직이며 이어지는 동선의 흐름 즉, Human Scape를 계획하였다.
둘째, 건물의 3층 옥상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며 형성 되어 있는 옥상정원은 물이 흐르며 굽이치는 듯한 Natural Scape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기 있고 활기있는 공간에서 다양한 만남과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Community Scape를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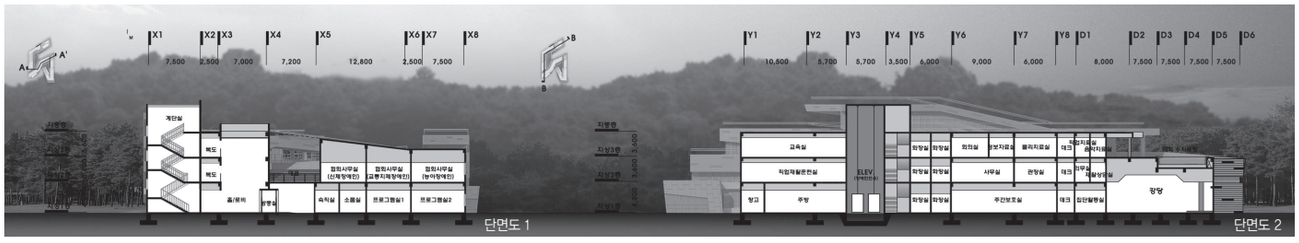
건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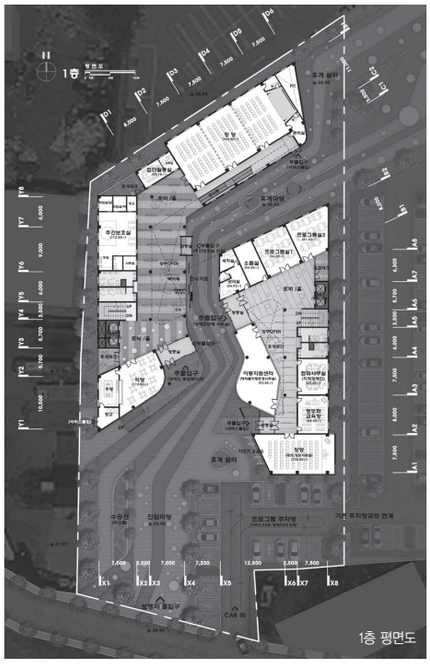
건물은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장애인복지동과 단체사무실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상부층에서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사람과 자연, 공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며 교차하는 Scape가 건물들을 넘나들며 입체적으로 형성될 수 있었다.
이는 입면계획으로 잘 나타나는데, 입면에서 보이는 역동적이며 물의 흐름을 형성화한 개성있는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현재 황량해 보이는 부지주변 경관에 활기를 주는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10M 도로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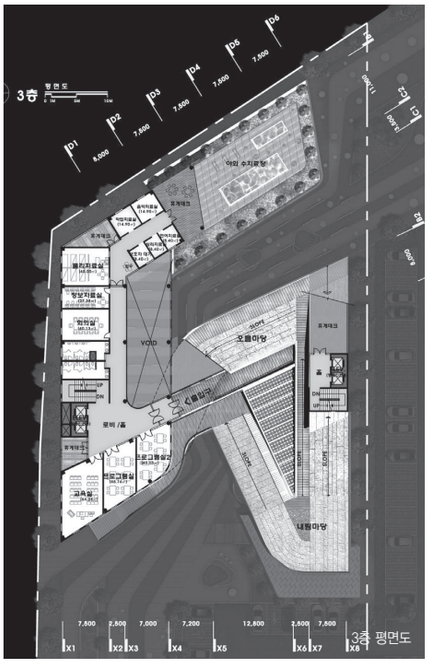
청주시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남측면도
북측면도


단면도 1
단면도 2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준공 20년 지났어도 철거 불가피성 인정되어야 노후 · 불량건축물

Deconstruction should be avoided since it has been 20years after construction. old ramshackle buildings

성승환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1. 사실관계

(1) 원고들은 대전 동구 삼성동 주민 6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전 동구 삼성동 일대 126,534㎡를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한 피고 대전광역시장을 상대로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은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노후 · 불량건축물로 규정한다.

(3)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법 제2조 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하며, 그 제1호는 '준공된 후 20년(시 · 도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건축물'을 들고 있다.

(4) 제1심과 항소심은, 준공된 후 20년 등의 기간 경과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개개 건축물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등이 선행된 다음에야 노후 · 불량건축물 해당 여부를 가려볼 수 있는데,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지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 2010두16592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1)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준공된 후 20년 등' 같은 일정기간의 경과는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 · 불량건축물 해당 여부 판단에 있어 노후 · 불량화의 징표가 되는 여러 기준의 하나로서 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준공된 후 20년 등의 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그로써 곧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노후화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도시정비법 제12조가 일정한 경우 필수적으로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다음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준공 후 20년 등의 기간 경과가 노후 · 불량건축물 해당 여부의 유일한 판단기준이 된다고 할 수 없다.

(3) 정비사업에는 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됨을 고려할 때,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이해관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필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4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34기 수료하였다. 법무부, 서울고등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관을 지냈으며, 현재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준공된 후 20년 등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기준만으로
노후 · 불량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면
무분별한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낭비가 초래될 수 있으며,
전통 한옥 등과 같이
보존가치 높은 건축물의 경우 보다
큰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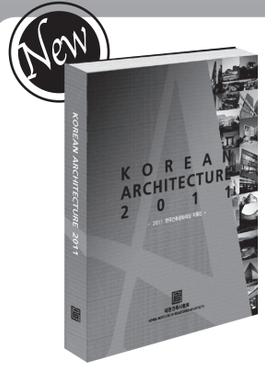
(4)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준공된 후 20년 등이 지난 건축물로서 그로 인하여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 해석된다.
(5) 항소심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3. 판례 평석

본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준공 후 20년' 같은 일정기간의 경과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건물이 노후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정비사업 허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관 전수안, 신영철은, "의사에 반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당하거나 매도하게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배려가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된다. 개별 건축물의 구조나 안정성, 주거환경 적합성 및 보존 상태 등에 비추어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준공된 후 20년 등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기준만으로 노후 · 불량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면 무분별한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낭비가 초래될 수 있으며, 전통 한옥 등과 같이 보존가치 높은 건축물의 경우 보다 큰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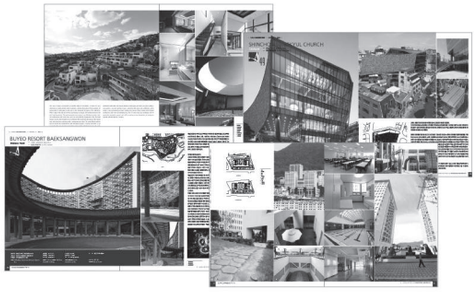
「KOREAN ARCHITECTURE 2009, 2010, 2011」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도서 구매 안내"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 건축실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각종 건축도서를 발간하여 제작실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시대 건축문화를 기록하고 다음 세대 건축 발전을 위한 「KOREAN ARCHITECTURE」시리즈,
반세기 한국건축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그간 월간 '건축사'에 게재된 원고를 발췌해 수록하여 제작한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등을 발간하였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KOREAN ARCHITECTURE 201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출품작 수록
면수: 376여쪽
40,000원(배송비 포함) 올컬러



「KOREAN ARCHITECTURE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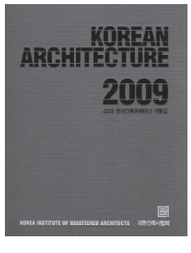
2010 한국건축문화대상 출품작 및
해외진출 건축작품 사례 등을 수록
면수: 500여쪽
30,000원(배송비 포함) 올컬러

+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45년간 '건축사'誌에 수록된 칼럼,
시론, 논문 등을 엄선하여 집대성
면수: 695쪽 / **20,000원(배송비 포함)**

※ 「KOREAN ARCHITECTURE 2010」&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2권 세트 구매시 **할인가 40,000원(배송비 포함)**



「KOREAN ARCHITECTURE 2009」

2009 한국건축문화대상 출품작 및 그린홈 특집 건축작품 사례 등을 수록
면수: 388쪽 / **20,000원(배송비 포함)** 올컬러

※ 구입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홍보편찬팀(02-3415-6867) ※ 계좌번호 : 기업은행 667-002597-04-232 (대한건축사협회)

중국건축학회와 협정체결

Establish Accord on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e between ASC and KIRA

대한건축사협회(회장 강성익)와 중국건축학회(회장 처수지엔, 车书剑 , Che Shujian)는 지난 2012년 6월 4일(월) 중국 베이징 중국건축학회에서 강성익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처수지엔 중국건축학회 회장 및 양 단체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사의 실무기준과 신뢰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건축실무 전문성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양 단체는 앞으로 건축 전문기술과 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자국의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을 명실공히 모색하게 된다. 양 단체는 건축교육, 자격시험 및 등록에 대한 상호인증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양자간의 협상과 계약을 통해 건축시장이 상호 개방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건축교육, 실무수련, 자격시험, 자격등록과 징계 등의 정보를 상호교환하며, 대표단과 참관인을 상호 파견하기로 했다.

ASC–KIRA 대표단 (좌에서 우로, 왕샤오징, 장바이핑, 처수지엔 회장 쉬중웨이, 강성익 회장, 조인숙, 신춘규)

중국건축학회는 건축관련 국제교류에 있어서 중국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우리협회와 함께 국제건축사연맹(UIA),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 회원단체이며 우리 대한건축사협회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실상의 협력관계에 있다.

참고로 중국건축학회는 31개 성 · 시별 지방학회와 22개의 전문분야별 분회 및 전문가회원 10만 명, 단체회원이 300개에 이르는 연합체로 중국 민정부(民政府, Ministry of Civil Affairs)에 등록된 건축관련 독립법인단체인 법적단체다.

이 체결은 양 단체간의 가시적인 내용 이상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건축설계전문가들은 판단한다. 이에 "중국건축학회와의 협정체결을 통해서 건축분야 지속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나갈 큰 힘을 얻게 됐다"고 강성익 회장은 소감을 전한바 있다.

I. 중국방문개요

1. 방문기간: 2012년 6월 3일(일) ~ 6월 5일(화)/2박3일
2. 방문장소: 중국 베이징
   중국건축학회(ASC), 베이징시 건축설계연구원(BIAD)

중국중원국제공정공사(IPPR)

3. 출 장 자: 회장 강성익, 국제담당 이사 신춘규
국제위원장 조인숙
4. 방문목적: KIRA-ASC 협정(Accord) 체결 및 향후교류추진 방향 협의
5. 숙박호텔: Beijing Capital Xindadu Hotel, 중국 베이징
6. 주요일정: 일시/활동/내용/장소
   - 6월 3일(일)
   - 16:00~17:00 인천 출발 (OZ335) → 베이징도착
   - 6월 4일 (월)
   - 10:00 베이징시건축설계연구원(Beijing Institute of Architectural Design, BIAD)
   - 16:00 중국건축학회(Architectural Society of China, ASC) KIRA-ASC 회의 및 협정(Accord) 체결
   - 6월 5일 (화)
   - 10:00 중국중원국제공정공사(China IPPR International Engineering Corporation)
   - 17:10~20:10 베이징 출발(OZ336) → 인천도착

Ⅱ. 추진배경 및 경과

중국건축학회는 ARCASIA나 UIA에 우리협회와 같은 회원단체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같이 해오고 가장 인접국으로 동질감을 느끼며 협조를 해오면서도 정작 MOU체결이 없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던 바 다음과 같은 경과에 의해 협정이 추진되었다.

- 서울시건축사회(김영수 전임회장 및 심재호 건축사)는 중국감찰설계협회와의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 지난 2010년 7월 16일 베이징을 방문하여 감찰설계협회 및 중국 건축학회와 회의를 개최하고 교류를 추진하기로 협의
- 베이징에서 중국건축학회와의 회의시 본협회와의 협약체결을 추진하기로 함
- 중국측은 MOU 초안을 본협회로 송부하였으며 중국어와 한국어로 체결하기를 제안하고 2011년 4월에 중국 난징(南京)에서 개최되는 UIA 임원회의시 MOU 체결할 것을 제안
- 2011년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중국 난징에서 개최된 UIA 임원회의시 UIA이사 심재호 건축사와 중국건축학회의 주창(周畅, Zhou Chang), 장바이핑(張白平, Jang Baiping), 왕샤오징(王晓京, Wang Xiaojing)과 만나 KIRA-ASC 간 MOU 체결에 대한 협의
  ⇨ 심재호 UIA이사는 그간 본협회 및 서울시건축사회의 회장교체로 인해 중국 난징에서의 MOU 체결은 추진하기 어려웠음을 설명
  ⇨ ASC는 4년 임기의 이사진이 2011년 6월말에 교체됨을 전달하고 2011년 8월 이후에 체결하기를 제안함 (본협회와 MOU체결을 협의한 ASC 상기 이사진은 연임)
- 2011년 10월 일본 요코하마 제15차 한 · 중 · 일 건축사협의회 참가시 주창(周畅) UIA 전이사와 2012년 4월 중 방문 체결할 것을 협의
- 본협회 신춘규 이사가 MOU 체결방안 3가지를 이메일교신(2012년 1월 12일)을 통해 중국건축학회 장바이핑(張白平)에게 건의
  ① 안:4월중 본협회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체결
  ☞ 제15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참석시 협의
  ② 안:제15차 아시아건축사대회 개최지인 인도네시아발리에서 체결
  ③ 안:2012년도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개최시 대한민국 광주에서 체결
- 중국측에서 2012년 10월 22부터 10월 25일까지 대한민국 광주에서 개최되는 제9차 국제건축심포지엄(대한건축학회 주최)에 ASC 회장 참석예정이므로 본협회와의 MOU 체결 제안(2012년 1월 20일)
- 중국측에 공식서신 발송(2012년 3월 12일)
  4월중 중국을 방문하여 체결하는 방안과, 10월중 본협회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개최시 초청하여 추진하는 방안 건의
  ☞ 회신접수(2012년 4월 9일): 두 가지 방안 모두 동의한다는 내용의 회신 접수
- 본협회 대표단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2012년 6월 4일~6월 6일)하여 체결하는 방안 제안(2012년 5월 9일)
  ☞ 2012년 6월 4일에 중국에서 체결을 제안하는 왕샤오징 ASC 국제부 부이사의 회신(2012년 5월 15일)을 본 협회는 뒤늦게 접수(2012년 5월 25일)
- 본협회 대표단 중국 베이징 방문 KIRA-ASC 건축실무 전문성에 관한 협정 체결(2012년 6월 4일)

Ⅲ. 협정체결

1. 협정서(Accord on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e between ASC and KIRA)

2011년 국제위원회에서 논의 되었던 협의서 초안(심재호 전 UIA이사 작성 영문)의 중문 및 국문을 당시 국제위원 조인숙 위원이 한양대 한동수 교수의 도움을 받아 수정하였다.

2012년 5월 말 협정 체결식을 앞두고 문건 검토 과정에서 MOU를 ACCORD로 하기로 하고 영문은 초안 작성자인 심재호 건축사(국제위원회 자문, 전 UIA이사)가, 중문은 한동수 교수(국제위원회 위원,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 중국 칭화대 박사)가, 국문 및 3개 국어 비교 검토는 국제위원회 위원장 조인숙 건축사가 담당하여 전면 재 수정했고 최종 문건의 영문은 영국인 에디터, 중문은 중국인 에디터 및 국문은 퇴임하신 국문과 교수님이

ASC회의실(통역 신혜원)

ASC-KIRA 협정서 사인

교정을 하여 3개국어로 문장을 수려하게 다듬었다.

3종 언어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국제관례상 문서초안 작성단체명이 뒤에 자리한다.)

(국문) 중국건축학회와 대한건축사협회간 건축실무의 전문성에 관한 상호교류 협정서

(중문) 中国建筑学会与大韩建筑士协会之间 有关建筑士职业主义的合作协议
※우리측에서 애초에 제시했던 제목 "中国建筑学会与大韩建筑士协会之间 有关职业工作实务上专业性的合作协议"이 너무 복잡하여 현지 협의 후 단순화시킴

(영문) ACCORD ON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E BETWEEN THE ARCHITECTURAL SOCIETY OF CHINA AND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2012년 6월 4일 대한건축사협회와 중국건축학회가 사인을 하여 향후 5년간 유효한 협정서는 "양 단체는 건축실무의 전문성에 관한 상호교류 협정을 수립한다"로 시작하여 "…이해가 상이한 경우는 영문을 우선으로 한다"로 맺으며 제1조부터 제7조까지로 구성했다.

그 7개 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는 양 단체는 전문기술과 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자국의 건설환경 개선과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제2조는 국제건축사연맹 총회에서 결의한 인증서 및 국제기준 권고안에 관한 협정에서 규정한 건축사 직업윤리 규정을 보다 깊게 연구하고 토론한다는 승인 원칙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제3조는 공중보건과 안전 및 복지를 위한 건축법규를 제정한다는 것과 건축교육, 등록 및 징계에 관한 전문직업 기준을 수립하고 준수한다는 관련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제4조는 앞의 제2조 및 제3조를 기준으로 양 단체는 적절한 시기 및 조건하에서 건축교육, 자격시험 및 등록의 상호인증의 목표를 향해 긴밀한 협조 하에 함께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것과 양자간의 계약과 협상을 통해 건축시장이 상호 개방되도록 한다는 협정의 목표에 대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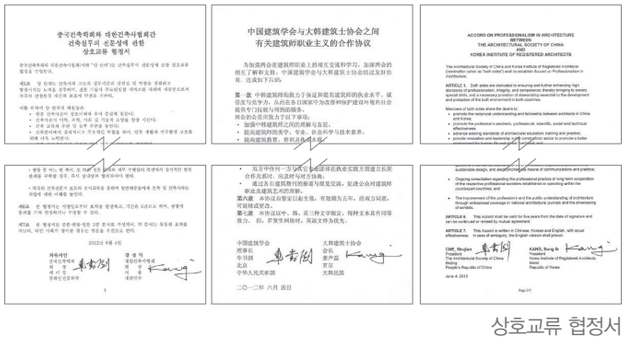
제5조는 제4조에 명시된 목표달성을 위해 양 단체가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정보의 상호교환, 대표단 및 참관인의 상호 파견, 건축학전공 학생, 교수와 건축사 상호 방문 및 협력, 그리고 일반대중들에게 건축 및 건축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자는 내용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은 쌍방 중 한 쪽이 또 다른 전문단체와 직무 수행상 측면에서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경우 즉시 상대방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의 포함이다.

제6조는 5년간의 유효기간에 대한 것과 연장 또는 수정에 대한 조항이고, 마지막

제7조는 3종 문자로 협정서를 작성하며 이해가 상이할 경우 영문을 우선으로 한다는 조항이다.

2. KIRA-ASC 회의, KIRA-ASC 건축실무전문성에 관한 협정 체결 및 만찬

가. 활동일시: 2012년 06월 04일(월) 16:00~17:30~19:00
나. 협정체결장소: 중국 베이징 중국건축학회 회의실



상호교류 협정서

中国建筑学会(Architectural Society of China, ASC)
中国 北京市 三里河路9号 建设部内(No.9 Sanlihe Road, Beijing, China)
Tel : +86 (0)10 88082224 Fax : +86 (0)10 88082223

다. 회의안건
1) 환영사 및 소개
2) 주요업무현황 및 계획 소개
3) UIA 및 ARCASIA 활동에 관한KIRA-ASC 업무협력
4) 2012년 10월 ASC 대표단(회장포함) 한국방문(국제건축심포지엄 ISAIA)에 관한 KIRA 협조요청
5) 기타협력사항
6) KIRA-ASC 협정체결식

라. 참석자
- ASC : 처수지엔(车书剑)회장, 쉬중웨이(徐宗威)부회장, 장바이핑(张白平), 왕샤오징(王晓京), 우푸쥐엔(吴普娟), 웨이웨이(魏韦 Wei Wei)
- KIRA : 강성익 회장, 신춘규 이사, 조인숙 국제위원장, 신혜원(청화대 박사수료생)-현지업무협력

마. 활동내용
건축사의 실무기준과 신뢰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건축실무 전문성에 관한 협정을 체결. 양 단체는 앞으로 건축 전문기술과 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자국의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게 된다는데 합의

〈중국건축학회(ASC)〉

쉬중웨이 부회장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이렇게 직접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말과 함께 중국건축학회는 처수지엔 이사장의 노고로 끊임없는 발전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세가지 좋은 일을 소개했다.

① 중국문화의 이슈는 전통건축에 대한 것이라는 점
② "우량융(吴良镛)"선생의 '국가최고과학진보상'수상은 중국건축계 30년 업적의 쾌거이며
③ '왕슈(王澍)'의 프리츠커상 수상은 떠오르고 있는 설계자에 대한 관심이라는 점

그리고 중국건축학회가 2012년 해야 할 일들 과 중국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창조와 창신으로 역사와 시대적 모습을 이어가려는데 대한 대안을 설명했다.

이어서 처수지엔 이사장이 환영사에 이어 중국건축계의 현황에 대한 개괄을 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가까운 이웃이다. 연간 30억 제곱미터의 신축이라는 중국 건축시장 규모를 통해 중국건축계는 발전과 번영을 한다.

ASC의 임무로:〈첫째, 가능성을 지속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므로 창조능력을 보호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건축사의 사회적 역사적 책임감이 개개인의 작품 속에 묻어날 수 있게 한다; 셋째, 개성과 창조의 발전을 계승하기 위해서 고건축을 우선으로 하고 문화유산을 보호한다; 넷째, 오랜 역사 속에서 창조하고 창신하는 여러가지 현대를 담는 건축의 모습들이 중국에서 벌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청년건축사 배양에 ASC가 무대가 되도록 한다; 여섯째, 재료와 기술 면에서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하면서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등을 피력한 후 한중 좋은 관계를 교류와 지속적 지지와 이해로 이어가자고 했다. 아울러 다음을 요청 했다.

① 2013년 10월 UIA Council meeting의 중국개최 지지
② 2012년 ARCASIA Zone C 부회장에 쉬종웨이 출마 지지
③ 2012년 10월 처수지엔 회장의 한국 방문시 도움

〈대한건축사협회(KIRA)〉

이에 대해 강성익 회장의 답례사가 이어졌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건축학회(ASC)와 우리 협회는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와 국제건축사연맹(UIA)의 같은 회원단체로서 그 동안 수많은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각종 건축관련정보 교류와 협력활동을 같이 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도 매우 친숙한 느낌이 든다.

최근,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로서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고 있으며, 양국 정부 차원에서 한 · 중 FTA 논의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양 단체간 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2010년부터 실무적으로 논의되어 온 협정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의 이 협정 체결은 양 국의 건축문화 발전과 제도 개선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이를 계기로 건축설계서비스 분야의 인적. 물적 교류도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이번 방문계획을 승인하고 따뜻하게 맞이해주신 처슈지엔 회장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이 기회를 빌어 그 동안 협정 체결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양 단체의 국제업무 관계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오전 베이징시 건축설계연구원 방문시 중국건축의 발전모습을 보고 느낀 바가 많다고 피력했고, 2011년 UIA 동경대회시 서울이 2017년 UIA대회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지해주어서 고맙다는 내용과 함께 올해 ARCASIA대회에서 중국을 지지할 터이니 차기엔 한국을 지지해달라고 했다.

바. 성과
양 단체는 건축교육, 자격시험 및 등록의 상호인증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양자간의 협상과 계약을 통해 건축시장이 상호 개방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건축교육, 실무수련, 자격시험, 자격등록과 징계 등의 정보를 상호교환하며, 대표단과 참관인을 상호 파견하기로 했다.

Ⅳ. 유관기관 방문

중국건축학회가 사전에 주선을 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두 개의 대표적인 설계조직을 방문하여 그들의 하는 일을 소개받고 설계실 및 연구소들을 일일이 둘러보았다. 그리고 각각의 건물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1. 베이징시 건축설계연구원 방문 및 오찬

가. 방문일시: 2012년 06월 04일 (월) 10:00~11:30~13:30

나. 방문장소: 중국 베이징, 베이징시건축설계연구원(BIAD) 회의실 및 설계실

中国 北京市建筑设计研究院(Beijing Institute of Architectural Design, BIAD)

中国 北京市 南礼士路62号

Tel: +86 (0)10 88043999 Fax: +86 (0)10 68034041

다. 참석자

- BIAD : 쉬지엔셩(徐全胜)부원장, 샤오웨이핑(邵韦平) 집행총건축사, 주쉬에천(朱学晨), 우푸쥐엔(吴普娟), 난자이구오(南在国)-조선족 통역
- KIRA : 강성익 회장, 신춘규 이사, 조인숙 국제위원장

라. 활동내용

ASC와의 건축실무 전문성에 관한 협정 체결 전 중국 및 베이징을 대표하는 건축설계조직이자 ASC의 일부인 베이징시 건축설계연구원에 초대되어 BIAD 60년(2010년 60주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최근 완료했거나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를 소개받음

〈베이징시건축설계연구원〉

① 3,000여명의 인원 근무, 신공항 및 국립극장 등 작품 소개

② 数字技术与设计创新 (Digital technology and design innovation)

③ BIAD 60년을 돌아보는 DVD-凝固的旋律(응고의 선율)-상영

〈대한건축사협회〉

각 설계실 탐방 및 교류

마. 성과

중국 인터넷 등에 뉴스로 올라가 있는 내용의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한국 대한건축사협회 베이징건축설계연구원 방문(韩国注册建筑师协会拜访北京市建筑设计研究院)"

2012년 6월 4일 오전 중국건축학회의 주선으로 대한건축사협회 강성익 회장, 신춘규 이사 및 조인숙 국제위원회 위원장이 베이징 건축설계연구원을 방문했다.

베이징시 건축설계연구원부원장 쉬지엔셩, 집행 총 건축사이자 중국건축학회 건축사분회 이사장 샤오웨이핑, 과학기술질량부 부장 정쉬, 중국건축학회 건축사분회 집행부 비서 주쉬에천 박사 및 한국대표단은 회담후 설계실 등을 탐방했다. 쉬지엔셩 부원장은 대표단을 따듯이 맞이한 후 근래 발전 상황을 소개했다. 샤오웨이핑 집행 총건축사는 PPT를 통해 베이징에 근래 지어진 주요작품 및 공항설계, 도시계획 등을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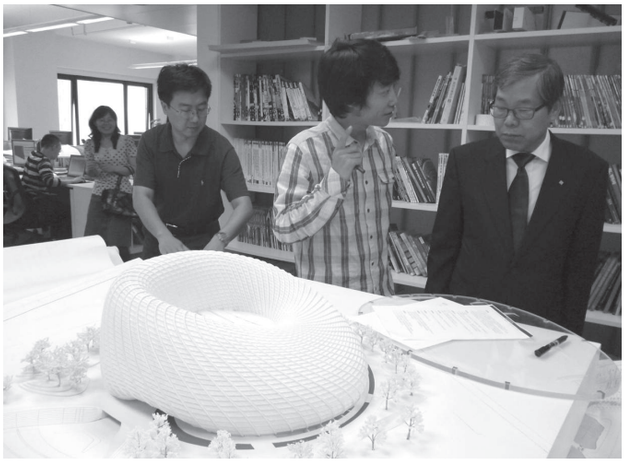
2012年6月4日上午，在中国建筑学会安排下，韩国注册建筑师协会会长姜声益(Kang Sung Ik)、理事辛春圭(Shin Chun Gyu)、国际委员会委员长赵仁淑(Cho In-Souk)一行三人拜访了北京市建筑设计研究院。

北京市建筑设计研究院副院长徐全胜，执行总建筑师、中国建筑学会建筑师分会理事长邵韦平，科技质量部部长郑实，中国建筑学会建筑师分会执行秘书朱学晨博士与韩国注册建筑师协会代表团进行了亲切会谈并参观了工作室。徐院长对代表团的到访表示热烈欢迎，并介绍了该院近年的发展情况。邵总通过PPT对北京院

BIAD 입구

BIAD (좌에서 우로, 샤오웨이핑, 신춘규, 쉬지엔셩, 강성익 회장, 조인숙)

BIAD 회의실



BIAD설계실 참관

近年的主要设计作品进行了分门别类的介绍，包括机场设计、总体规划等。韩国注册建筑师协会介绍了该会的主要工作职能、机构设置，并对韩国的建筑师注册及执业情况进行了介绍。最后邀请北京院派建筑师代表团访问韩国，加强两国建筑师的交流与合作。

(http://www.justeasy.cn/news/id-38677.html)

2. 중국중원국제공정공사(China IPPR International Engineering Corporation) 방문

가. 방문일시: 2012년 06월 05일 (화) 10:00~11:30~14:00

나. 방문장소:

중국 베이징 소재 중국중원국제공정공사설계원(China IPPR I.E.C.) 회의실

中国中元国际工程公司 北京市海淀区西三环北路5号

Tel: +86 (0)10-68458355 Fax: +86 (0)10 68732688

다. 참석자

- IPPR : 시광휘(徐光辉) 당위원회서기(党委书记) 순중리에(孙宗列), 民用建筑设计研究院 副院长, 우푸쥐엔(吴普娟), 정일남(鄭日男)-조선족통역, 신동욱(申東郁)-한국인 근무자
- KIRA : 강성익 회장, 신춘규 이사, 조인숙 국제위원장

라. 활동내용

ASC와 건축실무 전문성에 관한 협정 체결 후 국제적 건축설계조직이자 제대로 건축설계를 하도록 ASC가 책임과 의무를 지우는 중국중원국제공정공사설계원에 초대되어 최근 완료했거나 현재 진행중인 민간 및 국내,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소개받음. 도착하자 건물현관에 전광판으로 "열렬환영 대한건축사협회(热烈欢迎 韩国注册建筑师协会)"라 쓴 것이 인상적이었다.

〈중국중원국제공정공사설계원〉

(IPPR은 원래 Institute of Project & Research의 약자다.)

① 1,500명 중 등록건축사 약 300명 (70~80%는 1급건축사) / 기술을 전문화하고 종합화

② 중국내 의료시설건축의 선두주자이자 최고봉

③ 민간건축 / 공항설계 / 물류시설설계/ 도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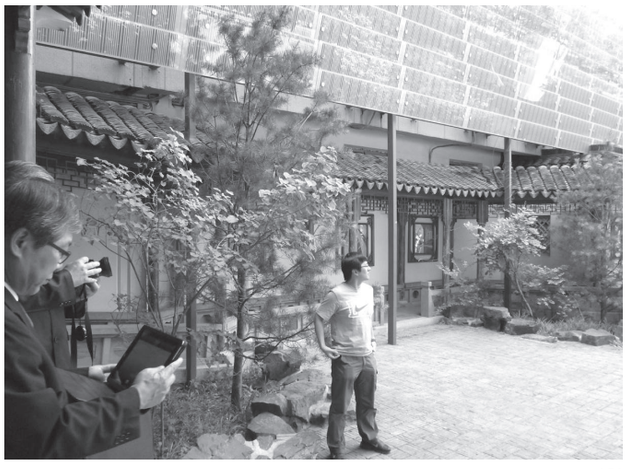
④ 설계방식 변경 노력 및 합작 의지

〈대한건축사협회〉

IPPR의 열렬환영, 대한건축사협회대표단

IPPR 순종리에-강성익 회장

IPPR 쉬광휘-강성익 회장



IPPR 정원

IPPR 정원-KIRA대표단

① 시설 및 각 설계실 탐방 / 교류

마. 성과

자사 및 인터넷 등에 뉴스로 올라가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 대한건축사협회 대표단 우리공사 방문(韩国注册建筑师协会代表团来我公司访问)"

2012년 6월 5일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강성익 및 그 일행이 우리공사를 방문하였다. 당위원회서기 시광휘(徐光辉) 및 관련부문의 책임자들이 배석해서 회의에 임했다. 당서기는 공사의 발전연혁 및 주요업무영역에 대해 소개한 후 모두 함께 설계실 등의 전체 시설을 참관 했다.

(6月5日，韩国注册建筑师协会姜声益先生一行来我公司访问，公司党委书记徐光辉及相关部门负责人陪同会谈。徐光辉书记介绍了我公司的发展沿革和主要业务领域，并陪同客人参观了设计工作室。)

(http://www.uc800.com/Corporate/show_news.aspx?news_id=3377)

Ⅴ. 문화탐방

1. 北京后海 (the Houhai Lake Area in Beijing)

베이징 도착이 일요일 늦은 시간이라 저녁 식사 장소로 후하이(后海) 호반을 찾았다. 후하이는 직역을 하자면 왕후의 호수라는 의미인데 베이징 중심부를 에워싸는 지역으로 쉬차하이(什刹海)를 구성하는 호수의 하나이다. 쉬차하이는 지안하이(前海, Qianhai), 시하이(西海, Xihai), 후하이(后海, Houhai)로 구성되며, 황제국 당시는 허이안(河沿, Riverbank)이라 칭했던 곳으로 자금성(故宫) 및 베이하이(北海) 북서쪽에 위치한다. 역사는 멀리는 금(金, Jin Dynasty, 1115-1234)까지 거슬러올라가며 위엔(元朝, Yuan Dynasty)대엔 항조우까지 연결하는 운하의 북단으로 교역이 활발했던 곳이다. 주변에는 유명한 도교사원 및 불교사원이 10개가 있고 왕실저택과 정원들 및 전통적인 후퉁(胡同, Hutung)과 쓰허위엔(四合院, siheyuan)이 즐비하다.

1992년 베이징시는 이 일대를 '역사문화경관지구 (Historical and Cultural Scenic District)'로 지정을 했다. 후하이 일대는 근래 들어 외국인이나 화교 및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식당가로도 유명하다.

근처에 남아있는 사합원 대저택으로는 공왕부(恭亲王府, Prince Gongs Mansion), 춘왕부(醇親王府, Prince Chuns Mansion), 손문(孫文)의 부인 송칭링 고택(宋庆龄故居, Former Residence of Soong Ching Ling), 문필가 꿔머루어 고택(郭沫若故居, former Residence of Writer Guo Moruo 1892-1978) 등이 있다.

공왕부는 여러 개의 사합원으로 구성된 맨션이 총면적 60,000제곱미터나 되며 28,000제곱미터에 달하는 정원이 있다. 보수수리를 거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박물관으로 재탄생되었다. 송칭링 고택은 20,000제곱미터 정도로 정원과 연못을 갖춘 대표적인 사합원으로 애초에는 춘(Zaifeng, Prince Chun: 마지막 황제 푸이(溥儀)의 아버지)의 맨션이었으나 주은라이(周恩来)가 송칭링에게 주어 1963년부터 1981년 사망 때까지 살았고 그녀의 사후 기념관으로 개관했다.

예정에 없기도 하고 밤이라 일일이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이런 역사문화기념물들이 즐비한 호반을 산책하는 것으로 베이징 방문을 시작했다.

2.老舍茶馆 (Lao She Teahouse)

중국건축학회와 협정 체결 후 함께 만찬을 하고 나자 저녁 7시경이었다. 2박3일의 짧은 일정의 마지막 밤이라 베이징의 명물 중 하나인 라오쉬어 차관(老舍茶馆 Lao She Teahouse)의 야간 공연을 관람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보다는 영국 및 미국 등에서 잘 알려진 문필가이자 예술가인 슈칭춘(舒庆春, Shu Qingchun 1899~1966)의 필명인 라오쉬어(老舍) 및 그의 유명한 희곡작품

차관(茶馆, Teahouse)에서 이름을 차용한 공연장 및 찻집이다. 베이징문화의 만화경이라 할 수 있는 공연물들을 차를 마시며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든 곳으로 3개 층의 총면적은 2,600 제곱미터가 넘는다. 1988년 개관이래 부시(아버지)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200만이 넘는 내 · 외국인이 다녀간 곳으로 유명하며 자국문화의 창구이자 세계와의 가교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 공간을 처음 만든 인성시(尹盛喜, Yin Shenxi, 2003년 사망)는 당대 농촌으로 갔다가 베이징으로 돌아온 쯔칭(知青, Zhiqing: 지식청년 知识青年)의 리더로서 상업개혁의 선구자이다. 그는 또한 근대화의 대가 취바이쉬(齐白石, Qi Baishi 1864-1957) 아들의 제자이기도 하다.

라오쉬어 차관-공연

Ⅴ. 후기

협정체결시 한양대학교 동아시아건축역사연구실 출신의 칭화대 박사연구생인 신혜원양이 아주 훌륭한 통역을 해서 매끄럽게 일을 진행했던 점에 참으로 자랑스러웠다. 다만 제대로 예우를 못해서 좀 미안했다. 우리협회는 이런 규정들을 좀 수정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현지 방문기관에서 준비한 조선족 통역이 우리와 헤어지기 아쉬워서 공항까지 따라올 때 가슴이 뭉클했다. 기관장들 선물만 준비하고 작은 것이나마 이들을 위한 선물준비를 못한 점이 내내 마음에 걸린다.

추진경위를 보충하자면 이렇다. 어차피 2012년 10월 대한민국 건축사대회 개최시기를 즈음하여 다른 일이기는 하지만 중국건축학회 대표단이 한국방문예정에 있으니 10월에 한국 광주에서 협정체결을 하자는 강력한 의견이 있었다. 한편 필자도 중국과의 협정체결은 제 3국에서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던 사람 중의 하나다. 그러나 지난 5월 미국건축사협회 전국대회에 참가하면서 FIKA라는 ad hoc 체로 한국을 대표하자는 3단체간의 약속을 회원단체들은 헌신짝처럼 여기고 국제적으로 정체성이 없이 행동하는 것을 실제로 겪었다. KIA는 따로이 AIA와의 협정체결문을 만들어 가져가서 단독 회의를 현장에서 요구하거나 당시 대표회장인 AIK 대표는 FIKA 대표로서가 아니라 명예는 개인이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국제단체장 포럼에 올리는 문건은 소속단체의 활동 위주였다는 점 등이었다. 이런 점들은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음은 물론이려니와 국제적으로 약속한 건축사(Architect)에 대한 정의조차 이해 못하는 처사다. 그래서 그 동안 전임자들이 애써서 추진해오던 협정체결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실기하지 않으려면 서두르는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어 미국건축사협회 전국대회 참가 후 불과 10여일 만에 중국으로 가기 위해 수도 없이 중국에 전화를 하고 또 협정 문건 등을 만드느라 잠도 반납하고 고생하는 등 사실상의 어려움이 많았지만 서둘러 추진했다.

이번 일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촉박한 시간 내에 협정서를 만들었던 것이다. 전임 위원회에서 문건 등을 분명하게 넘겨주지 못해서 그랬던 점도 있으나 그 어려움은 이해한다. 모든 주말을 반납하고 각종 언어의 문건으로 준비했지만 그 시간은 보상이 안 되는 작업이었다. 그래도 이번에는 사무국에서 소정의 검토비 등을 챙겨줘서 검토자 들에게 덜 미안했다. 앞으로는 작업에 대한 보상을 최대한 현실화하고 몇 가지 유형의 문건은 사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출장이나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봉사차원으로만 일을 계속해야 한다면 국제위원회 위원들이 출장을 주저할 것 같다. 개인 사무소 업무를 뒤로하고 협회대표로 출장하는 것을 해외여행 정도로 간주하는 몰이해는 근절 되야 할 것이다. 소속단체에서 건축사 스스로의 대우를 못하면 누가 건축사를 대우 하겠는가! 마찬가지로 위원들도 임기를 맡은 동안은 소속단체에 대한 본인의 직무유기가 되지 않도록 사심 없이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음 기회에 같은 경우엔 테이블 용 조그만 국기를 가져가야 할 것이다.

이번 협정체결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격에 맞는 교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작성자 : 조인숙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장〉

campaign

건축사저작권 스스로 지켜야 … *.dwg 납품?

국내의 건축설계 및 각종 설계에 중요한 수단인 CAD 프로그램은 그 결과물을 주로 *.dwg로 생산하게 됩니다. 그간 인허가, 심의 등 대관업무나 납품 등 건축주 관련업무, 또한 시공사와의 업무에서 *.dwg파일을 그대로 납품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스(source)파일 형태로서 변경과 재생산이 용이하여 인허가상 기록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는 파일의 용량이 매우 커서 관리측면에서도, 또 업로드에 많은 시간을 요하고, 저장장치의 용량도 매우 많은 크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건축주나, 시공사에 납품하는 경우 계약에 관련한 자료로 활용되는 도서류에 있어서도 기록의 의미가 크므로 dwg 포멧의 파일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만일 현장에서 도면의 치수 등을 알기위해 dwg파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dwf파일로 제공하시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서의 치수를 알고 싶다면, 설계자나 감리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도면을 납품하시거나, 업로드 하실 때는 *.dwg파일 대신에 pdf파일이나 jpg파일로 도면의 크기대로 만드셔서 납품 하시면 건축의 의미가 더 살아나게 되고, 편리한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건축사님들의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민원신청 내용과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699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협회소식

제7회 이사회

2012년도 제7회 이사회가 지난 7월 11일 오후 2시에 우리협회 8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홍보사업비 집행의 건, 우리도시 되살리기: 세미나 개최의 건, 정책연구실 직원충원 및 업무분장 건의의 건, 대한여성건축사회 비영리법인 설립관련 회원 징계의 건이 논의됐으며, 부의안건으로 대한건축사협회특별상 운영규정 개정의 건, 명예회원 추대의 건, 대한민국건축사대회 대회기 변경의 건, 건축사회 교부금 지원의 건, 예비비 사용의 건, 직원 징계의 건과 기타 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 오늘 논의된 사항을 기획위원회에서 검토 · 보완 후 차기 이사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현직임원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
  – 당선자, 후보자가 10%이상 득표시 정산 반환
  –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중 1인에게 반환 등
• 제2호 : 홍보사업비 집행의 건
  – 원안대로 집행하되, 임원 및 위원장 등의 법제도 개선활동비는 담당임원 및 위원장과 협의하여 집행하기로 함.
• 제3호 : "우리도시 되살리기" 세미나 개최의 건
  –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함.
• 제4호 : 정책연구실 직원충원 및 업무분장 건의의 건
  – 조사연구팀 직원 1명을 우선 충원하기로 하고,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경영진단 평가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5호 : 대한여성건축사회 비영리법인 설립관련 회원 징계의 건
  – 해당회원을 징계하기 보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회장이 당사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자진 취하토록 권고하고, 추후 여성건축사들이 협회 제도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대한건축사협회특별상 운영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명예회원 추대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하되, 참석확인 후 금번 행사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기 행사시 수여하기로 함.
• 제3호의안 : 대한민국건축사대회 대회기 변경의 건
  – 2010년도에 제작한 대회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로 함.
• 제4호의안 : 건축사회 교부금 지원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지원예산 : 60,000,000원
    ▷ 배분방법 : 최근 3개년 평균 회비수납액 및 기여도에 따라 시도별 적정배분
• 제5호의안 : 예비비 사용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예산과목 : 일반회계 '예비비' → '지도사업비' 목
    ▷ 승인금액 : 11,000,000원
    ▷ 사용목적 : 협회 세무조사('12.7.16~8.3) 관련 세무조사 대행수수료 충당
• 제6호의안 : 직원 징계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비공개 논의)

위원회 개최 현황

■ 제1회 건축사연금추진 소위원회

제1회 건축사연금추진 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 연금사업에 관한 회원 의견 수렴의 건
  – 건축사 연금사업에 관한 회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서안 마련을 위하여 위원(장)이 작성한 초안을 문항별로 검토, 협의하여 1차 '설문조사서안'을 작성함.

■ 제2회 건축사연금추진위원회

제2회 건축사연금추진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2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연금 '설문조사서안'의 건
  – 연금추진 소위원회가 마련하여 제출한 '건축사연금 설문조사서안'을 각 문항별로 축조 · 심의하여 설문내용을 수정, 보완, 첨가하여 위원회안을 최종 확정하고, 수정된 설문안은 소위원장의 검토를 받아 다음과 같이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건축사 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 계획안
    – 조사기간 : 2012. 7. 1 ~7. 15 (2주간)
    – 조사대상 : 전체 정회원
    – 조사방법 :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FAX 이용
      시도건축사회 협조요청 (설문조사 홍보 및 설문참여 독려)
• 제2호 : 건축사 연금제도 연구용역 추진계획의 건
  – 건축사 연금제도 도입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및 분석기간 중 「건축사 연금제도 연구용역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해당 업무를 제1회 연금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한 소위원회가 마련하여 차기위원회(전체회의)에서 제출받아 협의하기로 함
  ▷ 건축사 연금제도 연구용역 추진계획안
    – 연구목적, 연구기간, 연구방법, 연구수행자(업체), 연구용역비, 과업지시서 등

■ 제3회 정책위원회

제3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18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한양서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 및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백민석 위원이 담당하는 BIM TF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루도록 요청함.

• 제1호 : 2012년도 협회발전워크숍 분임토의 결과에 따른 추진방향의 건
  – 위원장과 오동욱 위원이 워크숍 분임토의 결과에 대한 설명과 위원들간 의견을 서로 교환하였으며, 워크숍 결과 및 오늘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법제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토록 요청함.
• 제2호 : 건축사연금제도 추진 방향의 건
  – 위원장이 건축사연금제도의 도입취지와 방향에 대해서 설명함.

■ 제3회 주거복지위원회

제3회 주거복지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2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우리도시 살리기 전국투어 추진의 건
  – "죽은도시 살리기" 전국투어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명칭을 "우리도시 되살리기"로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추진키로 함.
  ▷ 장소선정 : 우선적으로 인천{중구, 동구(괭이부리마을)}, 수원(지동), 대전(유천동, 동구 정동) 세지역 중 한 곳을 선정하기 위하여 모든 위원이 현장답사를 실시하기로 함.
  – 1차 답사(7월 9일)⇒수원(지동), 인천{중구, 동구(괭이부리마을)}
  – 2차 답사(7월 27일)⇒대전(유천동, 동구 정동)
  ▷ 전국투어 세부추진계획 수립 : 장소 선정 후 성공사례 도시 답사를 8월말에 실시토록 하고 세미나 개최를 11월초에 맞추어 사업을 준비토록 하며, 12월말까지 결과물을 도출하여 내년초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적인 제안을 하기로 함.
  ▷ 사업예산편성 : "우리도시 살리기" 전국투어 추진사업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답사 및 세미나 등의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을 신경선 위원이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차기 이사회(7월 중)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상정하여 승인받기로 함.
• 제2호 : 다문화가정 연구사업 추진의 건
  – 다문화가정 연구사업(다문화 커뮤니티) 추진여부와 대해서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임을 감안하여 올해 위원회에서 추진하기 보다는 내년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함.
• 제3호 : 도시활성화 지원의 건
  – 국토해양부에서 "도시계획 전문가, 재능기부로 도시활성화 지원" 보도와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 담당자와 의견교환하고 본협회에서 같은 맥락으로 "우리도시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인지시키고 본협회 차원에서 건축사가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결정하는 것으로 함.
  우리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도시 살리기" 사업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결과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함.

■ **제1회 BIM TF**

제1회 BIM TF 회의가 지난 6월 2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BIM TF팀 운영 및 추진 방향에 관한 건
  - BIM의 현황 및 문제점
    - ▷ 현재 BIM은 시공분야에 치우쳐서 발전하고 있다. 시공분야에서 BIM은 오차 범위축소 및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는 System으로 인지하고 있다.
    - ▷ 설계시장의 외부적 요소에 의하여 BIM적용을 강요받고 있다. BIM사용을 강제화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 ▷ BIM 적용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의 문제에 대하여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BIM은 건축사의 지적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잠재적 문제를 갖고 있다.
    - ▷ 설계는 생산성 확보가 주요 지향점이 되어서는 안된다.
  - BIM TF팀의 운영 및 추진방향
    - ① BIM과 관련하여 협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할 경우 의견서를 작성한다.
    - ② BIM과 관련하여 건축사의 교육방안을 모색한다.
- 제2호 : 기타의 건
  - 한글 폰트 저작권에 관한 건
    - ▷ 한글 폰트 저작권과 관련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다음 회의 때 의견을 논의하기로 함.
  - 정례회의 보다 SNS를 통한 의견을 교환하고, 필요시 회의는 화요일 11시에 개최하기로 함.

■ **제1회 농촌건축 TF**

제1회 농촌건축 TF 회의가 지난 6월 2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2년도 농촌건축 TF팀 운영 및 추진방향의 건
  - 위원회에서 추진할 과제는 각 위원이 추진사항 및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사무처로 이메일로 보내기로 하며, 우선순위, 추진전략, 실천계획 등에 관해 다음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2회 회관관리위원회**

제2회 회관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2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위탁업무관련 사무공간에 대한 사용료 기준의 건
  - 예산이 반영된 부서(건축사등록원 등)의 사용료 부과는 예산편성대로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위탁 업무부서는 업무공간이 구분된 부서(건축사시험사무실, 건설기술자 등 사무실)는 업무공간기준으로, 업무공간이 구분되지 않은 부서(APEC등록업무, 건축자재전시사무실)는 2인정도의 업무공간인 5평을 기준으로 일반임대기준을 적용하는 책정방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고, 실제 임대부과 징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에 따름
- 제2호 : 회관 외부간판 시안 협의 건
  - 2개의 새롭고 참신한 업체를 선정하여 참신하고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2개씩의 안을 준비하여 검토하기로 함.

▲기타사항

- 9층 자료실 구조적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B3층의 문서고를 정리하여 가능하다면 하중이 많이 나가는 잡지류는 지하서고에 적재하도록 검토함.
- B3층 문서고는 렉장비 설치, 환풍기 및 타이머설치 등을 검토하여 장기의 문서보존에 적합하도록 개선함
- 로비 안내스피커 설치시 로비의 미관을 고려하여 천정매립을 원칙으로 함.
- 대강당 환경개선 중 흡음재의 시공에서 패브릭(천)외에 다른 재료를 조사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 대강당 LED조명 개선은 주차장과 별도로 시행하며, 조도 개선보다는 조명 품질개선에 역점을 둠

■ **제3회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

제3회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2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행사대행업체 선정의 건
  - 집행위원회에서 우선대상자로 협의한 (주)판컴을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기본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기본계획 및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함.
    다만, 대회주제 중 '건축'의 글씨크기는 좌측(시+문)과 동일하게 하거나 글씨 색체를 다르게 하는 방안을 집행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결정하기로 함.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기본계획
– 대회명칭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 영문명칭 : KIRA National Convention, 2012 Festival of Korean Architects
– 일　시 : 2012. 10. 25(목)~26(금)
– 본 대 회 : 2012. 10. 26(금)
– 주　최 : 대한건축사협회 (KIRA)
– 주　관 :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대회예산 : 4억
▷ 포스터는 3차 제작시안으로 결정으로 하되, 오늘 논의된 사항을 집행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수정 · 보완하고 차기 회의 시 보고하기로 함.
– 고건축에서 현대건축까지 배치된 건물 중 타임라인과 다르게 배치된 부분을 수정
– 주제 등이 너무 아래로 치우친 부분을 수정
– 2012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을 현대한국건축으로 배치하는 부분 고려

▲기타사항
•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을 서울과 광주에서 동시에 전시하기로 함.
• 건축사미술동호회 작품전시는 광주에서만 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집행위원회장이 동호회 회장과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함.
• 건축사의 가족 합창제는 시도건축사회별로 최소한 1팀 이상이 참석토록 서울건축사회 회장이 시도건축사회장 협의회를 통하여 적극 독려하기 함.
• 대한민국건축사대회 대회기는 경기도건축사회에서 주관한 2010 대한민국건축사대회 당시 대회명칭이 바뀌면서 대회기를 새롭게 제작하였으나 이전부터 대회를 상징했던 기존 대회기가 있었던 만큼 이 부분은 협회 이사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토록 회장에게 요청하기로 함.
• 광주건축사회에서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본협회 지원금액(1억5천만원)에 대한 송부요청 공문을 본협회로 발송키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입금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요청하기로 함.
• 차기 회의는 7월 26일(목) 14:30 개최하기로 하고, 조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합동회의를 8월 중순 이후에 광주에서 갖기로 함.

■ 제7회 법제위원회

제7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28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내용
• 제1호 :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 개선에 관한 건
– 입법발의(안)은 최남수(김윤) 이사, 김의중 前이사, 오동욱 위원장, 배홍렬 위원, 김호준 위원, 백민석 위원으로 구성한 소위원회에서 검토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기로 함.
① 임의조항으로 규정한다면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기 이전에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정하는 경우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일정범위의 건축물은 의무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
② 적용대상을 구체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경우 포괄위임이 되지 않도록 법에서 일정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
③ 지역제한이 될 경우 역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검토 필요
• 제2호 : 건축법령 재입법예고 개정(안)에 관한 건
– 동 개정(안)이 재입법예고 되었으므로 오동욱 위원장, 왕정한 위원, 윤홍노 위원, 박수일 위원, 김상호 위원, 양옥경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기로 함.
• 제3호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건
– 수정(안)의 내용은 현실에서도 이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무처에서는 추후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기로 함.
• 제4호 : 건축사법 징계 양정기준 마련에 관한 건
– 동 내용은 제2호의 소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함.
• 제5호 : 기타의 건
① 조달청 발주공사 BIM 설계적용 의무화 도입에 대한 검토의 건
– 조달청에서 BIM 관련 발주제도를 모니터링하여 이에 대한 건의내용에 대한 초안을 BIM TF팀에서 마련하고 차기 법제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국토부, 규제위, 공정위, 국건위 등에 건의하기로 함.
②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의에 대하여
– 협의안건 제2호 결과에 따라 구성될 소위원회에서 함께 검토하기로 함.
③ 건축위원회 과제추진 요청에 대하여
– 다음 과제를 건축위원회가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요청하기로 함.
가. 공동주택 외부디자인 설계에 대한 개선
– 대형 건설사(삼성, 현대)의 APT 건설시 외부디자인, 파고라 등을 건축사는 제외되고 미술 관련학과 졸업자가 설계하도록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사례조사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함.
나. 주차장 등 교통심의문제 개선
– 건축법, 주차장법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보다 강화된 심의를 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 · 분석하여 대

처하는 것이 필요함.

④ 교육위원회 과제추진 요청에 대하여

– 석면해체감리인 교육을 우리협회도 수행하고 건축사인 경우 일부과목을 면제(도면의 이해 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석면해체감리인 교육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을 요청하기로 함.

⑤ 유지관리 제도개선 연구 참여에 대하여

– 협회의 친환경건축연구원과 건설기술연구원이 MOU를 체결하였으므로 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건설기술연구원에 연구과정마다 왕정한 법제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필요함.

⑥ 건축 관련 기준 및 규정 재검토 기한 관련하여

– 국토부에서 건축 관련기준 재검토와 관련하여 우리협회에 검토요청을 문서로 송부하면 개정(안)을 마련하여 건의하는 것이 필요함.

⑦ 국토부 항의에 관한 건

– 2012년 6월 27일 인테리어설계관련 용역 보고회 참석시 국토해양부담당과에서 보인 협회대표단에 대한 처사는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우리협회의 권위를 찾을 수 있도록 위원장 책임 하에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의 내용을 차기 이사회에 알리기로 함.

■ 제3회 기획위원회

제3회 기획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부위원장 선임의 건
  – 효율적인 위원회 운용을 위해 홍사원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함.
• 제2호 :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내용을 협의하고, 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후 8월 이사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키로 함.
• 제3호 : 대한건축사협회특별상 운영규정 개정의 건
  – 원안과 같이 이사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키로 함.

▲기타사항

• 현재 진행 중인「협회 경영 및 조직진단 컨설팅 용역」에 회원의 관점에서 중립적으로 감독 및 리드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역할이 필요함에 따라 홍사원 부위원장이 담당할 수 있도록 회장에게 건의키로 함.
• 지난회의에서 법인협의회운영규정이 전회원의 공통사항에 부적합하고 시기가 적절치 않아 논의를 보류하였던 바, 법인협의회가 협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협회 조직으로 한 분야를 책임지면서 협회 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에 따라, 차기 기획위원회에 법인협의회 총무나 간사를 참석토록 하여 법인협의회의 필요성, 운영방법 등을 직접 설명을 듣는 기회를 갖기로 함.

■ 제6회 건축영화제 TF

제6회 건축영화제 TF 회의가 지난 7월 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제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시행에 관한 건
  – 제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 함.
    ▷ 지난 1-3회때 기구매한 소장DVD 60여 편과 올해 새로 구입한 DVD를 위원들끼리 할당 시청하여 상영작을 최소 10편으로 추리는 과정에 있음. 현재 3편이 상영확정되었으며, 확정된 작품 순으로 배급사와 상영 협상에 들어감.
    ▷ 건축인들 외 일반인들에게 영화제를 즐길 기회를 마련하기위해 극영화, 건축 관련다큐멘터리 비율을 6:4로 정하였으나, 영화제 특유의 색깔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3:7의 비율로 수정함.
    ▷ 다음 주 이내로 홈페이지 계약을 완료하며, 에이전시 쪽에서 제시한 가안을 받아본 뒤, 제작에 들어가기로 함.
    ▷ 스폰서링을 위한 포스터 디자인을 7월 10일까지 받아 7월 16일부터 스폰서링을 시작하도록 함.

2012 건설의날 기념식서 '이창율 건축사' 등 표창

지난 7월 2일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2012 건설의 날' 행사에서 우리협회 회원들이 산업포장 및 국토해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창율 건축사(주.지에이 건축사사무소)는 건설산업유공자로 영예의 산업포장을 수상했으며, 신동출(주.건축사사무소 신동건축), 장현숙(주.제이드 건축사사무소), 심우석(우성 건축사사무소), 임창희(창조 건축사사무소), 손근익(건축사사무소 선건축) 건축사는 국토해양부장관 표창을 수상해 수십 년간 건축사로서 건축문화 발전에 노력해온 숨은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해 건설인들을 격려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여성친화시설 인증평가사업 참여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 첫 번째 연계사업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여성친화시설 인증평가사업'에 참여했다.

서울시건축사회 여성위원회로부터 자치구별 소속 여성건축사를 추천받아 7월 3일부터 7월 27일까지 4주간에 걸쳐 서울시 전역의 여성친화시설을 평가하고 인증했다.

여성친화시설 인증평가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화장실(375), 주차장(206), 길(35), 공원(40)로 총 656개 시설이 서울시로부터 여성친화시설로 인증 받았다. 올해는 화장실, 주차장 부문에서 380여 개소를 평가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지난해 8월 23일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MOU를 맺고 10월에는 코엑스에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서울 심포지움'을 개최해 여성친화시설 홍보관을 운영하기도 했다.

경기도건축사회, 경기도와 '상호소통을 위한 건축사 간담회' 개최

경기도건축사회가 경기도와 '경기도건축사회 및 경기도 상호소통을 위한 건축사 간담회'를 7월 18일 경기도건축사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폭넓게 토의하고 건축 · 주택행정 발전 방향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기도건축사회에서는 김봉회 회장, 백승천 직전회장, 김인철 상임부회장, 한문규 부회장과 이사 등 약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에서는 이춘표 주택정책과장과 송해충 건축정책담당, 서범석 주택관리담당, 이건용 건축문화담당 등 약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경기도건축사회는 '개발행위 허가 시 심의 대상이 매우 범위가 넓고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의 약 20여개 분야의 건축관련 행정에 대해 개선 및 건의 했고, 이에 경기도는 건축 · 주택정책 방향과 함께 2020 주택종합계획, 세대구분형(멀티홈) 아파트 공급 확대,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 개정 등을 설명했으며, 상호소통을 위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영주지역건축사회 인재육성장학금 기탁

영주지역건축사회는 지난 7월 16일 영주시청을 방문하여 3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이희대 회장은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가 발전하는데 조그마한 보탬이 되고 싶다"고 전하며 지속적으로 우수한 건축인 양성을 위해 매년 인재육성장학금을 기탁할 계획임을 밝혔다.

영주지역건축사회는 지역대학교에 매년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농촌 현실을 감안해 농업인이 건축하는 저온저장고, 농업용 창고 등의 설계를 대행하는 등 타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건축계소식

제4회 아시아 이머전트아키텍처 SAI-Getz 건축상 후보공모

싱가포르건축사협회(SIA)에서는 아시아 건축에 대한 공공의 참여와 관심을 증진시키고, 차세대 아시아 건축사를 장려하며, 현 건축사의 업적에 대한 인정을 위해 격년 마다 '이머전트아키텍처 SAI-Getz 건축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수여하는 해로 후보를 공모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모기간: 7월 1일~8월 31일
- 심사기간: 9월 중
- 시상식: 10월 중 (상금: 20,000달러)
- 자격요건: 면허를 소지한 3명의 건축사 추천
  A4 한 장 분량의 추천자에 대한 의견서 추천자에게 제출
- 제출서류: 신청 양식 및 최소 5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력과 시각자료를 포함한 포트폴리오
- 제출처: SIA-GETZ Architecture Prize
  Singapore Institute of Architects
  79B Neil Road, Singapore 088904
  (T: 65-62262668 / F: 65-62262663)

동교동 유림빌딩 리모델링 Design Idea 학생공모

한미글로벌(주)에서 학생들의 리모델링 Design Idea를 공모한다.

동교동에 위치한 유림빌딩(5층)의 증개축 리모델링을 통하여 젊은층이 선호하는 상권을 형성하고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기능을 하고자 기획된 이번 공모에서는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적극 디자인에 반영할 예정이다. 응모자격은 국내 소재 대학교 건축(공)학과 재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발주자: 한미글로벌(주)
- 응모 등록: 8월 1일~8월 7일 17:00
- 현장 설명: 8월 8일 (장소 별도 통보)
- 제안서 접수: 8월 31일
- 최종 선정: 9월 7일
- 등록처: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9 도심공항타워빌딩 11층 한미글로벌(주) 엔지니어링팀 이해욱 차장(hwlee@hmglobal.com)
- 상금: 당선작(1점) - 1천만 원
  우수작(1점) - 5백만 원
  가작(3점) - 1백만 원

2012 World Monuments Fund/knoll Modernism Prize 공모전 개최

2010년 수상작 (2010 winners Bierman Henket architecten and Wessel de Jonge architecten for Zonnestraal Sanatorium, Hilversum, The Netherlands)

1965년에 설립된 세계유적재단(World Monuments Fund)은 세계의 주요 지역을 보존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기관이다. 이 기관은 현대건축물(Modern architecture)이 당면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2006년부터 위기에 처한 모더니즘을 구제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는 이 공모전은 부지의 건축적, 기능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지역에 혜택을 주는 프로젝트면 제출이 가능하다.

- 참가대상 : 개인 또는 팀
- 제출기한 : '12. 8. 21일 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modernism2012@wmf.org) 제출
- 참 가 비 : 없음
- 수상혜택
  - 상금 : $10,000
  - Knoll®Barcelona® chair
  - 뉴욕까지의 왕복항공권 및 숙박권
  - Museum of Modern Art 강연 중 본인 작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기회
  - 세계유적재단 홍보실 수상작 홍보
-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세계유적재단 홈페이지(www.wmf.org/modernism) 또는 본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 UIA 소식란을 참고.

'3.11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건축전' 개최

지난해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의 자연재해를 겪은 일본 건축사들은 위기상황 속에서 복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런 작업들을 소개하기위해 일본국제교류기금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3.11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건축전'을 개최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5월부터 8월까지 부산을 시작으로 제주, 서울, 여수 순으로 진행하고 있다. 오는 22일까지는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무료관람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www.jpf.or.kr/02-397-2844)를 통해 확일할 수 있다.

청암사진연구소, 건축매거진 「MADE」 창간

청암사진연구소(대표 임정의)가 건축계간지 「MADE」를 창간했다.

지난 6월 '사진을 통한 문화예술잡지'를 표방하며 첫 호를 발간한 「MADE」의 발행인은 " '건축과 환경 그리고 사진과 디자인'은 MADE가 집중하고자 하는 문화예술부분이며, 각각의 매체가 서로 어우러져서 현대문화를 표현하고 대중이 쉽게 접하며 즐길 수 있는 문화아이콘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건축이라는 요소가 디자인 혹은 환경이라는 요소를 만나 사진으로 새롭게 표현되는 모습들, 그 다양한 모습들을 대중에게 패션처럼 친밀하게 다가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M.A.D.E가 각각 내포하는 의미는 M은 현대(Modern)를, A는 건축(Architecture)을, D는 디자인(Design)을 E는 환경(Environment)을 의미한다.

2012 안양시건축문화상 Festival 작품 공모 안내

안양시에서는 9번째 개최하게 되는 2012 안양시건축문화대상 Festival에서 작품을 공모한다. 응모부문은 아름다운 건축물과 계획부문 학생부분으로 아름다운건축물 부문의 경우 2010년 9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 기간 중 사용승인된 안양시 소재 건축물이면 가능하다.

- 응모신청 기간: 7월 2일~9월 14일(1차심사 개별통보)
- 작품접수: 9월 26일
- 문의: 안양시 홈페이지(www.anyang.go.kr)/안양시 건축과 건축미관팀(031-8045-2040~1)

친환경 건축설계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www.saa.or.kr)에서 '친환경 건축설계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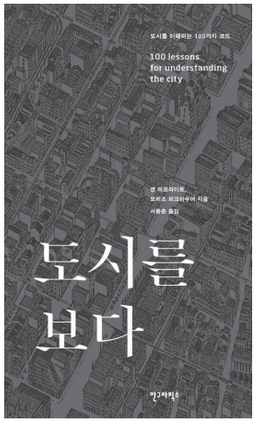
이번 '정규과정 제11기'과정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모집일정 및 모집인원,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는 아래와 같다.

- 모집일정 및 모집인원
  - 서류 접수기간 : 2012년 7월 25일(수) ~ 8월 31일(금)
  - 서류합격자 발표일 : 2012년 9월 5일(수)
  - 면접 전형일 : 2012년 9월 8일(토)
  -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12년 9월 10일(월)
  - 모집인원 : 60명
-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 교육기간 : 2012년 9월 19일(수) ~ 2012년 11월 24일(토)
  - 교육시간 : 주 2회(수, 토), 일 6시간(13:00 ~ 19:00)
  - 교육장소 : 건축사회관 3층 전용교육장
- 원신청서 다운로드, 교육대상자 발표 등의 자세한 사항은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www.saa.or.kr) 및 대한건축사협회(www.kira.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신간안내

도시를 보다

앤 미콜라이트 · 모리츠 퓌르크하우어 저 · 서동춘 역
144쪽 | 안그라픽스



'거리를 걸으며 도시 곳곳에 숨은 비밀 코드를 찾아라!'

이 책은 뉴욕의 '소호'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숨은 원칙을 밝혀내고 있다. 도시가 다양한 사람과 문화가 섞임에도 공존할 수 있는 이유는 나름의 규범과 패턴이 존재하기에 가능하다는 것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요소들을 심리학과 경제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저자는 도시와 도시민의 삶을 100가지 코드로 해석하고 풀어내고 있으며, 이러한 100가지 어번코드(Urban Code)는 바로 도시의 문법을 해독하는 열쇠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사진 및 일러스트 등의 다양한 시각자료가 제공되어 마치 직접 소호 거리를 거닐고 있는 것과 같은 생생함을 전달해 준다. 또한 렘 콜하스, 제인 제이콥스,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등의 글에서 발췌한 인용문들을 활용하여 문학적 감수성과 사회학적 해석을 더하고 있다.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이야기

도시재생사업단 저 | 360쪽 | 한울

최근 도시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자란 유무형의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해, 쇠퇴해가던 도시를 재생시키려는 패러다임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시점에서 전문가 14명이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우수 사례 지역의 조사연구를 통한 결과물을 엮어 발행한 것으로 삶의 질이 보장되고, 지속 가능하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을 만들이 위한 모색을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과 활용, 역사·문화 재생 관련 제도 도입, 지역 커뮤니티 재활성화, 새로운 지역 문화 창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이 어떻게 재생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도시의 귀중한 자원을 재생을 위한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주요 조사 사례지로는 미국 시애틀, 오리건 주 포틀랜드, 일본 가나자와, 가구라자카, 독일 베를린, 영국 게이츠체드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제는 평양건축

필립 뭬제아 저 · 윤정원 역 | 368쪽 | 담디

저자 필립 뭬제아는 독일인으로 수차례 평양을 방문하며 자료를 모아 이 책을 통해 그동안 보지 못했던 평양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어떤 나라보다도 철저하게 고립되어있는 나라'라고 북한을 표현하면서 그들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해 오는데 건축이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평양의 시내, 대동강을 축으로 주변에 위치한 넓은 도로,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되고 디자인된 공동체 건물이나 그 앞에 부착된 지도자의 생일이나 개국일이 적힌 명판, 각종 동상과 기념지들…. 모든 것들이 국가의 사상과 연관되어 있다고 언급한다. 책의 내용은 크게 두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부분은 건축 역사와 배경을 설명하고, 뒷부분은 평양의 도시계획, 건축물, 기념비 등을 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평양의 모습을 생생한 사진자료와 함께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 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77-9494 · 강북구건축사회/903-4666 · 강서구건축사회/2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88-2490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3494-3221 · 동대문구건축사회/9927-0503 · 동작구건축사회/814-8843 · 마포구건축사회/338-5556 · 서대문구건축사회/324-3810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7-3236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2644-6688 · 영등포구건축사회/2634-3102 · 용산구건축사회/719-5685 · 은평구건축사회/357-6833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266-4904 · 중랑구건축사회/496-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327-9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6-8046~7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5-1402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3-9680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3-6651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7-6621 · 영평정태지역건축사회/(033)374-6478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5-2906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1-2443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남부지역건축사회/(043)543-9911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7-6633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42-3400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2-2084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 아산지역건축사회/(041)549-5001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논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041)335-1333 · 태안지역건축사회/(041)674-37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룡지역회장/(042)841-5725 · 청양지역회장/(041)9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6171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1515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26-687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9944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01-0386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6-2651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2-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6-885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445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1-4566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7-0085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3-1219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78-6129 · 군위,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고령,성주지역건축사회/(054)931-3577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6-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고성지역건축사회(055)673-0487 · 김해시건축사회/(055)334-6644 · 마산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시건축사회/(055)832-1301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62-6434 · 진해시건축사회/(055)547-4530 · 창녕시건축사회/(055)532-9913 · 창원시건축사회/(055)282-436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2-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83-4611 · 함안시건축사회/(055)585-8583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63-1010

| 대한건축사협회 모바일 홈페이지 오픈|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모바일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11.8.9일부터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방법

- 주소입력 : http://m.kira.or.kr
- 포털사이트 : 대한건축사협회 검색후 클릭시 자동연결
- QR코드 인식 후 접속

○ 모바일 홈페이지 이용방법

· 메인 상단 탭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의 총5개 게시판을 탭으로 링크. 사용자가 터치했을 때 해당 게시판의 내용을 볼 수 있음.
· 메인게시판 : 각 게시판의 최근내용을 보여줌.
· 하단아이콘 : 대한건축사협회장의 인사말, 협회설립목적/연혁, 조직, 주요사업, 역대임원, 회원검색, 알림광장, 회원가입안내 등의 내용을 각각의 아이콘을 터치함으로서 볼 수 있도록 구현.
· 관련 사이트 : 각 회사의 로고를 회전하는 배너형식으로 구현, 사용자가 터치했을 때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
· 오시는 길 : Daum지도를 연동하여 확대축소가 가능한 지도로 표현
· PC버전보기 : 사용자가 터치했을 때 대한건축사협회의 PC버전 홈페이지로 이동

| QR코드 인식방법 |

큐알(Quick Response)코드는 약자로 "빠른 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바코드와 비슷한 것인데, 활용성이나 정보성 면에서 기존의 바코드보다는 한층 진보한 코드 체계이다. 아래 QR코드는 대한건축사협회 모바일 홈페이지의 주소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간단히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을 할 수 있다.

○ QR코드 인식방법

스마트폰의 QR코드 인식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QR코드를 읽어 들이면 모바일 홈페이지 주소입력 없이 바로 대한건축사협회 모바일 홈페이지 메인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이윤석_Lee, Yun-seok | ㈜현신 건축사사무소

Getting Greener
친환경 건축의 현실화

A Rendering of the Carbon Neutral Bullitt Center

'그린', '친환경', '지속가능성'이란 단어들은 더 이상 어려운 단어가 아니다. 오히려 이제는 상업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단어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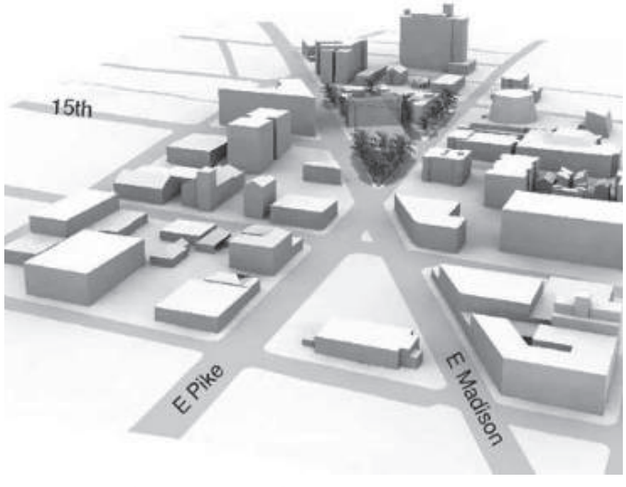
최근 시애틀에서는 지역계획을 친환경적으로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시애틀의 비영리재단 Bullitt은 친환경지구의 실현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해 시애틀 시의회로부터 5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이 재단은 현지의 GGLO라는 사무소를 고용하여 '친환경 지구(Eco-district)'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난달부터는 저렴한 주택의 증가나 지역사회 과수원, 우수관리 시스템과 같은 구체적인 제안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국회 친환경 부서 담당자인 알렉스 브레넌(Alex Brennan)은 에너지, 물, 자원, 교통, 거주지를 고려하면서 지역기반 시설과 건축 디자인을 통합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계획이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에 대한 더욱 통합된 지역 개발 대안이라고 여기고 있다.

GGLO의 연구는 포틀랜드 친환경 연구소에 의해 성립된 체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이미 포틀랜드 주변지역들을 위한 실험적인 친환경 사례(Foster Green, Lloyd District, Gateway)연구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이 실험적 연구에 대해 교육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건의사항들을 제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들 연구의 다음 단계는 경영체계, 재무모델 및 정책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의 첫 탄소제로 건축물이자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상업 건축물이라고 자부하는 Bullitt Center는 친환경 건축계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시애틀의 중심가에 위치한 이 건물은 Miller Hull Partnership가 건축설계를 담당했으며, Berger Partnership McGilvra가 조경을 담당했다.



located at the Central District in Seattle, Washington

이 건물은 에너지와 물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에너지는 태양광 패널 지붕을 통해 공급이 되며, 물은 빗물은 모아 지하 수조에 저장되어 자외선에 의해 처리되며 이는 건물 대지에 있는 식물에게 줄 물로도 사용된다.

건축사는 에너지 수요의 75%이상 감소해야만 했다. 인공 조명 사용을 제로에 가깝도록 하기 위해 낮 동안 높은 천장, 창문을 통해 자연채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겨울에는 지열을 이용한 난방을 할 수 있게 하였다.

Bullitt Center의 총 비용은 총 30만 달러, 전형적인 중층 건물 비용의 3분의 1 보다 조금 많은 정도이다. 그러나 콘크리트,

The Latest Construction Process (The Curtain Wall System)

강철, 목재 코어는 일반 상업용 건물의 40년 수명에 비해, 예상 수명이 250년 정도로 기대된다.

Bullitt사장 Denis Hayes은 본인들이 시도하고 있는 대부분 것들이 단일 건물에 통합되어 실현되는 것은 처음이며 이는 학습의 좋은 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들의 야심찬 최종 목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친환경 인증 기준인 'The Living Building Challenge' 에 부합되는 건축물을 완성하는 것이다.

※ 윗글의 일부는 http://archpaper.com/news/와 http://bullittcenter.org/ 의 기사 일부를 발췌, 인용하였습니다.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2년 6월말

구분 / 건축사회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1인		2인		3인이상		소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733	5,733	92	184	8	24	5,833	5,941	1,673	1,673	230	460	58	174	27	108	18	121	2,006	2,536	7,839	8,477
서울	897	897	22	44	1	3	920	944	852	852	124	248	41	123	11	44	12	72	1,040	1,339	1,960	2,283
부산	488	488	11	22	2	6	501	516	112	112	22	44	2	6	2	8	2	15	140	185	641	701
대구	482	482	21	42	4	12	506	535	67	67	18	36	3	9	3	12	0	0	91	124	598	660
인천	281	281	4	8	0	0	285	289	66	66	6	12	1	3	0	0	0	0	73	81	358	370
광주	207	207	0	0	0	0	207	207	41	41	8	16	1	3	3	12	0	0	53	72	260	279
대전	265	265	6	12	0	0	271	277	31	31	8	16	5	15	0	0	1	13	45	74	316	352
울산	184	184	5	10	0	0	189	194	19	19	2	4	1	3	0	0	0	0	22	26	211	220
경기	806	806	1	2	0	0	807	808	242	242	20	40	2	6	2	8	1	5	267	301	1,074	1,109
강원	190	190	2	4	0	0	192	194	24	24	2	4	0	0	1	4	0	0	27	32	219	226
충북	220	220	3	6	0	0	223	226	37	37	3	6	1	3	2	8	1	9	44	63	267	289
충남	265	265	1	2	0	0	266	267	49	49	4	8	1	3	2	8	0	0	56	68	322	335
전북	259	259	5	10	0	0	264	269	24	24	4	8	0	0	1	4	0	0	29	36	293	305
전남	214	214	0	0	0	0	214	214	19	19	2	4	0	0	0	0	1	7	22	30	236	244
경북	390	390	4	8	1	3	395	401	40	40	3	6	0	0	0	0	0	0	43	46	438	447
경남	449	449	7	14	0	0	456	463	35	35	3	6	0	0	0	0	0	0	38	41	494	504
제주	136	136	0	0	0	0	136	136	15	15	1	2	0	0	0	0	0	0	16	17	152	153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분 / 건축사회	회원		준회원
	건축사	비율	
합계	8,477	100%	13
서울	2,283	33.9%	2
부산	701	7.9%	8
대구	660	7.7%	0
인천	370	3.8%	0
광주	279	3.7%	0
대전	352	3.7%	0
울산	220	2.6%	0
경기	1,109	12.2%	3
강원	226	2.6%	0
충북	289	3.0%	0
충남	335	3.1%	0
전북	305	3.0%	0
전남	244	1.9%	0
경북	447	4.6%	0
경남	504	5.0%	0
제주	153	1.3%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비고
회원수	5,941	2,536	8,477	
비율	70.08%	29.92%	100%	
사무소수	5,833	2,006	7,839	
비율	74.41%	25.59%	100%	